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학위논문

鄭澈의 「前後美人曲」과 屈原의 「離騷」의 比較硏究

2018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전공

馮 智

鄭澈의 「前後美人曲」과 屈原의 「離騷」 比較硏究

지도교수 서철원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전공

馮 智

馮智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7월

위 원 장 朴晟圭 (인)

부위원장 李鍾默 (인)

위 원 徐徹源 (인)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정철의 「전후미인곡」과 굴원의 「이소」를 그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철과 굴원의 작품 사이의 영향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조선시대에 송강가사가 "우리나라의 이소"에 비견되었던 근거를 두 작가의 인생과 작품세계, 시대적 배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국문학에서 굴원의 초사가 받아 온 비평적 가치와 송강가사에 대한 문학사적 인식의 기준을 다변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Ⅱ장에서 다른 시대와 지역의 상황을 체험한 '사'인 굴원과 정철의 시대적·지역적 배경과 생애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먼저, 작가가 살았던 시대와 지역의 국가상황, 전반적인 정치 현실, 지배적 사상, 당대의 일반적인 현실대응 태도와 일반적인 군신관을 비교하였다. 그 다음으로, 작가 개인의 정치상황 · 지배적인 사상 · 현실대응 태도 · 군신관을 중심으로 작가 생애를 비교하였다. 이에 따르면 굴원은 중국 전국시대 말기의 상황을 반영한 애국자였으며, 정철은 16세기 조선의 서인들이 지녔던 정치사상의 핵심을 드러낸 사대부였다.

Ⅲ장에서는 화자와 임금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였다. 「이소」에 남성화자와 여성화자가 혼재되어 있는 것에 비해, 「전후미인곡」의 화자는 여성으로만 나타난다. 이는 두 작가가 그리려는 군신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굴원은 「이소」에서 여성화자로 자신의 충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더 이상 사우로 섬기지 않는 임금에 대한 울분의 심정을 호소하고, 남성화자로 이제 다른 현군을 찾아 사우의 대접을 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토로한다. 이와는 달리 정철은 「전후미인곡」에서 여성화자를 통해 임금과의 믿음과 존중이 영원하기를 기대하면서도 자신이 버림받은 이후에도 임금을 그리워하고 걱정한다는 마음을 드러낸다. 굴원은 일방적인 충효가 강조되지 않는 군신관계를 그리고 있지만, 정철은 일방적인 충효가 강조되는 군신관계를 그리고 있다. 다음으로 두 작가의 작품에서 임금에 대한 태도 차이가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았다. 임금에 대한 태도가 다른 이유는

두 작가의 군신관 및 그들이 처한 국가 상황과 정치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제Ⅳ장에서는 시·공간과 작가의 진퇴의식을 주로 비교하였다. 우선 두 작가의 작품은 시·공간의 설정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이소」에서 그리는 시간은 순환성이 없으며, 화자는 천상계와 지상계라는 두 세계를 이동하고 있다. 「전후미인곡」에서 그리는 시간은 춘하추동의 계절, 주야의 주기로 순환성이 있으며, 화자는 지상계에 존재하는 공간을 이동할 뿐 천상계로 이동하지 못한다. 둘째, 「이소」의 시·공간구조가 순환하지 않는데 반해 「전후미인곡」의 시·공간구조는 순환하고 있다. 「이소」의 화자는 과거에 지상계의 조정에 있었지만 죽음으로써 미래에 팽함이 거처하는 지하계로 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전후미인곡」의 화자는 과거에 임과 함께 천상계에 있었는데 미래에 변신으로써 천상계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다.

다음으로 두 작가 작품의 시·공간이 다르게 설정된 이유를 분석하였다. 이는 두 작가가 그리고자 했던 진퇴의식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굴원은 「이소」에서 고국의 조정을 간신배가 있는 부정적인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떠나고 싶으면서도 고국에 대한 사랑을 비롯한 여러 이유로 인해 망설였다. 그러나 정철은 「전후미인곡」에서 조정을 정적의 존재로 인한 부정적 공간으로 보지 않으며, 어쩔 수 없이 초야로 물러난 후 항상 임을 그리워하고 걱정해서 조정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다. 결국 굴원은 작품에서 애국 때문에 다른 국가에 차마 가지 못하지만 고국의 조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으며, 고국에 대한 사랑과 미정의 이상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고 고국의 정치에 대한 분노와 다른 국가에 가서 이상을 추구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표현한다. 반면 굴원과 달리 정철은 작품에서 결국 조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확고해졌으며, 임금에 대한 사랑을 영원히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한다. 두 작가의 작품에서 진퇴의식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를 정리하면, 무엇보다 두 작가 당대의 출처관이 차이를 보이며 두 작가가 처한 국가 상황과 정치현실이 다르기 때문이다.

Ⅲ, Ⅳ장을 통해 「이소」보다는 「전후미인곡」이 충신연주지사의 전형에 가깝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나아가 Ⅴ장에서는 송강가사가 '동방

이소'로 불린 원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서인사대부를 포함한 조선사대부가 굴원과 초사를 유교의 충신과 정전으로 간주했던 까닭을 살펴보았다. 주자 등의 중국사대부들은 처음에 중용에 맞지 않다고 여겨지던 굴원과 초사를 유교적 충신과 정전으로 만들었고, 서인사대부들은 주자의 시각을 통해서 초사를 이해하였다. 서인사대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고히 하려는 목적에서 송강가사를 정철과 그의 문학을 굴원과 초사에 비견하였다. 그들은 송강가사를 동방이소로 만들고자 송강가사의 문자화 및 한역과 송강가사 계승작 창작에 힘썼다. 이로 인해 송강가사는 굴원의 초사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이소로 여겨진 것이다.

핵심어: 고전시가, 비교문학, 정철, 굴원, 「전후미인곡」, 「이소」
학번: 2010-23966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1

1. 연구사 검토와 문제 제기 ····· 1

2.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 8

Ⅱ. 작품 창작의 배경 및 작가의 생애 ····· 13

1. 작품 창작의 배경 ····· 14

2. 작가의 생애 ····· 27

Ⅲ. 화자와 임금에 대한 태도 ····· 51

1.「이소」 ····· 51

2.「전후미인곡」 ····· 71

3. 태도의 비교 ····· 85

Ⅳ. 시·공간과 진퇴에 대한 인식 ····· 88

1.「이소」 ····· 88

2.「전후미인곡」 ····· 109

3. 의식의 비교 ····· 122

Ⅴ.「전후미인곡」의 후대적 비평 ····· 126

1. 충신연주지사 ····· 126

2. 동방이소 ····· 143

Ⅵ. 결론 ····· 156

<참고문헌> ····· 159
<중문초록> ····· 163

Ⅰ. 서론

1. 연구사 검토와 문제 제기

이 논문은 송강 정철(松江 鄭澈, 1536-1593)의 「전후미인곡(前後美人曲)」과 굴원(屈原, B.C.340?-B.C.278?)의 「이소(離騷)」를 동질적인 성격을 지닌 작품, 즉 충신연주지사라고 여기지 않는 관점에서 두 작가 작품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러한 차이를 만든 작가의식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정철이 어떻게 동아시아 문학의 중요한 원천이었던 굴원의 「이소」를 「전후미인곡」으로 새롭게 만들었는지 규명하고, 나아가 정철의 작품이 굴원의 작품과 여러 차이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 송강가사가 "우리나라의 이소(我東之離騷)"라고 불린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17세기 초반부터 송강가사가 굴원의 초사와 같다는 담론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 「전후미인곡」이나 이 작품들을 포함한 정철의 글을 굴원의 이소나 초사에 비견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은 '충성', '재주', '불행의 만남'의 세 가지 점에서 정철과 굴원이 같으니 송강의 글이 "후세에 전하여서 애석히 여겨질 것이 이소와 같다"고 하였다. 이선(李選, 1632-192)은 정철의 충성을 굴원의 충성에 비견하면서, 자신이 「관동별곡」·「전후미인곡」을 선사(繕寫)하는 작업을 "주자 『초사집주』의 남긴 뜻"에 비견하였다. 김만중(金萬重, 1637-1692)은 "송강의 「관동별곡(關東別曲)」·「전후미인곡」은 곧 우리나라의 이소다"라고 평가하였다. 김춘택(金春澤, 1670-1717)은 충심, 시어, 곡조의 세 가지 점에서 「전후미인곡」이 "이소에 가깝다"고 하였다. 성대중(成大中, 1732-1809)은 정철이 「사미인곡」을 지어 임금을 사랑하는 뜻을 우의하였으니 「사미인곡」이 대개 초사의 여음(餘音)이라고 하였다. 그밖에 정철의 「관동별곡」·「성산별곡」만 굴원의 이소에 비견한 경우도 있으며, 정철의 「전후미인곡」과 굴원의 「사미인」의 제목의 동질성을 지적한 경우도 있다. 이우신(李雨臣, 1670-1744)은 「관동별곡」과 「성산별곡」에 전부 이소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하였다. 김상숙(金相肅, 1717-1792)은 「전후미인곡」과 굴원의 「구장

(九章)·사미인(思美人)」의 제목이 같다고 하고, 정철이 「전후미인곡」에서 "충애(忠愛)의 회포를 원녀(怨女)의 말에 기탁하여" 그의 「전후미인곡」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굴원의 이소를 외우는 것과 같게 한다"고 하였다.[1] 이러한 논의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송강가사가 "우리나라의 이소"라는 김만중의 논평이다.

이처럼 조선사대부들의 담론에서 주로 언급된 송강가사는 「전후미인곡」이다. 이러한 담론에서 「관동별곡」·「성산별곡」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는 많지만 「전후미인곡」은 대부분 언급되었다. 이는 자연을 노래한 「관동별곡」·「성산별곡」보다 작가가 정치적 좌절을 겪을 때 자신의 심정을 노래한 「전후미인곡」이 「이소」를 비롯한 굴원의 초사와 보다 가깝다고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전후미인곡」의 제목이 굴원의 「사미인(思美人)」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

1) "昔屈左徒盡忠竭智, 遭讒放逐, 著離騷之文. 後人哀其忠, 愍其志, 惜其才, 傳至今千百禩, 爲文苑冠首. 今公之忠與才, 比古人無愧, 而所遭之不幸, 可哀可愍, 又如此, 其文之必傳後, 愛惜如離騷者, 無疑復." (金尙憲, 「松江集跋」, 『松江集』 권2, 한국문집총간 46, p.166.)

"右關東別曲,思美人曲,續美人曲三篇, 卽松江相國鄭文淸公澈之所著也. …淸陰金文正公, 嘗論公始末, 而比之於左徒之忠, 此誠知言哉. 北關舊有公歌曲之刊行者, 而顧年代已久, 且經兵燹遂失其傳, 誠可惜也. 余以無狀, 得罪明時, 受玦天涯, 遠隔君親, 實無以寓懷. 乃於澤畔行吟之暇, 聊取此三篇, 正訛繕寫, 置諸案頭, 時一諷誦, 其於排遣愁, 不爲無助, 蓋亦僭擬於朱子楚辭集註之遺意云. (李選, 「松江歌辭後跋」, 『芝湖集』 권6, 한국문집총간 143, p. 442.)

"松江先生, 鄭文淸公, 關東別曲, 前後美人歌, 乃我東之離騷. … 況此三別曲者,有天機之自發, 而無夷俗之鄙俚, 自古左海真文章, 只此三篇, 然又就三篇而論之, 則後美人尤高, 關東前美人猶借文字語以飾其色耳." (金萬重, 『西浦漫筆』, 『한국역대문집총서』 247, 경인문화사, 1994, p.648)

"松江前後思美人詞者, 以俗諺為之, 而因其放逐鬱悒, 以君臣離合之際, 取譬於男女愛憎之間, 其心忠, 其志潔, 其節貞, 其詞雅而曲, 其調悲而正, 庶幾追配屈平之離騷." (金春澤, 「論詩文」, 『北軒集』권16, 한국문집총간 185, p. 227.)

"關東星山等曲, 是其所作. 其歌也, 有思皆離騷意也." (李雨臣의 短評, 『松江歌辭(松江歌辭追錄 遺詞)』, 김사엽 해제, 경북대학교, 1958.)

"思美人者, 楚騷九章之篇名也, 男女相愛慕互稱之, 以是而君臣之間亦皆托以為辭者也. 孤臣冤女, 其志同也. … 屈子之放江潭而作離騷, 班姬之廢長信而賦自悼其志, 可以見矣." (金相肅, 「翻思美人曲序」, 규장각 소장본 『思美人曲帖』.)

"然忠愛之懷. 托以寃女之詞. 使千載之下讀其文者. 如誦屈子之辭. 則掩卷流涕. 想像其哀而不怨者. 則庶可以同調幷傳而不可泯也. (金相肅, 「飜思美人曲跋」, 규장각 소장본 『思美人曲帖』.)

"松江鄭相公謫江界, 以方言製思美人曲, 以寓戀君之意, 盖楚騷之餘響也." (成大中, 「書坯窩所譯思美人曲後」, 규장각 소장본 『思美人曲帖』.)

한편 조선사대부들의 담론에 나타난 송강가사의 비교대상은 주로 '이소'이다. 조선사대부들의 담론에 나타난 '이소'는 굴원 초사 중의 대표작을 지칭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굴원의 초사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한다. 남송(南宋) 주희(朱熹, 1130-1200)의 『초사집주(楚辭集注)』의 목록에서 "굴원의 작품 25편을 '이소',[2] 송옥(宋玉, B.C.298?-B.C.222?) 이하 16편을 '속이소(續離騷)'에 귀속시켰기[3] 때문이다. 주희의 『초사집주』가 초사 이해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음을 감안할 때[4] '이소'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조선사대부의 담론들에 나타난 '이소'는 '초사'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며, 특히 「이소」가 초사의 대표작임을 강조하는 말이라 여겨진다. 그들의 담론에서 말한 송강가사의 주요 비교대상은 「이소」를 위시한 굴원의 초사일 것이다.

조선사대부들은 주제, 언어, 화자 등 여러 요소, 특히 주제에서 「전후미인곡」을 위시한 송강가사를 「이소」를 위시한 굴원의 초사에 비견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그들의 담론은 현대 연구자들의 관심도 끌었다. 현대의 연구자들은 한국문학에서 초사가 지니는 의미와 송강가사의 가치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송강가사와 굴원의 초사를 비교함으로써 송강가사를 초사에 비유한 논평들을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송강가사와 굴원의 초사에 대한 비교 연구는 주로 두 작가의 작품 사이의 영향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대표적인 연구자로 김사엽, 서수생, 서원섭, 박영주, 범선균, 김진욱 등을 들 수 있다. 그들은 송강가사와 굴원 초사의 영향관계를 깊이 있게 탐색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크게 송강가사가 초사를 모방한 작품이 아니라는 평가와 초사를 모방한 작품이라는 평가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주장한 대표적인 연구자로 김사엽, 서수생, 박영주 등을 들 수 있으며, 후

---

2) "以上離騷, 凡七題二十五篇, 皆屈原作." (朱熹, 「楚辭集注目錄」, 『楚辭集注』, 蔣立甫 校點, 上海古籍出版社·安徽教育出版社, 2001, p.1.)

3) 朱熹, 앞의 책, 蔣立甫 校點(2001), p.1.

4) 李選, 앞의 인용문;
"朱夫子六十六歲. 楚辭集注成. 先生平居敎人. 以語,孟,庸,學.秦漢以下詞章. 特餘論及之. 而乃爲楚辭解釋者. 傷趙丞相汝愚耳. 丞相宋同姓大臣. 而爲韓侂胄所讒. 逐竄于永州以卒. 殆屈原之於楚也. 原之離騷注甚多. 皆未得原之心. 故朱子作集注曰." (成海應, 「讀楚辭集注」, 『研經齋全集續集』 권14, 한국문집총간 279, p.349.)

자를 주장한 대표적인 연구자로 서원섭, 범선균, 김진욱 등을 들 수 있다.

김사엽은 정철이 「전후미인곡」을 창작하면서 굴원의 초사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내용에서 초사를 인용하거나 환골탈태한 흔적이 없다고 하면서 「전후미인곡」을 정철의 독창적인 작품으로 평가하였다.[5] 이러한 논의는 서수생에게 이어졌는데, 그는 창작배경, 주제, 음률 등 많은 점에서 정철의 「전후미인곡」과 「이소」·「사미인」 등 굴원의 초사 간의 공통점을 밝혔으나 결정적으로 「전후미인곡」이 초사를 모방한 작품이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정철의 「전후미인곡」과 굴원의 「이소」·「사미인」은 작가가 조정에서 배척당할 때 창작한 작품이라는 창작배경, 충군사상, 낭만적·신화적 성격, '미인'의 비유적 의미 등이 유사하다고 논의하였다. 또한, 「전후미인곡」이 3·4조를 위주를 한 가사로서 초사의 3자 절주의 영향을 받았으며, 「속미인곡」의 문답체가 초사인 「어부(漁父)」, 「복거(卜居)」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정철의 「전후미인곡」이 「이소」·「사미인」등 굴원의 초사에서 창작의 영감을 받았더라도 표현의 기교가 다르니 모방이 아니라고 평가하였다.[6]

서수생이 여러 면에서 송강가사와 굴원의 초사를 대비한 것과 달리 박영주는 언어와 주제에 집중하여 송강가사와 굴원의 초사 간의 공통점을 분석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전후미인곡」이 초사를 모방한 작품이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이소」를 위시한 굴원의 초사가 한자표현으로 이룩한 절조 못지않게 송강가사는 한국말의 특성을 잘 살려 한국 "고유의 정서를 생명감 있게 표현해 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제성의 측면에서는 "충신연주지사로서의 공통점과 토속신앙의 의례를 원용하여 그것을 유가적 가치와 이념으로 변용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송강가사가 「이소」를 위시한 초사에서 직접 시사 받았다 할지라도 독창적인 작품이라고 판단하였다.[7]

이와 달리 서원섭은 김사엽, 서수생의 논의를 검토하여 그들과 다른 결론을

---

5) 김사엽, 『송강가사』, 문호사, 1959, p.75.

6) 서수생, 「송강의 전후 사미인곡의 연구: 특히 굴원의 초사와 비교해 가면서」, 『경북대학교 논문집』6집, 경북대학교, 1962.

7) 박영주, 「서포가 송강가사를 '아동지이소'라고 한 것에 대하여」, 『반교어문연구』 1집, 반교어문연구회, 1988.

내렸다. 그는 「사미인곡」과 「사미인」을 4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을 대비한 후 「사미인곡」과 「사미인」의 작품 내적 요소가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사미인곡」을 「사미인」을 모방한 작품으로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국충군의 주제, "소명(召命)의 날을 몹시 갈망하고 있다는 점", "간신에게 아부하기를 싫어한다는 점", "유배지가 남방(南方)이라는 점", 최후의 소원을 나타낸다는 점 등이 유사하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철의 「사미인곡」을 「사미인」을 모방한 작품으로, 「속미인곡」을 별반의 영향 없이 창작된 작품으로 평가하였다.[8)]

범선균은 「전후미인곡」과 「이소」·「사미인」을 주제, 음률 등 여러 면에서 살펴보아 다양한 공통점을 찾아내어 송강가사가 굴원의 작품을 모방한 작품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 중에서 연군의 주제, 서두에 화자가 자신 탄생을 말하고 있다는 점, 결말의 화신기원(化身祈願), 상계(上界)와 하계(下界)의 공간 설정, 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더 나아가 「속미인곡」의 문답체가 「어부(漁父)」, 「복거(卜居)」 밖에 「이소」의 영향도 받았다고 강조하며, 「전후미인곡」의 기본음수율인 3·4조가 굴원의 「이소」를 비롯한 '소체(騷體)'의 3자 절주, 굴원의 「천문(天問」과 같은 '비소체(非騷體)'의 4자 절주가 사대부들이 귀에 익혀왔기에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9)]

김진욱은 「사미인곡」과 「사미인」을 3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을 대비한 후 「사미인곡」과 「사미인」이 같은 주제와 많은 유사한 작품 내적요소를 가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사미인곡」을 「사미인」을 모방한 작품으로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임을 향한 변함없는 충절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 비슷한 심회에서 작품이 출발한다는 점, 결사부분에서 임에 대한 충절이 병이 되었다는 점이나 내세의 만남을 기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이 비슷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철의 「사미인곡」의 표현수법이 보다 교묘하고 구체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철의 「사미인곡」은 굴원의 「사미인」을 교묘하게 모방한 작품이며, 「속미인곡」은 「사미인곡」의 후편으로서 「사미인곡」을 또 한 번 모방한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10)]

---

8) 서원섭, 「사미인곡계 가사의 비교연구」, 『경북대학교 논문집』11집, 경북대학교, 1967.

9) 범선균, 『굴원문학논집』, 신아사, 2001, pp.216-228.

이상의 선행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두 작품의 공통점을 많이 밝혔으므로 한국문학에서 초사가 지니는 영향을 이해하게 해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송강가사와 굴원 초사는 창작배경과 같은 작품 외적요소의 측면, 서두, 결말, 공간과 같은 작품 내적요소의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굴원의 작품이 동아시아 문학의 주요한 원천의 하나였기에 정철이 굴원의 작품을 수용하였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송강가사가 초사를 모방한 작품이라고 평가한 논의뿐만 아니라 송강가사를 독창적인 작품이라고 평가한 논의도 두 작가 작품의 유사성에 집중하여 두 작가 작품의 독창성을 깊이 분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송강가사와 굴원의 초사를 모두 충신연주지사, 즉 일방적인 충효를 강조하는 유교의 가치를 충실하게 구현하는 작품으로 보아 송강가사의 독특한 가치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한나라 때 일방적인 충효를 강조하는 종교로 발전된 유교를 국가통치이념으로 성립한 조선에서 창작된 송강가사와 달리, 굴원의 초사는 유교가 일방적인 충효를 강조하는 종교로 발전되면서 중국의 국가통치이념으로 확립되기 이전에 창작된 작품이므로 시대적·지역적 차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초사의 창작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초사가 과연 당대 유교의 가치를 충실하게 구현하는 작품인지 의문이 들고, 심지어 일방적인 충효를 강조하는 종교로 발전된 유교의 가치를 충실하게 구현하는 충신연주지사로 평가할 수 있을지는 더욱 의문이 생긴다. 굴원과 초사를 가장 일찍 논평하는 사마천(司馬遷)을 포함한 사람들도 굴원의 정신의 핵심을 '충'보다 '원망(怨)'으로 개괄하였기 때문이다.[11] 그러므로 송강가사의 독특한 가치를 충분히 드러내기 위해 굴

---

10) 김진욱, 「굴원이 정철 문학에 끼친 영향 연구-「사미인」과 「사미인곡」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1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3.

11) "屈平疾王聽之不聰也, 讒諂之蔽明也, 邪曲之害公也, 方正之不容也, 故憂愁幽思而作離騷. … 屈平正道直行, 竭忠盡智, 以事其君, 讒人間之, 可謂窮矣. 信而見疑忠而被謗, 能無怨乎? 屈平之作離騷, 蓋自怨生也." (司馬遷, 「屈原賈生列傳」, 『史記』 권84, 四庫全書 電子版.)

"今若屈原, 露才揚己, 競乎危國群小之間, 以離讒賊." (班固, 「離騷序」, 洪興祖, 『楚辭補註』, 中華書局, 1981, p.49.)

"自古文人, 常陷輕薄, 屈原露才揚己, 顯暴君過." (顔之推, 「文章第九」, 『顔氏家訓』, 臺灣商務印書館, 1968, p.81.)

원 초사의 성격을 송강가사와 동일시했던 점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송강가사와 굴원 초사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최근 송강가사와 굴원 초사를 동일 선상에 두고 대비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최상은은 두 작가 작품의 차이점에 집중하여 두 작가 작품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사미인곡」과 「이소」는 다양한 종교·사상의 상상력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하였다. 「이소」가 유교·도교 등 다양한 사상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화자가 "나라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힘겹게 지켜나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면, 「사미인곡」은 도가적·불가적 요소를 동원하여 유가의 충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 시·공간 설정과 현실인식이라는 측면에서 화자가 임에게 돌아갈 수 없는 비극적 현실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하였다.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한 「이소」는 "임이 있는 공간으로부터 '떠남의 정서'를 기조로 한다면", 시간을 중심으로 전개한 「사미인곡」은 "영원한 사랑을 찾아 임에게로 '돌아감의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작품이라고 보았다.[12)]

최상은의 연구는 정철과 굴원이 작품에서 표현하는 임금과 조정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같지 않다는 것을 밝혀서 송강가사와 굴원 초사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는 이전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두 작가의 작품을 모두 충신연주지사로 보고 연구를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송강가사와 굴원 초사의 본질적인 차이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송강가사의 독특한 가치를 충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굴원 초사와의 성격 차이와, 이러한 차이를 만든 원인을 깊이 있게 분석해야 하리라 여겨진다.

나아가 송강가사와 굴원 초사의 성격이 같지 않다면 조선시대에 송강가사가 "우리나라의 이소"라고 불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세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조선사대부가 왜 초사를 충신연주지사로 간주했는가? 전술한 바와 같이 사마천과 같은 중국의 초사비평가도 굴원 정신의 핵심을 '원망'으로 개괄하였다. 그러면 굴원과 초사는 어떤 비평과정을 겪어 중세에 유교의 충신과 정전의 위치에 오르게 되고, 송강가사와 초사를 비평한 조선

12) 최상은, 「한중 연군 문학 비교 연구 —굴원의 「이소」와 정철의 「사미인곡」」, 『중국학논총』29호, 한국중국문화학회, 2010.

사대부가 어떻게 이 비평 결과를 수용하게 되었는가? 둘째, 조선사대부가 송강가사를 "우리나라의 이소"라고 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셋째, 조선사대부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송강가사가 "우리나라의 이소"라는 말을 받아들이게 했는가?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김진희는 서인사대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고히 하려는 목적에서 유교 정전인 굴원의 「이소」와 송강가사를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송강가사를 정전의 반열에 올려놓기를 시도한 것이었다고 평가하였다.[13] 그러나 그 역시 「이소」를 유교적인 충신연주지사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송강가사를 "우리나라의 이소"라고 한 이유를 충분히 밝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송강가사를 "우리나라의 이소"라고 부른 이유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송강가사는 총 4편이고, 굴원의 초사는 일반적으로 『한서(漢書)·예문지(藝文志)』의 주장에 따라 총 25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4] 송강가사와 굴원의 초사를 모두 다루는 것은 논의를 분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의 대상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송강가사와 굴원의 초사 중에서 연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작품을 선택해야 한다.

송강가사와 굴원의 초사를 비교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작품은 정철,의 「전후미인곡」과 굴원의 「이소」일 것이다. 「전후미인곡」은 조선시대부터 송강가사 가운데 굴원의 초사에 가장 비견할 만하다고 여겨졌다. 「이소」는 굴원 초사의 대칭이 될 정도로 대표작이다. 따라서 송강가사와 굴원 초사를 비교한 선행연구는 「전후미인곡」과 「이소」를 집중적으로 비교한 경우가 많았다.

물론 굴원의 「사미인」은 정철의 「전후미인곡」의 제목이 유사하기 때문에 비

13) 김진희, 「송강가사의 수용론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p.58-70.

14) "屈原賦二十五篇." (班固, 「藝文志第十」, 『漢書』 권30, 四庫全書 電子版.) 이 25편은 「離騷」·『九歌』(11편)·『九章』(9편)·「天問」·「遠遊」·「卜居」·「漁夫」라는 작품들을 포함한다. (湯漳平·陸永品, 「楚辭文本屈原著作權研究」, 戴錫琦 외, 『屈原學集成』, 中央編譯出版社, 2007, pp.759.)

교연구자의 관심도 끌었지만 주제부터 표현수법, 용어까지 「이소」와 거의 같다. 그래서 명청(明淸) 시대의 임운명(林雲銘, 1628-1697)은 「사미인」이 장편 시가인 「이소」의 절문(節文)이라고 하고,[15] 청나라 시대 장기(蔣驥, ?-?)의 『산대각주초사(山帶閣註楚辭)』에서 「사미인」이 「이소」의 주제와 비슷하다고 지적하였다.[16] 「이소」와 「사미인」이 각각 작가가 처음 조정에서 배척당할 때 창작한 작품과 한북으로 유배당한 후 창작한 작품으로서 내용이 완전히 같지 않기 때문에 「사미인」을 「이소」의 절문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초사 주석가나 연구자들의 평가를 통해 두 작품이 주제, 용어 등 여러 점에서 유사점을 가진 것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미인」보다 편폭이 더 긴 「이소」만을 굴원 초사의 대표로 송강가사와 비교하는 것은 송강가사와 굴원 초사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는 정철의 「전후미인곡」과 굴원의 「이소」를 중심으로 송강가사와 굴원 초사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작품 선택을 바탕으로 송강가사와 굴원의 초사를 비교한 선행연구의 한계에 주목하여 이 두 작품을 동질적인 성격을 지닌 작품, 즉 충신연구지사라고 여기지 않는 관점에서 두 작가 작품을 대비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위의 관점을 전제로 하고 화자, 시공간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서 「전후미인곡」과 「이소」를 비교해 「전후미인곡」과 「이소」의 차이와 그러한 차이를 만든 원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화자와 시공간에 집중하려는 이유는 우선 두 가지 요소가 작품의 주요한 내적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처럼 많은 작품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를 다 함께 다루면 송강가사와 굴원 초사의 핵심적인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두 작가 작품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작품 내적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두 요소는 「전후미인곡」과 「이소」의 핵심적인 작품 내적 요소이기도 하다. 「전후미인곡」과 「이소」 모두 화자가 임과 함께 있던 과거 공간에서 일어난 일을 회억하고, 현재의 공간에 있는 자신의 심리와 행동을 서술하며, 미래에 어떤 공간에 가고 싶다고 말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핵심

15) "(思美人)是一篇離騷節文."(林雲銘, 『楚辭燈』,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2, p.99.)

16) "(思美人)與離騷語意相近." (蔣驥, 『山帶閣註楚辭』, 四庫全書 電子版.)

요소는 각각 임금에 대한 작가의 태도, 진퇴에 대한 작가의 인식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고대의 사대부가 정치적 좌절을 겪을 때 창작한 시가에서 자신의 성별과 다른 화자를 설정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후미인곡」과 「이소」의 화자에 대한 설정은 임금에 대한 작가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작품에 나타난 시공간에는 화자가 경험했던 과거, 화자가 처해있는 현실, 그가 지향하는 미래가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작가가 생각하는 출처에 대한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시공간 구조는 작가의 진퇴의식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화자, 시공간의 측면에서 「전후미인곡」과 「이소」의 작품 내적 요소와 이러한 요소의 설정에 내포된 작가의식의 차이를 발견해 냄으로써 정철이 어떻게 굴원의 작품을 새롭게 만들었는지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두 가지 요소의 유기적인 연결에 주목하여 두 작가 작품의 차이와 이러한 차이를 만든 원인을 밝힌 적이 없었다. 「전후미인곡」과 「이소」에 대한 각각의 선행연구를 보면 역시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소」의 선행연구는 주로 「이소」의 화자가 남성, 여성, 또는 여성과 남성이 혼재된 것이고,[17] 공간이 이원적이거나 다원적이고,[18]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19] 평가하였다. 「이소」와 달리 「전후미인곡」의 선행연구는 주로 「전후미인곡」의 화자가 여성이고,[20] 공간이 이원적이고,[21] 시간이 사계절

17) 「이소」의 화자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논의가 있다. 첫째, 남성목소리와 여성목소리가 혼합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다. 반소룡(潘嘯龍), 매경림(梅瓊林) 등이 남송의 주희(朱熹)의 주석을 바탕으로 이를 제기하였다. 둘째, 남성의 목소리가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주장이 있다. 이 견해의 대표적인 연구자는 조규부(趙逵夫)이다. 셋째, 여성의 목소리가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주장으로, 유국은(遊國恩)이 제기하였다. (潘嘯龍, 「論「離騷」的"男女君臣之喻"」, 『文化遺産』02期, 1987; 梅瓊林, 「「離騷」求女之構思與'巫歌'原型性戀的關系試探」, 『中州學刊』 03期, 1994; .遊國恩, 「楚辭女性中心說」, 『遊國恩楚辭論著集4』, 中華書局, 2008. pp.1-13; 趙逵夫, 「「離騷」的比喻和抒情主人公的形貌問題」, 『中國社會科學』04期, 1992.)

18) 「이소」의 공간을 인계(人界)·천계(天界)로 나누거나, 더 구체적으로 인계·신계(神界)·무계(巫界)·조령계(祖靈界)로 나눈 연구가 있다. 趙逵夫, 「「離騷」中的龍馬兩個世界的藝術構思」, 『文學評論』01期, 1992; 黃崇浩, 「「離騷」結構的深層解析」, 『雲夢學刊』06期, 2005.

19) 胡玲, 「從時空角度看「離騷」的結構及其美學特色」, 『陝西師範大學繼續教育學報(西安)』, 2007.

20) 김상숙을 비롯한 조선사대부의 논평은 이미 「사미인곡」의 화자가 '원망을 품은 여자(怨女)'라고

이나 밤낮의 구조라고[22] 보았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점에서 「전후미인곡」과 「이소」를 유기적으로 비교하여 차이를 더 깊이 밝혀야 하고, 정철이 왜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는지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16세기 조선이라는 공간에서 정철이 어떻게 굴원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아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굴원과 초사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논평, 송강가사에 관한 한국 논평 등 자료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후미인곡」과 「이소」의 여러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 송강가사가 "우리나라의 이소"라고 불린 이유를 밝힐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조선사대부가 초사를 충신연주지사로 간주한 원인을 발견해 낼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마천, 반고(班固), 왕일(王逸), 주희(朱熹)와 같은 초사 논평가의 기록을 통해 굴원과 초사가 어떤 굴절을 겪어 유교의 충신과 정전으로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송강가사와 초사를 비평한 조선사대부들의 굴원과 초사에 대한 비평을 통해 주희의 논평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다음으로 조선사대부가 송강가사를 "우리나라의 이소"라고 한 목적을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송강가사의 부대 기록, 한역자료, 후속작품 등을 통해 조선사대부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송강가사가 "우리나라의 이소"라는 말을 받아들이게 한 방법, 곧 송강가사를 충신연주지사의 전범을 만든 방법을 밝혀낼 것이다.

본고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순서로 연구를 전개한다. 우선 제Ⅱ

지적한 바가 있다. 「전후미인곡」을 본격적인 대구 대상으로 삼은 학계 최초의 업적을 남긴 이병기의 연구도 「전후미인곡」에 대하여 작가가 부득이 정계를 떠나게 된 상황에서 우시연군(憂時戀君)의 열정을 여성의 목소리를 빌어 표현한 작품이라 설명하고 있다.(이병기, 「송강가사의 연구」, 『진단학보』 4·6·7집, 진단학회, 1936/1937.) 이러한 관점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논자들에 의하여 계승되고 있다.

21) 다음 논문 등에서 「전후미인곡」에 나타난 공간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다. 최규수, 「적강 모티프 유배가사작품에 나타난 표현방식의 특성과 시적 효과」, 『이화어문논집』 13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1994; 김신중, 「송강 가사의 시·공상 대비적 양상」, 『고시가연구』 3집, 한국시가문화학회, 1995; 이혜순, 「15·16 세기 한국 여성화자 시가의 의의 -「사미인곡」·「속미인곡」·「첩박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19집,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7; 조세형, 「한국 애정시가의 전통과 시공간적 상상력」, 『국어국문학』 147호, 국어국문학회, 2007.

22) 김진희, 「송강가사의 시간성과 극적 구조」, 『고전문학연구』, 한국고전문학회, 2014.

장에서 다른 시대와 지역의 상황을 체험한 '사'인 굴원과 정철의 시대적·지역적 배경과 생애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후미인곡」과 「이소」의 작품 내적 요소와 작가의식을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제Ⅱ장부터 정철과 굴원을 비교할 때 먼저 시대가 앞서는 굴원을 서술하고 그 다음으로 정철을 서술하는 순서에 따라 논의를 전개한다. 제Ⅲ장, 제Ⅳ장에서 두 작가 작품의 요소와 그에 내포된 작가의식을 비교함으로써 정철이 어떻게 굴원의 「이소」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격의 작품을 창작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전후미인곡」과 「이소」의 화자와 임금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시공간과 진퇴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이때 굴원의 초사는 후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주희의 『초사집주(楚辭集注)』를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고, 송강의 가사는 선행연구에서 선본(善本)으로 평가받은 이선본(李選本)을 분석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23]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Ⅴ장에서는 "동방이소(東方離騷)" 혹은 "우리나라의 이소"의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한국문학에서 초사가 지니는 의미를 이해함과 동시에 송강가사의 가치를 더욱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3) 朱熹, 앞의 책, 蔣立甫 校點(2001); 『松江全集』(영인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64.

Ⅱ. 작품 창작의 배경 및 작가의 생애

문학 작품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가들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철은 주로 16세기 조선에서 활동한 사림(士林)이고, 굴원은 춘추전국시대 말기에 중국의 초나라에서 활동한 사(士)이다. 동아시아 역사상 지식인, 선비 등으로 불리고 사회 전반의 각 분야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사' 계층은 고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매 시기마다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하면서 그 전통을 유지해 왔다. 정철과 굴원은 각기 다른 시대와 지역을 살았던 '사'들이다. 정철의 「전후미인곡」과 굴원의 「이소」 사이에 나타난 차이와 그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시대적·지역적 배경과 함께 작가의 생애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전후미인곡」과 「이소」는 이 두 '사'가 정치적 실의에 빠진 후 자신들의 심정을 노래한 작품이므로, 정치상황과 정치사상 역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각 작가가 살았던 시대와 지역의 국가 상황 · 전반적인 정치 현실 · 지배적인 사상 · 출처관을 포함한 일반적인 현실대응 태도 · 일반적인 군신관(君臣觀)을 비교하고, 작가 개인의 정치적 상황 · 지배적인 사상 · 현실대응 태도 · 군신관을 중심으로 작가의 생애를 비교하고자 한다. 작가가 살았던 시대와 지역의 지배적인 사상에 포함된 일반적인 현실대응 태도와 일반적인 군신관, 작가의 지배적인 사상에 포함된 작가의 현실대응 태도와 작가의 군신관 사이 비교를 통해 「이소」와 「전후미인곡」에서 화자와 시공간에 내포된 임금에 대한 작가의 태도와 작가의 진퇴의식이 나타난 원인을 직접 밝힐 수 있으며, 작가가 살았던 시대와 지역의 국가상황과 작가가 직면해야 했던 정치현실 사이 비교를 통해 「이소」와 「전후미인곡」에 나타난 임금에 대한 작가의 태도와 작가의 진퇴의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주요관심사는 상대세력에 대한 태도와 출처관을 형성하는 논리적 토대가 되며 상대세력에 대한 태도와 출처관은 일반적으로 상응하는 것이므로, 출처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작가의 주요관심사와 상대세력에 대한 태도, 그리고 출처관을 중심으로 현실대응 태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작품 창작의 배경

춘추전국말기 중국의 '사'와 16세기 조선의 사림은 대체로 각각 유사(遊士)와 사대부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중국에서 '사'의 기원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은(殷)때에 봉건적 신분-계급의 하나로 등장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周)나라 때 왕(천자) · 제후 · 대부 · 사 · 서인이라는 5등급의 봉건적 신분-계급 가운데, '사'는 관리의 직분으로는 가장 낮은 위치에 속하는 계급이다.[24] 춘추전국시대에 '사'의 개념은 지식인의 통칭이 되었는데 관직과 분리되어 인격체로서의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났다.[25] 지식인들은 관직을 '도(道)'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 개념을 '도'를 실현하는 인격적 주체로 확립하였다. 중국에서 '사'의 성격의 발전과정을 보면 대체로 춘추전국시대에는 유사의 성격, 진한(秦漢) 시기 이후에는 사대부의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26] 16세기 조선의 사림도 진한 이후의 '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사대부의 형태에 속하였다. 동아시아 '사'의 전통이 전근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몇 천 년 동안의 매 시기마다 정치, 경제, 사회, 사상 등의 각 방면의 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유사와 16세기 조선의 사림이 탄생한 시대와 지역의 국가 상황, 정치현실과 사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차이를 더 깊이 이해해 보자.

첫째, 국가 상황의 측면이다. 춘추전국시대의 중국은 중앙집권체제가 각 제후국 안에서만 확립된 분열국가였고, 노예주(奴隸主)의 토지국유제(土地國有制)에서 봉건토지사유제(封建土地私有制)로 이행하였으며,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를 형성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조선은 중앙집권의 통일국가였고, 봉건적 경제체제를 형성하였으며, 과거시험을 실시하는 등 인재 선발 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이로 인해 두 시대와 지역에 살았던 '사'의 성격은 아주 달랐다. 춘추전국시대의

---

24) "禮記曰：有虞氏官五十,夏後氏官百,殷二百,周三百,天子立六官、三公、九卿、二十七大夫、八十一元士,以聽天下之外治,以明章天下之男教." (李昉 외, 「職官部」 『太平御覽』 권1.)

25) 余英時, 『士與中國文化』, 上海人民出版社, 1987, p.34 참조.

26) 余英時, 『中國知識階層史論 (古代篇)』, 聯經出版事業公司, 1997, p.2.

‘사‘는 고국에서 자신의 종족에 의존하지 못하고, 일정한 재산을 가지지 않으며, 고정된 직업이나 관작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16세기 조선의 국가 상황에서 사림을 포함한 조선의 ‘사’ 혹은 선비는 기본적으로는 중국 진한 이후의 ‘사’와 비슷한 특징을 가졌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닐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족과 결합하고, 토지와 같은 "일정한 재산"을 가지며, 입사(入仕)의 정규적인 길을 밟았다. 따라서 조선의 ‘사’는 단단한 사회적 기반을 가지는 사대부였다.

우선 굴원이 살았던 시대와 지역의 국가 상황을 보기로 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는 제후국이 난립하고 정치·경제 등의 각 방면에서 대변혁이 일어났던 시대이다. 주왕실(周王室)은 쇠퇴하였기에 제후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였다. 이로 인해 제후국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아 분봉제(分封制)가 와해하였다. 춘추시대의 전쟁을 수십 개의 나라 간에 벌어진 쟁패전쟁(爭霸戰爭)이라고 한다면, 전국시대의 전쟁은 진(秦)·초(楚)·제(齊)·연(燕)·위(魏)·한(韓)·조(趙)의 전국칠웅(戰國七雄)간에 벌어진 통일전쟁(統一戰爭)이라고 할 수 있다.[27] 초나라를 포함한 춘추전국시대의 어떤 제후국은 여러 나라 중의 하나일 뿐이었다. 이 대혼란기를 기점으로 중국의 정치·경제 등의 각 방면에서 대변혁이 일어났다. 춘추전국시대의 국가들은 부국강병을 도모하기 위해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하여 각종 정치, 경제, 군사, 법률 등 여러 방면의 변법(變法)을 전개하였다. 각국은 강력한 전제군주 관료제를 통한 중앙집권화를 추진하였고 노예주의 토지국유제를 봉건토지사유제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28]

이러한 국가 상황에서 유가가 나타났다. ‘사’들의 대부분은 정국이 혼란을 겪고 노예주의 토지국유제에서 봉건토지사유제로 이행하는 시기에 토지 겸병의 투쟁에서 실패해서 토지와 관작을 잃었던 귀족의 자제나 서민이었다. 이들은 고국에서 종족에 의존하지 못하고 토지와 같은 "일정한 재산"이 없었으며 관작도 없었다.[29] 게다가 과거시험과 같은 정규적인 정치 진입로가 없었기 때문에 고

---

27) "詐譎之國, 興立爲強, 是以轉相倣效, 後生師之, 遂相呑滅, 幷大兼小, 暴師歲, 流血滿野, 父子不相親, 兄弟不相安, 夫婦離散, 莫保其命, 湣然道德絶矣. 晩世益甚, 萬乘之國七, 千乘之國五, 敵侔爭權, 蓋爲戰國. 貪饕無恥, 競進無厭." (陳仁子, 『文選補遺』 권27, 四庫全書 電子版.)

28) 劉澤華외, 『專制權利與中國社會』,吉林文史出版社, 1988, pp.10-11.

국에만 머물러있으면 관작을 취득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치적 이상과 생계를 위해 고국을 떠나 제후국들을 돌아다니며 군주들에게 유세하는 '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진한 이후의 '사'와 많이 다르다. 진한 이후의 '사'는 점차 종족에 의존하게 되고, 토지와 같은 "일정한 재산"을 가지게 되었다. 또 향거리선(鄕擧理選), 과거시험 등과 같은 입사(入仕)의 정규적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단단한 사회적 기반을 가지는 이른바 사대부가 되었다.[30]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곧 종족화(宗族化), 항산화(恒産化), 입사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통일제국의 등장에 따라 '사'는 새로운 사회구조 속에서 점점 명확하고 안정적인 지위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춘추전국시대의 유사는 뿌리 없는 사람이었다. 이들 '사'에게는 고국과의 유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이른바 "초나라의 인재를 진나라가 쓰다(楚才晋用)"[31]는 현상이 보편적이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춘추전국시대의 '사'들에게 애국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 자신의 상황 때문에 그들의 애국심이 그들을 고국에 구속할 정도로 깊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32] 『맹자(孟子)』에서는 "공자가 노(魯)나라를 떠날 때 '더디고 더디도다, 나의 이 걸음이여.'라고 하였다. 이는 부모의 나라를 떠날 때의 도리이다. 제나라를 떠날 때 밥을 지으려고 물에 담가 둔 쌀을 건져 가지고 급히 떠난다. 타국을 떠날 때의 도리다."[33]라고 하였다. 고국인 노나라와 타국인 제나라에 대한 공자의 태도 차이는 보편적인 사회심리를 반영하였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춘추전국시대에 '사'는 일반적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 나라에 유세를 다녔다. 이는 다른 국가에 옮겨갈 수 있는 상황에서 고국에 사회적 기반이 없는 이상 그들의 몸과 심리가 아주 자유로웠고 고국에 대한 특

---

29) "無恒產而有恒心者, 惟士為能." (「梁惠王上」, 『孟子』 권14, 萬麗華 · 藍旭 譯註, 中華書局, 2007, p.15.)

30) 余英時(1997), p.2-3 참조.

31) "伍舉娶於王子牟, 王子牟為晉公而亡, 楚人曰, 伍舉實送之. 伍舉奔鄭, 將遂奔晉. …對曰, "晉卿不如楚, 其大夫則賢, 皆卿材也. 如杞梓皮革, 自楚往也. 雖楚有材, 晉實用之." (杜預 註 · 孔穎達 疏, 「襄公二十六年」, 『春秋左傳註疏』, 四庫全書 電子版.)

32) 郭傑, 「先秦國家觀念與屈原的宗國意識」, 『東北師大學報』 04期, 1989, p.82.

33) "孟子曰, 孔子之去魯, 曰, 遲遲吾行也, 去父母國之道也. 去齊, 接淅而行, 去他國之道也." (「盡心下」, 『孟子』 권14, 萬麗華 · 藍旭 譯註, 中華書局, 2007, p.82.)

별한 미련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음으로, 정철이 살았던 시대와 지역의 국가 상황을 보기로 한다. 조선은 중앙집권의 통일왕조였으며 봉건적 경제체제를 확립하고 과거시험을 실행하고 있는 국가였다. 조선의 정치 체제는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 체제를 취하였다. 그리고 양반 관료 체제를 구축하여 모든 정치 체제를 이끌어 나갔다.[34] 양반은 사회재산의 소유자이기도 하였다. 조선은 봉건적 경제체제를 지니고 있었고 조선조 경제제도의 기초는 토지경제에 있었다. "민전(民田)의 소유자인 전객(佃客)이 수조권자인 지주에게 조(租)를 바침으로써 지배관계가 형성되었고", "국가는 전주에게 수조권을 부여함으로써 양반을 지배하는 토지의 계층적 점유가 유지되었다."[35] 또한, 조선시대에는 과거시험을 실행하였는데 양반은 교육·과거응시·입사(入仕) 등 여러 점에서 특권을 누림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하였다. 조선의 신분 제도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대별된다. "양분신분층은 문(文)·무(武) 양과과거(兩科科擧)에 응시할 자격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양반 신분이라야 문과(文科)에 응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리고 "양분신분층 중에서 조상의 공훈에 따라 과거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관료에 등용될 수 있는 문음(門蔭)이라는 특혜제도(特惠制度)도 있었다".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상민은 과거에 급제함으로써 지배 계층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양반들은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교육들을 양반 자제를 중심으로 마련하는 것과 같은 많은 노력을 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중인은 관직이 기술사무직에 한정되었다. 천민은 과거시험을 볼 자격이 없었지만 조선 후기에는 기술사무직으로 등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중인처럼 하급관리에 임명되었다.[36] 그러므로 조선의 양반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면에서 특권을 누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 상황에서 사림을 포함한 조선의 '사' 혹은 선비도 기본적으로 중

---

34) 김운태, 「조선왕조 정치체제의 개창과 그 특성」,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회, 2001, p.3.

35) 나달숙,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토지소유권의 법적 고찰」,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2016, p.345.

36) 김운태, 앞의 논문, pp.3-4참조.

국 진한 이후의 ‘사’와 비슷한 특징을 가졌다. 이들은 종족에 의존하고, 토지와 같은 "일정한 재산"을 가지며, 입사의 정규적인 길을 밟았다. 양반은 국가의 특권을 누렸던 선비 계층의 공급원이었다. 조선의 사회문화에는 양반(상층)문화도 있고 서민(하층)문화도 있었는데, 선비문화는 상층문화에 속한 것이었다.[37] 따라서 조선의 ‘사’는 대체로 튼튼한 사회적 기반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16세기의 사림은 재지 중소지주층으로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들 역시 이러한 특징을 가지게 마련이었다. 조선의 ‘사’는 다른 국가에 옮겨갈 수 없는 상황에서 유사가 될 수 없고, 유사가 될 이유도 없었다.

둘째, 전반적인 정치현실의 측면이다. 당시 초나라를 포함한 각 제후국에서는 변법을 지지하는 신세력과 변법을 반대하는 구세력의 모순이 심했으나 당시의 ‘사’는 충효의 명분을 확보하고 군주의 신임을 얻는 데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16세기의 조선에서는 사림이 동인과 서인이라는 두 개의 붕당으로 분열되었는데 정국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충효의 명분을 확보하고 군주의 신임을 얻는 데 관심을 보였다. 단단한 사회적 기반이 없는 춘추전국시대 중국의 ‘사’는 다른 나라에 가서 이상을 실현할 수 있었으므로, 신·구세력의 경쟁은 심하였지만 당시의 왕권은 도(道)를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사’들을 굴복시키지 못하였다. 사림은 그들과 달리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지 못하고 튼튼한 사회적 기반을 가졌기 때문에, 유교의 도(道)를 신봉하지만 당파 간에 지배권을 놓고 경쟁하는 현실 아래 결국 왕권과 타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먼저, 굴원이 살았던 시대와 지역의 전반적인 정치현실을 보기로 한다. 이 대변혁의 시대에 각국에서 신 · 구세력의 모순이 심했으나 당시 ‘사’가 충효의 명분과 임금의 신임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보이지는 않았다. 변법을 잘 추진했는지에 따라 각국의 국력이 자주 변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사’가 대표하는 신세력은 변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38] 각국의 구귀족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을 반대하였으므로 진보세력과 마찰을 피할 수 없었다. 굴원이 살았던 춘추전국말기의 초나라의 정치현실도 마찬가지였다. 오기(吳起, B.C.440

37) 국제문화재단 편, 『한국의 선비문화』, 서울: 시사영어사, 1982, p.8.

38) 周金華, 「試論春秋戰國時期知識分子在社會變革中的地位與作用」, 『湘南學院學報』 04期, 2007, pp.21-26 참조.

年－B.C.381)의 변법으로 국력을 회복하고 초나라의 선왕(宣王, 재위 B.C.369－B.C.340)과 위왕(威王, 재위 B.C.339－B.C.329) 시대에 점점 강국이 된[39] 초나라는 주로 합종(合從)의 책략을 채택하여 상앙(商鞅) 변법으로 최강국이 된 진나라를 제외한 다른 5국과 동맹함으로써 당대 최강인 진나라에 대항하였다.[40] 그러나 6국 사이의 분쟁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합종(合從)의 연맹이 공고하지 않았다. 사마천의 『사기(史記)·굴원가생열전(屈原賈生列傳)』에 의하면, 굴원이 정치활동을 했던 회왕(懷王, 재위 B.C.328－B.C.299)과 경양왕(頃襄王, 재위 B.C.298－B.C.263)대에는 왕의 무능, 구세력의 부패 등으로 인하여 대내·외 정책이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초나라가 점차 쇠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각 제후국 안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누렸던 임금이 변법을 지지하지 않고, 구세력에게 배척당해도 춘추전국시대 중국의 '사'는 충효의 명분을 확보하고 군주의 신임을 얻는 데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단단한 사회적 기반을 가지지 못한 당시의 '사'는 다른 나라에 가서 이상을 실현할 수 있었으므로, 신·구세력 간의 경쟁은 심하였지만 당시의 왕권이 도(道)를 철저히 지키고자 한 그들을 굴복시키지는 못하였다.

다음으로, 정철이 살았던 시대와 지역의 전반적인 정치현실을 보기로 한다. 16세기의 조선은 재지 중소지주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주자학에 크게 공감해 학연을 통해 강한 결속력을 보였던 사림파가 훈구파를 무너뜨리고 정국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후 곧바로 두 정파로 분열되었던 시기였다. 사림은 훈척정치의 잔재를 청산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악화됨으로써 선조 8년(1575)에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으로 분파되었다.[41]

---

39) "蘇秦為趙合從, 說楚威王曰, 楚, 天下之強國也. 大王, 天下之賢王也. 楚地西有黔中巫郡, 東有夏州海陽, 南有洞庭蒼梧, 北有汾陘之塞邻陽. 地方五千里, 帶甲百萬, 車千乘, 騎萬匹, 粟支十年, 此霸王之資也. 夫以楚之強與大王之賢, 天下莫能當也." (「楚一」, 『戰國策』 권14,四庫全書 電子版.)

40) "天下之士合縱相聚於趙而欲攻秦." (「秦三」, 『戰國策』 권5; "合縱於楚." (司馬遷, 「平原君虞卿列傳」, 『史記』 권76.)

41) "大司憲沈公義謙. 爲一隊所重. 其弟忠謙亦有時望. 同僚欲以忠謙爲銓薦. 公(金孝元)不可曰. 尹元衡以外戚當國. 幾危社稷.尹纔除. 而不宜引進外戚如是汲汲也. 右沈公而抑公者. 以爲忠謙無疵. 而抑而不薦. 非也. 右公而抑沈公者. 以爲懲前戒後. 出於爲國. 不當排擯如是. 東西遂分. 論議紛紜." (「言行錄」, 『省菴遺稿』, 한국문집총간 41, p.376.)

동인과 서인의 분당은 당시의 현실문제에 도학적 명분관의 차이를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거기에 학연이 결부되어 지방에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주게 되었다. 동인세력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김효원(金孝元)·이발(李潑)·유성룡(柳成龍)·김성일(金誠一) 등[42]은 대부분 영남 출신이었으며, 그들은 영남의 남명 조식(南冥 曺植)과 퇴계 이황(退溪 李滉)의 문인들이었다. 동인은 이황과 조식을 학문적으로 받들며, 경상도를 기반으로 그 외연을 넓혔다. 이에 비하여 서인세력은 박순(朴淳)·이이(李珥)·성혼(成渾)·정철(鄭澈) 등을 주축으로[43] 열세의 세력분포를 가지고 있었지만[44] 율곡학파(栗谷學派)가 이에 가세함에 따라 선조 14년쯤부터는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서인은 이이와 성혼을 학문적으로 받들며 점진적으로 경기, 황해, 충청 및 전라도 지역의 일부까지 참여하는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45]

사림정치에서는 무엇보다도 의리의 실천을 의미하는 도학적 명분이 중요시되었다. 성리학에 바탕을 둔 도학정치가 지배적인 정치문화로 정착되어 있었던 조선조에 있어서는 붕당을 매개로 한 공론정치가 왕정 운영의 실제적 국면을 규정하는 핵심적 기제(機制)였다. 행도(行道)를 자임하는 붕당은 군왕을 향한 치도(治道)의 진강(進講)이나 간쟁(諫爭), 그리고 집단적인 공론형성 기능을 통하여 군왕권의 자의적 행사를 규제하는 한편, 붕당 간 상호견제를 하였다.[46]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림이 의리를 존숭하였다고 해서 현실적 이해관심에서 초연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관심을 도학적 명분과의 연관 속에서 보여주는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즉 사림세력도 정치 주도권을 경쟁할 때, 군왕의 신임을 확보하기 위한 소위 '회천(回天)' 경쟁에 지대한 관심

---

42) "蓋自甲戌年間. 士林分黨. 目之爲東西. 東則吳健鄭琢柳成龍金宇顒金孝元金誠一. 爲其領袖." (「東西黨禍錄」, 『厚光世牒』 권2, 한국고전번역권 DB.)

43) "西則沈義謙鄭澈尹斗壽根壽洪聖民李海壽朴淳李珥, 爲之領袖" (「東西黨禍錄」, 앞의 책.)

44) "時士類中分. 前輩爲西. 後輩爲東. 後輩皆堂下名士. 布列館閣. 聲勢甚盛. 前輩若幹人. 立朝年久. 疵玷漸生. 每爲後輩指摘. 一時爭進取者. 皆附於東. 扼腕遊談. 皆以爲東正西邪. 而前輩之畏憚苟全者. 反以下士爲名. 而下化於後輩. 前輩中後少後進. 不過其子弟數三人而已." (「東西黨禍錄」, 앞의 책.)

45) 강광식, 『신유학사상과 조선조 유교정치 체제』, 백산서당, 2012, p.176; 정재훈, 「16세기 사림 공론의 내용과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71호, 조선시대사학회, 2014, p.22 참조.

46) 강광식(2012), pp.174, 211 참조.

을 쏟았다. 유교적 왕정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군왕을 중심으로 권력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지배연합도 기본적으로 군왕을 매개로 형성·변이되는 특성을 보인다. 지배체제가 왕정체제라는 군왕 중심의 기본 틀을 유지한 조선조에 있어서는 지배연합이 역시 군왕을 매개로 형성·변이되었다.[47] 선조 대에는 사림의 세력으로 지배연합이 결성된 최초의 왕정이었으며, 선조는 붕당 사이에서 조정자(balancer)나 중재자(mediator)로서 지배연합의 결성을 주도하고 있었다.[48] 동인, 서인과 같은 조선의 붕당은 지배권을 획득하고 자신의 정치사상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충효의 명분을 확보하고 군주의 신임을 얻는 데 관심을 두었던 것이다. 사림은 춘추전국시대 중국의 유사와 달리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지 못하고 튼튼한 사회적 기반을 가졌기 때문에, "유교의 도(道)", 즉 "사는 도에 뜻을 둔다(士志于道)"[49]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신봉하면서도 당파 간에 지배권을 경쟁하는 현실 아래 왕권과 타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셋째, 사상의 측면이다. 춘추전국시대에는 초나라를 포함한 각국에서 유가, 도가, 법가 등 다양한 사상의 영향을 받았고, 조선 역시 유교, 도교, 불교 등 다양한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중국의 각 제후국은 유교를 포함한 많은 사상 중 특정한 것을 통치이념으로 삼지 않았지만, 조선은 일방적인 충효를 강조하는 유교를 국가통치이념으로 삼았다. 춘추전국시대에는 천하가 통일되지 않아 제후국 간의 경쟁이 심했기에 제후들은 각 학파의 지혜를 빌려야 하였다. 게다가 '사'를 포함한 백성들이 사회적 기반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국에서 인구의 유동성이 높아 백성을 관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제후들은 백성을 통일시킬 생각이 없었고 그렇게 할 객관적 조건도 없었다. 한편, 조선은 통일왕조이

47) 강광식(2012), p.150, 153, 175 참조.

48) 군왕이 주도하는 지배연합은 대체로 다음 두 가지의 성향을 보여주었다. 그 하나는 조선조 초기에 왕정체제 자체의 권력기반이 전체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조건 하에서 군왕 자신이 특정한 지배세력의 일원으로서 직접 지배연합의 결성을 주도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15세기 말의 성종(成宗, 재위 1469-1494) 대부터 신료집단의 세력화로 정파정치가 대두된 이후의 여건 하에서 경합관계에 있는 복수의 지배세력들 사이에서 군왕이 조정자(balancer)나 중재자(mediator)로서 지배연합의 결성을 주도하는 경우이다. (강광식(2012), p.151, 175 참조.)

49) "子曰, 士志於道, 而恥惡衣惡食者, 未足與議也." (「里仁」, 『論語』 권1, 張燕嬰 譯註, 中華書局, 2007.)

며 ‘사’가 사대부의 형태였기 때문에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충효를 강조하는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고 백성들의 사상을 속박할 필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객관적 조건도 있었다.

먼저, 굴원이 살았던 시대와 지역의 지배적인 사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춘추전국시대의 문화는 개방적이었으며 나라마다 고정된 통치이념이 없었다. 당대에 수많은 학파가 탄생하였고, '백가쟁명(百家爭鳴)'이라는 현상이 발생하였다.[50] 대표적인 학파로는 유가(儒家), 도가(道家), 법가(法家), 묵가(墨家) 등이 있었다. 당대 많은 학파의 ‘사’들이 각국의 군주에게 자신들의 학파를 유세하였는데, 제후국의 정책은 군주가 등용한 인재의 성격에 따라 자주 변하였다. 나중에는 천하가 통일되고 ‘사’가 점점 사회적 기반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백성의 의식과 사상을 통일시킬 필요와 조건이 생겼났다. 진한(秦漢) 초기에는 법가나 도가를 통치이념으로 삼다가 한나라 무제(武帝) 때부터는 일방적인 충효를 강조하는 종교로 발전된 유교를 국가통치이념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춘추전국시대에는 천하가 통일되지 않아서 제후국 간의 경쟁이 심했기에 제후들은 각 학파의 지혜를 빌려야 했고, ‘사’를 포함한 백성들이 사회적 기반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인구는 유동성이 높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후들은 하나의 사상으로 백성을 속박할 생각이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할 객관적 조건도 없었다.

초나라 역시 중원지역의 국가들처럼 다양한 사상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정 학파의 사상을 국가통치이념으로 삼지 않았을 것이다. 초나라는 양자강의 남쪽에 자리 잡고 있어 북쪽의 중원(中原) 지역의 국가들에게 오랑캐로 간주되었다.[51] 이성(理性)의 발전을 중시하는 중원지역과 달리 초(楚)지역에서는 원시종교가 여전히 성행하고 상층문화로 군림하였다.[52] 한편, 초나라는 쟁패전쟁이나 통일

---

50) "王道既微, 諸侯力政, 時君世主, 好惡習殊方, 是以九家之術蜂出並作, 各引一端, 崇其所善, 以此馳說, 取合諸侯." (班固, 「藝文志序」, 앞의 책, 권30.)

51) "何言乎喜服楚? 楚, 有王者則後服, 無王者則先叛, 夷狄也, 而亟病中國, 南夷與北狄交, 中國不絕若線."·(何休 解詁 · 徐彦 疏,「僖公四年」,『春秋公羊傳註疏』, 四庫全書 電子版.)

52) "楚人鬼, 而越人礼禨. (「说符第八」,『列子』, 四庫全書 電子版.)"; "昔楚靈王驕逸輕下, 信巫祝之道, 躬舞壇前. 吳人來攻, 其國人告急, 而靈王鼓舞自若." (桓譚, 『新論』),; "楚有江漢川澤山林之饒. … 信巫鬼, 重淫祀."(班固, 「地理志 第八下」, 앞의 책, 권28.); "楚國南郢之邑, 元湘之間, 其俗信鬼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나라로서 중원지역과 활발한 문화교류를 하였으므로 유가, 법가 등 중원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53] 중원지역의 국가들이 유가, 묵가, 법가 등 학파들의 주장을 이용하여 나라를 다스렸으므로, 초나라의 상층문화에서도 제자백가의 사상을 흡수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초나라의 문화는 초지역의 고유문화와 중원의 문화가 융합하여 나타난 산물이라고 여겨진다.[54]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융합했던 초나라는 특정한 학파의 사상을 국가 통치이념으로 삼지 않았다.

다음으로, 정철이 살았던 시대와 지역의 지배적인 사상을 살펴보자. 일방적인 충효를 강조하는 성리학은 조선조의 통치이념이었다. 조선 사대부의 사상은 유교, 도교, 불교 등 여러 사상들이 복합적으로 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상들은 조선조의 정치, 사회, 풍속 등 모든 분야에 미친 영향이 아주 깊었다. 그러나 조선조는 성리학을 신봉하는 사족 중심의 역성혁명을 통해서 건립된 중앙집권 봉건왕조이다. 특히 16세기의 사림에게는 유교사상이 지배적인 이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은 통일왕조였으며 '사'가 사대부 형태였기 때문에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충효를 강조하는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고 백성들의 사상을 속박할 필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객관적 조건도 있었다.

넷째, 주요관심사·상대세력에 대한 태도·출처관을 포함한 현실대응 태도의 측면이다. 춘추전국시대의 '사'는 자신이 정치를 하는 국가를 강대국으로 만드는 것을 주요 관심사로 삼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다른 국가로 갈 수도 있는 출처를 주장하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상대세력에 대응하고 끝까지 대항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이와 달리 16세기의 사림은 조선을 이상적 윤리국가로 만드는 것을 주요 관심사로 삼고, 명분에 따라 상대세력에 대응하고 끝까지 대항하지 않으며, 출처의리에 부합하면 적극적으로 출사하고 출처의리에 부합하지 않으면 조정과 임금에 대

而好祠, 其祠必作歌樂鼓舞, 以樂諸神."(王逸, 「九歌章句」, 앞의 책, 권2.)

53) "吾聞用夏變夷者, 未聞變於夷者也. 陳良, 楚產也, 悅周公仲尼之道, 北學於中國, 北方之學者, 未能或之先也, 彼所謂豪傑之士也."(「滕文公上」, 『孟子』 권5, 萬麗華 · 藍旭 譯註(2007), p.112.)

54) 周積明, 「釋楚文化」, 戴錫琦 외, 앞의 책, pp.89-90; 宋公文·張君, 「釋楚文化四大特征」, 戴錫琦 외(2007), pp.89-91.

한 관심을 끊지 않은 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굴원이 살았던 시대와 지역의 일반적인 현실대응 태도를 보도록 하자. 춘추전국시대 각국에 고정된 통치이념이 없었으므로, 당대 '사'들이 지니고 있는 정치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보편적인 양상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춘추전국시대는 정치적인 혼란기로 쟁패전쟁과 통일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였으므로, 당시 자신이 정치를 하는 국가를 강대국으로 만드는 것을 주요 관심사로 삼았던 '사'가 많았다. 여러 국가를 왕래하는 상황이 보편적이었던 것을 보면, 당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상과 현실의 갈등에 봉착하면 다른 국가로 갈 수 있었으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상대세력에 대응하고 끝까지 대항하지 않았던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철이 살았던 시대와 지역의 일반적인 현실대응 태도를 보도록 하겠다. 사림이 여러 학파로 분열되었던 사실은 사림이 학파별로 각각 구체적으로 다른 현실대응 태도를 확립했던 점을 말해준다. 성리학에 공감했던 사림은 공통적인 현실대응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조선을 이상적 윤리국가로 만드는 것을 주요 관심사로 삼았고, 도학적 명분에 따라 상대 세력에 대응하며, 출처의 의리에 부합하면 적극적인 출사를 하고 의리에 부합하지 않으면 조정과 임금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은 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림의 출처관이다. 사림은 군주의 명령보다 진퇴사수(進退辭受)의 도리에 따라 출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사림이 출처의 의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로 재주, 성품, 건강상태, 나이와 같은 능력과 군주와 대신의 자질, 태도 같은 시대적 상황이었다.[55] 사림의 정치사상에서는 이상적 윤리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재야에 머물러 수신궁리(修身窮理)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중요한 주제였다. 물론,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라는 공간(범주)의 확대를 통해 교화를 확산해 나가는 것이" 유교의 특징인 것[56]에 비추어볼 때 그 가운데 출사하여 경세제민(經世濟民)의

55) 김훈식, 「16세기 군신윤리의 변화와 출처론」, 『역사와 현실』 50집, 한국역사연구회, 2003, pp.449-455 참조.

56) 김영수, 『조선시가연구』, 새문사, 2004, p.43.

뜻을 실현하는 것은 사대부 출처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간주되었다. 정치는 이상적 윤리국가의 건설을 위한 실천이자 임금에 대한 충이었다. 자연에 묻혀 심성을 수양하고 학문을 연마하며 후학을 양성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유학의 실천을 위한 준비였다. 자연에 처해 있어도 경세(經世)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고 임금을 걱정해야 하였다.

다섯째, 군신관의 측면이다. 춘추전국시대에는 일반적인 충효를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는 자신이 제후의 사우(師友)이며 제후와 평등한 관계라는 것을 견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6세기 조선의 사림은 기본적으로 군주의 사우가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지만 그러한 대접을 받지 못해도 군주에게 충성하고 군주를 공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굴원이 살았던 시대와 지역의 일반적인 군신관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춘추전국시대의 '사'는 보통 모욕을 참지 못하고 "부귀하더라도 그것을 지나치게 누리지 않고 가난하고 천하더라도 자기의 뜻을 옮기지 않으며, 위협과 무력에도 굴복하지 않는다."[57]는 지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군신관계를 평등한 계약관계로 보고 제후가 자신을 사우로 삼고 공경히 대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만약에 어떤 제후 앞에서 사우의 대접을 받을 수 없으면 그들은 그 국가를 떠날 수 있었다. 그들은 일방적인 충효를 강조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정철이 살았던 시대와 지역의 일반적인 군신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림은 신하가 군주와 함께 세상을 구제하는 동반자, 사우라는 군신관계를 지향하였다. 사림은 군주에게 제왕(帝王)으로서의 안목과 덕망을 쌓는 군주성학론(君主聖學論)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군주가 진정한 정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신하와 함께 수기(修己)의 노력을 하고 치인(治人)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58] 이에 따라 진유(眞儒)의 유무가 성공한 시대를 만들 가장 중요한 요소라

57) "富貴不能淫, 貧賤不能移, 威武不能屈." (「滕文公下」, 『孟子』 권6, 萬麗華 · 藍旭 譯註(2007), p.125.)

58) "金湜曰 … 三代以上, 天子之元子與凡民之俊秀, 同入於學, 而切磋琢磨, 故聖賢之君, 世世不絶". (『中宗實錄』 권32, 中宗 13年 2月 28日 丁酉; 『中宗實錄』卷36, 中宗 14年 8月 8日 己巳.)
"臣按… 蓋天地之間, 有道爲至尊, 有德爲至貴. 古之聖帝明王, 忘其勢威而致敬於有道有德之君子, 詢訪道義而有之於身, 此所謂由師友而得貴且尊也. 後世但知君臣之分, 而無復有隆師親友之道, 或外爲敬賢

고 보았다. 현명한 신하를 등용하는 용현(用賢)의 문제는 치인 또는 경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국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59] 사림은 군주와 신하가 함께 통치의 주체가 되는 군신공치(君臣共治)의 정치운영을 지향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사림은 신하가 군주에게 충성하고, 군주의 권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되게 이끌 때 공경(恭敬)의 태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한나라 이래 유교는 일방적인 충효를 강조하는 통치이념으로 발전되었다. 군부일체(君父一體)·충효일치(忠孝一致)는 사림파 일반의 원칙론이었다.[60] 군주와 아비가 일체이고 충과 효가 같은 것이니 군주가 비록 군주 도리를 못하더라도 신하는 신하 도리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조선조의 정치체제에 있어서는 군주의 권위와 신성성이 부정된 적은 없었다.

따라서 사림이 주장하는 군신관계는 양면적인 성격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전히 일방적인 충효를 의미하는 군신관계였다. 신하를 벗으로 삼고 심지어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다는 측면이 있었으나 군왕의 권위와 신성성은 부정되지 않았다.

'사'의 성격과 결부지어 춘추전국시대 중국의 '사'와 16세기 사림의 보편적인 현실대응 태도와 군신관의 차이가 생긴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자. 춘추전국시대 중국의 '사'의 현실대응 태도나 군신관을 보면 몸과 마음이 자유로운 그들이 신

之貌, 而內無樂善之誠, 或尊之以虛禮, 而不受其誨, 烏足與有爲乎. 嗚呼, 此君德之所以不明, 治道之所以日汗 而賢者常有不遇之嘆也." (李彦迪, 「中庸九經衍義」, 『晦齋全書』권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영인본, 1973, p.405.)

59) "主人曰. 三代之後. 天下之賢君. 固莫如文帝者矣. 但其志趣卑下. 以爲古道必不可復. 安於恬靜. 僅取養民. 古道之不復. 自文帝始. 如文帝者. 終不可入於堯舜之道矣. 非自棄而何. 雖遇眞儒. 必不能用也. … 大抵有爲之主. 必有所敬信之臣. 相親如父子. 相得如魚水. 相調如宮商. 相合如契符. 然後言無不用. 道無不行. 事無不成焉." (李珥, 「군신이 서로 만나기 어려움을 논하다」, 『東湖問答』, 정재훈 역해, 아카넷, 2014, pp.58-59.)

60) "右副承旨盧禛上疏曰, 伏以, 君親一體, 忠孝無間, 家焉而主恩, 國焉而主義, 未嘗有輕重之差."(『明宗實錄』 권27, 明宗16年3月19日 己卯.);
"君親雖曰不同, 忠孝本無二致, 以身言之, 則家先而國後, 以禮言之, 則國尊而家卑."(朴淳, 「銘心錄序」, 『思菴集』 권4, 한국문집총간 38, p.328.);
"以孝事君則忠, 以敬事長則順." (李珥, 「聖學輯要 五」, 『栗谷先生全書』 권2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 1958, p.502.)

봉하는 도(道) 자체는 왕을 절대적인 존재라고 강조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16세기 조선 사림의 현실대응 태도나 군신관에서는 몸과 마음이 자유롭지 않은 그들이 신봉하는 도(道) 자체가 왕권의 요구를 많이 강조하였을 것이다.

이상에서 작가가 살았던 시대와 지역의 국가 상황, 전반적인 정치 현실, 지배적인 사상, 일반적인 현실대응 태도, 일반적인 군신관을 중심으로 굴원과 정철의 시대적·지역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두 시대와 지역의 국가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사'의 성격 또한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이렇게 다른 성격으로 인해 다소 비슷한 정치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실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 당대의 보편적인 사상과 그 사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주 달랐다.

2. 작가의 생애

이 절에서는 두 작가의 작품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굴원과 정철의 생애를 비교함으로써 그들의 개인적 정치상황과 그들이 당대 '사'의 보편적인 사상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켰는지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먼저 굴원의 생애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전해진 춘추전국시대의 문헌에서 굴원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굴원의 구체적인 생애와 행적에 대해서는 주로 굴원의 전기가 처음 실려 있는 후세의 기록인 사마천의 『사기·굴원가생열전』을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유향(劉向)의 『신서(新序)· 절사(節士)』, 왕일(王逸)의 『초사장구』, 주희의 『초사집주』 등에 있는 굴원의 전기나 작품의 창작배경에 대한 설명, 그의 작품에 보이는 전기적 정보를 보충자료로 삼아 굴원의 생애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굴원은 초나라 왕족이다. 『사기』에 의하면 굴원의 이름은 평(平)이고 자는 원(原)이다.[61] 기원전 340년(楚 宣王 30년)경에 초나라의 단양(丹陽, 현재의 후베이성 쯔구이현)에서 태어나 기원전 278년(楚 頃襄王 21년)경에 세상을 떠났다.[62] 굴원의 가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초 무왕(武王)의 아들 하

61) 굴원이 「이소」에서 "나의 이름을 정칙(正則)이라 하시고 자를 영균(靈均)이라 하셨다."라고 했지만 이것은 아마도 은유적인 뜻으로 쓰여진 것이라 여겨진다. (洪興祖, 앞의 책, p.4.)

(瑕)가 굴(屈)의 지방에 봉해져 그의 자손은 '굴'을 성씨로 삼았다고 하는 기록만이 남아 있으므로,[63] 굴원을 초나라의 왕족으로 본다.

굴원은 여러 차례 정치적 기복을 겪었는데 이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굴원의 지배적인 사상, 현실대응 태도, 군신관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굴원은 초년에 회왕에 의해 중용을 받았다. 굴원이 정치에 참여했던 시기는 초 회왕(楚 懷王)과 초 경양왕(頃襄王) 때인데, 그 중에 주로 초 회왕의 재위기간 동안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하였다. 그는 왕족인데다가 재능이 뛰어나서 회왕의 총애를 받았으며, 좌도(左徒) 겸 삼려대부(三閭大夫)[64]의 중책을 맡아 내정·외교에서 활약하였다.[65]

그러나 이후 굴원은 정적의 참언으로 조정에서 쫓겨난다. 왕은 그를 신임하여 그에게 나라의 율령을 제정하라고 명하였다. 그런데 굴원이 율령의 초안을 미처 완성하기도 전에 상관대부(上官大夫)인 근상(靳尙)이 그 초안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굴원이 초안을 주지 않자 상관대부는 굴원이 법령이 나올 때마다 자기의 공을 과시한다고 비방하였다. 결국 회왕은 간신의 참언을 믿게 되어 점점 굴원을 멀리하고 굴원을 좌도에서 파면하였다.[66] 일반적으로 「이소」는 회왕과 사이

---

62) 굴원의 생몰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초사 연구자들은 주로 「이소」의 "攝提貞于孟陬兮, 惟庚寅吾以降 (저는 인년(寅年) 정월, 경인일(庚寅日)에 태어났습니다)."라는 말에 의거해서 굴원의 출생연대를 추정하였는데, 이를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로 곽말약(郭沫若, B.C.340), 포강청(浦江淸, B.C.339), 탕병정(湯炳正, B.C.342) 등이 있다. 또한 굴원 작품인 「애영(哀郢)」, 「회사(懷沙)」와 사마천의 『사기(史記)·초세가(楚世家)』에 의거해서 굴원의 사망연대를 추정하는 학자도 있는데, 황문환(黃文煥, B.C.289), 임운명(林雲銘, B.C.288), 유몽붕(劉夢鵬, B.C.3278)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굴원은 일반적으로 초 선왕이나 초 위왕(楚 威王)에서 경양왕에 이르는 전후 50, 60여 연간에 살았다고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B.C.340년에 출생하여 B.C.278년에 사망했다는 중국 학계의 통설을 따른다. (周建忠, 『楚辭考論』, 商務印書館, 2007, pp.19 참조.)

63) "屈原者,名平, 楚之同姓也." (司馬遷, 「屈原賈生列傳」, 앞의 책.)

64) 왕일(王逸)은 『楚辭章句·離騷序』에서 "三閭之職, 掌王族之姓, 曰昭屈景, 屈原序其譜屬, 帥其賢良, 以厲國士."라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삼려대부(三閭大夫)를 초나라 왕족의 삼성(三姓)인 소(昭)·굴(屈)·경(景)의 종족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귀족자제의 교육을 맡는 것으로 보고 있다. '좌도(左徒)'란 초나라의 중신으로 그 지위는 '영윤(令尹)' 다음 가는 것이다.

65) "爲楚懷王左徒. 博聞強志, 明于治亂, 閑于辭令. 入則與王圖議國事, 以出號令. 出則接遇賓客, 應對諸侯. 王甚任之." (司馬遷, 「屈原賈生列傳」, 앞의 책.)

66) "上官大夫與之同列, 爭寵而心害其能. 懷王使屈原造爲憲令, 屈平屬草稿未定. 上官大夫見而欲奪之, 屈

가 멀어지고 좌도에서 파면되기 전에 자신의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여겨진다.[67]

굴원은 30세가 되던 회왕 18년(B.C.311) 무렵 다시 기용되었다. 『사기』에 의하면 회왕 16년(B.C.313) 진나라는 제나라를 치고자 하면서도 초나라와 제나라의 동맹관계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회왕을 속임으로써 제나라와 외교 관계를 끊도록 하려고 하였다. 진나라는 장의(張儀)를 시켜 회왕에게 폐물을 바치고 제나라와 단교하면 땅을 할양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회왕은 재물과 영토에 눈이 멀어 장의를 믿고 마침내 제나라와 단교하였다. 굴원은 합종(合縱)의 책략을 주장하였으나 조정에서 쫓겨나 간언을 올릴 수가 없었다. 결국 회왕은 진나라에 속아서 영토를 받지 못하였다. 회왕은 노하여 진나라를 치게 하였으나 위(魏)나라가 이 틈에 초나라를 공격하고 제나라가 구해주지 않아 큰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68] 이때가 회왕 18년 무렵이었는데 『사기』에서는 굴원이 복위되지 않았음에도 제나라에 사자로 갔다고 한다.[69] 아마도 『신서』의 언급에서처럼 이 무렵 회왕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외교를 잘하는 굴원을 다시 기용하여 제나라에 사신으로 보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70]

그러나 그는 36세가 되던 초회왕 24년(B.C.305) 무렵 초 회왕이 제나라를 배신하고 진나라와 연합하는 일을 반대하여 한북(漢北)으로 유배당했다. 초회왕 18년 굴원은 제나라와 초나라의 동맹을 성사시켰다.[71] 진나라는 한중(漢中)의

平不與, 因讒之曰, 王使屈平爲令, 衆莫不知. 每一令出, 平伐其功, 曰以爲, 非我莫能爲也. 王怒而疏屈平." (司馬遷, 「屈原賈生列傳」, 앞의 책.)

67) "屈平疾王聽之不聰也, 讒諂之蔽明也, 邪曲之害公也, 方正之不容也, 故憂愁幽思而作離騷. 離騷者, 猶離憂也."(司馬遷, 「屈原賈生列傳」, 앞의 책.)

68) "屈原既礎. 其後秦欲伐齊, 齊與楚從親, 惠王患之. 乃令張儀佯去秦, 厚幣委質事楚, 曰, 秦甚憎齊, 齊與楚從親, 楚誠能絕齊, 秦願獻商於之地六百里. 楚懷王貪而信張儀, 遂絕齊, 使使如秦受地. 張儀詐之曰, 儀與王約六里, 不聞六百里. 楚使怒去, 歸告懷王. 懷王怒, 大興師伐秦. 秦發兵擊之, 大破楚師於丹浙, 斬首八萬, 虜楚將屈亡, 遂取楚之漢中地. 懷王乃悉發國中兵以深入擊秦, 戰於藍田. 魏聞之, 襲楚至鄧. 楚兵懼, 自秦歸. 而齊竟怒不救楚, 楚大困." (司馬遷, 「屈原賈生列傳」, 앞의 책.)

69) "是時屈平既疏, 不復在位, 使於齊." (司馬遷, 「屈原賈生列傳」, 앞의 책.)

70) "是時懷王悔不用屈原之策, 以至於此, 於是復用屈原." (劉向, 「節士」, 『新序』, 四庫全書 電子版.)

71) "秦欲吞滅諸侯,並兼天下.屈原為楚東使於齊, 以結強黨. " (劉向, 「節士」, 앞의 책.)

땅을 돌려주겠다는 강화를 청해왔다. 회왕은 땅을 원하지 않고 장의만을 원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장의가 상관대부(上官大夫)를 통해 회왕의 총희(寵姬)인 정수(鄭袖)에게 제물을 주었고, 회왕은 정수의 말만 믿고 장의를 놓아 주었다. 제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온 굴원이 왜 장의를 죽이지 않았냐고 간하였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72] 초회왕 24년 무렵 초나라는 제나라를 배신하고 진나라와 연합하게 된다. 굴원은 이 일을 반대하여 한북(漢北) 일대로 유배당하였다.[73] 『구장(九章)』의 「추사(抽思)」, 「사미인(思美人)」 은 굴원이 한북에 있는 심정을 노래한 작품인 것으로 여겨진다.

굴원은 42세가 되던 초회왕 30년(B.C.299) 전에 조정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사기』에 따르면 초회왕 30년 진나라의 소양왕(昭襄王)은 초나라와 혼인(婚姻)하고자 회왕과 무관(武關)에서 만나고 싶다고 하였다. 회왕이 가려하자, 굴원은 진나라를 믿을 수 없으므로 가지 말라고 간언하였다. 따라서 이 당시 굴원은 조정에 있었을 것이다.[74]

그러나 그는 45세가 되던 경양왕 3년(B.C.296) 무렵 정적의 참언으로 강남(江南)으로 유배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회왕은 어린 아들 자란(子蘭)의 말을 듣고 진나라에 들어갔다가 결국 억류되었다. 그리하여 장자(長子)인 경양왕이 왕위에 오르고 자란은 영윤(令尹)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굴원이 45세가 되던 경양왕 3년(B.C.296)에 회왕이 진나라에서 객사하였다. 초나라 사람들은 자란을 탓했으며, 굴원 역시 자란을 원망하였다. 자란은 크게 노하여 상관대부로 하여금 굴원을 참소(讒訴)하게 하니 경양왕이 굴원을 강남으로 유배하였다.[75] 『구

---

72) "明年, 秦割漢中地與楚以和. 楚王曰, 不原得地, 原得張儀而甘心焉. 張儀聞, 乃曰, 以一儀而當漢中地, 臣請往如楚. 如楚, 又因厚幣用事者臣靳尚, 而設詭辯於懷王之寵姬鄭袖. 懷王竟聽鄭袖, 復釋去張儀. 是時屈平既疏, 不復在位, 使於齊, 顧反, 諫懷王曰, 何不殺張儀？懷王悔, 追張儀不及." (司馬遷, 「屈原賈生列傳」, 앞의 책.)

73) "有鳥自南兮, 來集漢北. 好姱佳麗兮, 牉獨處此異域." (屈原, 「抽思」.)

74) "時秦昭王與楚婚, 欲與懷王會. 懷王欲行, 屈平曰, 秦, 虎狼之國, 不可信, 不如毋行. " (司馬遷, 「屈原賈生列傳」, 앞의 책.)

75) "懷王稚子子蘭勸王行, 奈何絕秦歡. 懷王卒行. 入武關, 秦伏兵絕其後, 因留懷王, 以求割地. 懷王怒, 不聽. 亡走趙, 趙不內. 複之秦, 竟死于秦而歸葬. 長子頃襄王立, 以其弟子蘭爲令尹. 楚人既咎子蘭以勸懷王入秦而不反也. … 令尹子蘭聞之大怒, 卒使上官大夫短屈原於頃襄王, 頃襄王怒而遷之." (司馬遷, 「

가(九歌)』, 『구장』 중의 「애영(哀郢)」, 「회사(懷沙)」 등의 작품들은 굴원이 강남에서 떠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창작된 작품이라고 여겨진다.

굴원은 63세가 되던 경양왕 21년(B.C.278년)에 초나라의 어지러운 정치에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굴원은 어리석은 왕과 간사한 신하로 인해 초나라에서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도처를 떠돌아다니는 고달픈 생활을 하였다. 따라서 그는 오랫동안 울분을 느꼈다. 경양왕 21년에 진나라의 침입으로 초나라의 수도가 점령당하자 초 경양왕은 초나라의 잔존세력을 이끌고 수도를 옮겼다. 영도가 함락된 소식을 들은 후 굴원은 비통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서 마침내 초나라의 정치에 완전히 절망하였다. 63세의 굴원은 바위를 품고 멱라강(汨羅江)에 투신하여 불우한 생을 마쳤다.[76]

다음으로 굴원의 진퇴 과정을 통해 그의 지배적인 사상, 그가 처해 있던 정치적 상황, 출처관을 포함한 현실 대응 태도, 군신관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굴원의 지배적인 사상을 보도록 하겠다.

굴원은 제자백가 사상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외교 사절(使節)들이 본격적인 외교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시경』을 한 구절 또는 한 수씩 읊음으로써 각자의 마음을 암시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았다."[77]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외교사신의 직분까지 지낸 굴원은 제자백가의 사상을 포함한 중원문화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굴원은 여러 학파의 사상을 융합하여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다고 여겨진다.[78]

屈原賈生列傳」, 앞의 책.) ; "懷王子頃襄王, 亦知群臣諂誤懷王, 不察其罪, 反聽群讒之口, 復放屈原." (劉向, 「節士」, 앞의 책.)

76) "屈原疾閣王亂俗, 汶汶嘿嘿, 以是為非, 以清為煽, 不忍見於世, 將自投於淵, 漁父止之. 屈原曰, 世皆醉, 我獨醒. 世皆煽, 我獨清. 吾獨聞之, 新浴者必振衣, 新沐者必彈冠. 又惡能以其冷冷, 更世事之嘿嘿者哉? 吾寧投淵而死. 遂自投湘水淚羅之中而死." (劉向, 「節士」, 앞의 책.)

77) "春秋觀志, 諷誦舊章, 酬酢以為賓榮, 吐納而成身文." (劉勰, 「明詩」, 『文心雕龍』, 四庫全書 電子版); "許穆夫人賦載馳. 齊侯使公子無虧帥車三百乘甲士三千人戍增."(「閔公二年 」, 『春秋左傳註疏』, 四庫全書 電子版.); "晉侯使韓宣子來聘, … 公享之. 季武子賦綽之卒章. 韓宣子賦角弓, 季式子辭曰, 敢拜子之彌縫敝邑, 寡君有望類." (「昭公二年 」, 『春秋左傳註疏』, 四庫全書 電子版.)

78) 고대에 굴원의 사상이 유가에 속한다고 생각되었다. 근대에 들어와서 굴원의 사상이 유가, 도가나 법가에 속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그런데 요즘에 굴원이 어떤 학파에도 속하지 않고 여러 학파의 사상을 융합하여 스스로의 정치철학체계를 형성하였다고 주장한 연구자가 많다. 그 대표적인 연구자

그는 「이소」에서 자신의 정치사상을 "아름다운 정치(美政)"[79]라고 하였다. 굴원의 작품들을 보면 '미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은 옛날의 성왕을 모범으로 삼아 재덕이 있는 사람을 등용하고 법도를 따라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 예컨대, 『이소』에서 "옛날 세 분의 선대 임금께서는 덕이 순수하시어 실로 많은 꽃들이 모였습니다(昔三後之純粹兮, 固衆芳之所在)."라고 하거나 "요임금과 순임금께서는 바르고 곧으시어 정도(正道)를 따라 길을 나아갔습니다(彼堯舜之耿介兮, 既遵道而得路)."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옛날의 성왕을 모범으로 삼고 현군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이 드러난다. 현군(賢君)은 미정을 실현하는 선결조건이었다. 『이소』에서 "어진 이를 선발하고 능력 있는 이를 임용했습니다(擧賢而授能兮)."라고 하고, 『석왕일(惜往日)』에서 "임금은 곧은 신하에게 국정을 맡겨 늘 즐거워했습니다(屬貞臣而日娭)."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현신(賢臣)을 등용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이 드러난다. 또한 『이소』에서 "먹줄을 따르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循繩墨而不頗)."라고 하고, 『석왕일(惜往日)』에서 "선왕의 공업을 이어 백성들을 비추고 법도를 밝혀 꺼리고 의심나는 일을 처리했습니다(功以照下兮,明法度之嫌疑)"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법도에 따라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는 그의 생각이 드러난다. 재덕이 있는 사람을 등용하고 법도를 따라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굴원이 생각하는 현군의 모습이었다.

둘째, 부국강병을 실현하여 천하를 통일하는 것이 미정(美政)의 궁극적 목표이었다. 그는『석왕일(惜往日)』에서 "나라는 부강하고 법은 기강이 섰다(國富強而法立兮)"라고 하여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드는 것을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었다. 굴원이 작품에서 항상 옛날의 성왕정치를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을 통해 그가 성왕이 다스렸던 통일국가를 추구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미정의 목표는 부국강병을 실현하여 천하를 통일하는 데 있다.[80]

위와 같은 미정의 내용을 통해 굴원의 정치사상은 유가, 묵가, 법가 등 여러

로 은광희(殷光熹), 고화평(高華平) 등을 들 수 있다. (殷光熹,『楚辭論叢』, 巴蜀書社, 2008, pp.3-16; 高華平,「屈原"美政" 思想與楚國的諸子學」, 『江漢論壇』02期, 2010.)

79) "既莫足與為美政兮, 吾將從彭咸之所居." (屈原,「離騷」.)

80) 劉五一,「"美政"理想是屈原及其作品的核心思想」, 『天中學刊』06期, 2003, p.47 참조.

학파의 사상을 흡수하였으나 어떤 학파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옛날의 성왕 또는 선왕(先王)을 숭배하는 것은 유가, 묵가, 도가 등 당시의 많은 학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81]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것은 유가, 묵가 등이 모두 강조하였다.[82] 법도에 따라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법가가 특히 강조하였다. 따라서 굴원의 정치사상은 당시 여러 학파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음에는 분명하나 그의 사상의 실제적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학파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미정의 내용을 보면 굴원은 개혁파였으므로 굴원과 정적의 투쟁은 개혁파와 구귀족의 투쟁에 속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미정은 부국강병을 목표로 하는 만큼 개혁의지가 담겨 있는 사상이다. 미정은 인재를 등용하고 법령을 제정하는 것 등 여러 점에서 그 전에 초나라에서 개혁을 했던 오기(吳起)의 변법[83]과 비슷한 면이 있기도 하였다. 오기의 변법이나 굴원의 미정은 모두 구세력의 이익에 저촉되었다. 오기의 변법은 구세력의 반대를 받아 결국 실패하고 오기도 구세력에게 살해당하였다. 굴원이 여러 차례 정치적 좌절을 겪은 것은 주로 정적에게 참소 당하거나 정적의 주장을 채택한 왕에게 끝까지 간언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관대부와 같은 정적이 단순히 굴원을 질투하거나 혐

---

81) "去無用之費, 聖王之道, 天下之大利也." (「節用」, 『墨子』 권6, 四庫全書 電子版.)

"禮之用, 和爲貴, 先王之道斯爲美." (「學而」, 『論語』 권1, 張燕嬰 譯註(2007), p.8.)

"道者, 誠人之姓也, 非在人也. 聖王明君善知而道之也." (「君臣上」, 『管子』 권30, 四庫全書 電子版.)

"非其道, 則一簞食不可以受于人. 如其道, 則堯受舜之天下, 不以爲暴母者, 道也, 也者, 生于所以有國之術, 所以有國之術, 故謂之有國之母." (「解老」, 『韓非子』 권20, 四庫全書 電子版.)

82) "今王發政施仁, 使天下仕者皆欲立於王之朝." (「梁惠王上」, 『孟子』 권1, 萬麗華 · 藍旭 譯註(2007), p.15.)

"子墨子言曰, 是在王公大人為政於國家者, 不能以尚賢事能為政也. 是故國有賢良之士眾, 則國家之治厚. 賢良之士寡, 則國家之治薄. 故大人之務, 將在於眾賢而已." (「尚賢上」, 『墨子』 권2.)

83) 오기 변법의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을 만들고 왕권을 강화하며 귀족의 세력을 약화시킨다. 둘째, 품성이 좋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선발하여 임용한다. 그리고 무능하고 불필요한 관리를 줄이고, 3대 이상이나 작록을 받은 사람도 그 작록을 회수하여 재정을 줄인다. 셋째, 일하지 않는 자에게 벌을 주고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을 격려한다. 넷째, 군비를 확충하고 군사의 대우를 높여 전투력이 있고 군주가 직접 지휘하는 군대를 건립한다. (魏昌, 「吳起變法與楚國國情」, 『長江大學學報』 04期, 1989 참조.)

오했기에 그를 계속 배척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굴원의 미정은 변법에 속한 것이므로, 구세력이 용납하지 못했던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굴원과 대립한 이유는 굴원이 개혁파였기 때문일 것이다. 굴원과 상관대부 등의 갈등은 변법을 하려는 신세력과 변법을 반대하는 구세력의 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

상관대부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율령의 초안을 빼앗으려던 사건을 통해서도 그들의 투쟁이 개혁파와 구귀족의 투쟁에 속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초왕 앞에서 굴원을 비방했던 것은 겉으로 보면 간사한 신하의 상투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일에 대해 사마천은 상관대부가 굴원을 질투해서 초안을 빼앗고 싶어 했다고 해석하였다.[84] 곧 상관대부가 단순히 굴원의 재능을 질투해서 그 훌륭한 초안을 자신의 명의로 바치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초안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대부가 그 초안을 빼앗아도 왕에게 올릴 수 없었다. 그리고 왕이 굴원에게 명하여 율령을 제정하라고 했던 상황에서 상관대부가 과연 자신의 명의로 그 초안을 올릴 수 있었을까? 그래서 현대의 연구자는 사마천의 해석을 비판하며 이 율령이 변법과 관련되어 있다고 추측한다.[85] 이를 보면 상관대부는 구세력에 불리한 초안을 빼앗아 그 내용을 수정하려고 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굴원이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세력의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왕이 무능하고 구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굴원은 신·구세력의 투쟁에서 계속 열세에 처해 있었다. 회왕이 굴원에게 율령을 제정하라고 명한 것을 보면 회왕은 처음에는 굴원의 개혁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그는 현명한 왕이 아니었으므로, 곧바로 구세력의 참언을 믿어 개혁을 포기하고 굴원과 멀어지게 되었다. 자란(子蘭)과 상관대부와 같은 간신을 믿었던 경양왕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초 회왕과 경양왕 재위 기간에 초나라가 쇠약해졌고 머지않아 진나라에 의하여 멸망하였다. 이렇게 무능하고 우매해서 구세력을 믿었던 왕들로 인해 굴원은 투쟁에서 열세에 처해 조정에서 배척당하였다. "가지와 잎이 크고 무성해지길 바라며 수확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시들고 떨어지는 것은 마음이 아프지 않으나 꽃들이 거칠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 슬픕니다. (冀枝葉之峻茂兮, 願竢時乎吾將刈. 雖萎

84) "上官大夫與之同列, 爭寵而心害其能.." (司馬遷,「屈原賈生列傳」, 앞의 책.)

85) 金開誠, 『屈原辭研究』, 新星出版社, 2005, pp.46-47 참조.

絶其亦何傷兮, 哀眾芳之蕪穢.)"라는 「이소」의 구절에서 자신이 키운 인재들도 점점 구세력에 영합하게 된 일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며 개혁파의 곤경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비록 열세에 처해 있어도 굴원은 초나라에서 부국강병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다른 국가에 가지 않는 출처를 선택하였으며, 강직한 태도로 현실에 대응하였다.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부국강병을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와는 달리, 굴원은 자국인 초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였다. 그는 일반의 '사'처럼 정치적 의욕이 강하고 적극적으로 출사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상과 현실의 갈등에 봉착해도 스스로 정계에서 물러나지도, 다른 나라로 정치 활동의 중심을 옮기지도 않았다. 이는 당대 다른 '사'가 좌절을 겪을 때 다른 나라로 정치 활동의 중심을 옮기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그는 끝까지 초나라의 조정에서 임금에게 간쟁을 하고 구세력과 투쟁하는 모습을 보였다. 굴원 자신도 "세상은 혼탁하고 나 혼자 깨끗합니다. 사람들은 취해 있고 나 혼자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쫓겨났습니다."[86]라고 하여, 자신이 남과 다르게 고결하고 소인배와 전혀 타협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굴원은 당시 '사'의 현실대응 태도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현실대응 태도를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굴원의 현실대응 태도에 대하여, 굴원이 주로 유가적 충군(忠君)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남과 다르다고 주장한 학자들이 고대 이후로 많았으나 이 견해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말했듯이 굴원의 시대에는 유교가 일방적인 충효를 강조하는 이념으로 발전되지 않았다. 춘추전국시대의 공자, 맹자도 각국의 제후들에게 유세했던 것을 보면 당대 유교의 '사'는 어떤 제후국에서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굴원의 충 이념은 당대의 충 이념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굴원의 충 이념은 당대의 유교적 충 이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굴원은 왜 다른 '사'들과 달리 초나라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구세력과 대항했는가? 그 이유는 주로 그의 출신에서 찾아야 한다.

굴원은 출신이 한미한 일반적인 '사'와 달리 초나라의 왕족신분을 가진 특별한 '사'였다. 즉 초나라는 굴원의 종국(宗國)[87]이었다. 따라서 굴원은 일반적인

86) "屈原曰, 舉世皆濁我獨清,眾人皆醉我獨醒,是以見放." (屈原,「漁夫」.)

‘사’와 달리 자신의 종족에 많이 의존하였고, 일정한 재산을 지녔으며, 나름의 관작을 가졌다. 굴원이 나중에 조정에서 배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과 신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가난한 ‘사’는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서 자신의 제자인 송옥(宋玉)처럼 경제적인 가난을 한탄한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종국에 대해 영욕을 함께 하는 의존감과 책임감을 가졌던 것이다.[88] 따라서 굴원은 일반인보다 고국에 대해 더 깊은 사랑을 지니고 있었다. 물론, 같은 성씨인 왕족이라고 해서 종국에서 홀대를 받더라도 무조건 종국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노나라의 왕족인 손첩(孫輒)은 오(吳)나라로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오나라에 가서 노나라를 치려고 하였다.[89] 그러나 굴원이 끝까지 초나라를 지키기로 선택한 것은 주로 왕족신분으로 인해 생긴 애국심이었을 것이다.

요컨대 굴원은 왕족 신분으로 인해 당대의 '사'보다 자신의 나라에 대한 사랑이 두터운 사람이 되었는데, 이는 그의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문학작품들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굴원이 조정에서 배척당할 때 사물을 빌어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는 작품인 『귤송(橘頌)』에서 "천지간에 아름다운 나무가 있으니 귤이 우리 땅에 내려왔도다. 타고난 성품은 바꾸지 않으니 강남에서 자라는도다. 뿌리가 깊고 단단하여 옮기가 어렵다"[90]라고 하였다. 즉 자신의 뿌리가 초나라에 있으므로, 초나라에 대한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

87) 춘추전국시대에 '종국(宗國)'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어떤 나라가 자신의 나라와 같은 성씨의 국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를 들면, 등(滕)나라와 노(魯)나라의 시조가 다 문왕(文王)이라서 등나라는 노나라를 종국이라고 한다. 둘째, 고국과 같은 성씨인 귀족이라면 고국이 그의 종국이다. 예를 들면, 공산불유(公山不紐)은 노나라의 왕족인 숙손첩(叔孫輒)에게 자신의 종국을 치지 말라고 하였다. 여기서 초나라가 굴원의 종국이라는 것은 후자의 의미이다. ("吾宗國魯先君莫之行." 趙岐註, " 滕魯同姓, 俱出文王. 魯, 周公之後, 滕, 叔繡之後." (「滕文公章句上」, 『孟子章句』, 四庫全書 電子版.); "魯叔孫輒, 公山不紐逃亡於吳, 輒勸吳伐魯, 不紐曰, 非禮也. 君子違, 不適仇國. 夫巨而有伐之, 奔命焉, 死之可也. 所托也則隱. 且夫人之行也, 不以所惡廢鄉. 今子龍叼惡而欲廢宗國, 不亦難乎."(「哀公八年」 『春秋左傳註疏』, 四庫全書 電子版.)

88) 郭傑, 앞의 논문, pp.83 .

89) 『春秋左傳註疏·哀八年』, 앞의 인용문.

90) "後皇嘉樹, 橘徠服兮. 受命不遷, 生南國兮, 深固難徙, 更一志兮, 綠葉素榮, 紛其可喜兮." (屈原, 「橘頌」.)

이외에 굴원이 개창한 작품이 '초사'라고 불리는 것도 초나라에 대한 그의 사랑을 방증하고 있다. 굴원의 초사는 "모두 초어(楚語)를 썼고, 초성(楚聲)을 내었고, 초지(楚地)를 기록했고, 초물(楚物)을 이름 하였으므로 초사라고 하였다."[91]라고 평가되었는데 이는 그의 향토와 향토 문화에 대한 애착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굴원은 유가의 사상 때문이 아니라 왕족신분으로 인해 초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초나라의 존망을 외면하지 못하고 평생 초나라의 부국강병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는 초나라의 군주와 신하의 부패를 끝까지 개혁하려고 하였으며, 결국 성공하지 못해도 차마 초나라를 버리지 못하고 목숨을 버렸다.

따라서 군신관의 측면에서 굴원은 당시의 '사'처럼 임금의 사우로 자임하는 것을 견지하면서도 애국 때문에 초왕에게 충성하였다. 굴원이 임금 앞에서 끝까지 간언을 드리고 소인배와 전혀 타협하지 않았던 것을 볼 때, 그는 당시의 '사'처럼 초왕이 자신을 사우로 삼고 공경히 대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우의 대접을 받지 못했을 때도 그는 국가를 떠나지 않았다. 굴원은 초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임금을 원망하면서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굴원의 충군(忠君)은 유교에서 말하는 충군의 정서와 다르다. 굴원은 유교적 충신이라기보다 애국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다음으로 정철의 생애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때 정철의 생애와 행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송강집(松江集)』, 이이의 『율곡선생전서(栗谷先生全書)』 등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철의 본관은 영일(迎日)이고, 자는 계함(季涵), 호는 송강(松江), 또는 임정(臨汀), 칩암(蟄庵)이라고도 하였다.[92] 그는 조선 1536년(중종 31년)에 한양에서 정유침(鄭惟沈)의 4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고 1593년(선조 26년)에 강화 송정촌(松亭村)에서 세상을 떠났다.[93]

---

91) "書楚語, 作楚聲, 記楚地, 名楚物." (黃伯思, 「翼騷序」 『東觀餘論』, 四庫全書 電子版 .)

92) "先君, 字季涵, 丙申生, 號松江, 昌平地名, 又號臨汀, 迎日號, 又號蟄庵, 寓陰竹莊舍, 作土窯以居, 亦因為號." (鄭弘溟, 『畸翁漫筆』(『松江集』, 부록2.))

93) "本朝中宗三十一年, 閏十二月初六日丁巳亥時. 公生于京城藏義洞第." (「年譜上」, 『松江別集』 권2, 한국문집총간 46, p.263.) "癸巳二十一年, 公五十八歲. 退居于江華松亭村. … 十二月十八日. 捐館于

정철은 유교, 도가 등 사상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의 지배적인 사상은 유교였다. 10세(명종 1년, 1545)로부터 27세(명종 17년, 1562) 등과(登科)하기까지 가화(家禍)[94]로 인한 유리생활(遊離生活)과 창평(昌平)에서의 수학 시절을 보냈다. 창평에서 정철은 기대승(奇大升), 김인후(金麟厚) 등 호남의 거유(巨儒)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이이(李珥), 성혼(成渾) 등 평생의 친구이자 정치적 동반자들과 교유를 하였다.[95] 수학 시절에는 하서 등 유학자 밑에서 조선시대의 통치이념인 유가의 학문을 주로 공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스승의 영향 아래 호방하고 풍류적인 도가적 정취 등 여러 정서를 양성하였다.[96]

정철은 27세부터 32세(명종22년, 1567)까지의 약 5년간에 명종조(明宗朝)의 배로 화려하게 출사했지만 곧바로 환로의 침체를 겪어야 하였다.[97] 선조의 지우(知遇)의 은혜를 입어 정철은 명종 때의 정치적 침체를 타개하고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었다.[98] 40세(선조8, 1575) 때부터 정철은 당쟁 속에서 정치적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진퇴를 거듭하였다. 이 시기에 정철은 여섯 차례나 출처(出處)를 반복했고 그 중에서 한 차례의 유배도 겪었다. 정철의 출처 과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99]

江華寓舍."「年譜下」, 『松江別集』 권3, 한국문집총간 46, p.293.)

94) "公十歲, 遭家禍, 公姊夫桂林君瑠被鄭順朋, 許磁等搆殺, 公伯兄正郎公滋被逮, 杖流道卒, 判官公亦囚繫, 僅脫死." (「年譜上」, 『松江別集』 권2.)

95) "故判官公歸寓墓下. 公隨往. 而自知爲學. 遂往請業於金河西麟厚之門. 後又從奇高峯大升學. … 與栗谷李先生相遇, 定交焉. … 公早與牛溪定交."(「年譜上」, 『松江別集』 권2.)

96) "又出入金河西麟厚之門, 常慕其爲人, 稱道大節, 以爲出處之正, 雖近世儒賢有所不及也."(「行錄」, 『松江別集』 권4.); "何年海上仙, 棲此雲山裏. 怊悵撫遺蹤, 白頭門下土.(海上仙,指河西.)" (「息影亭雜詠十首·仙遊洞」, 『松江原集』 권1, 한국문집총간 46, p.138.); "小子之懷先生夙矣, 至于今日, 懷之不已者, 士趨之汚, 孰能淑之,世道之卑, 孰能升之, 升之淑之, 在吾先生. 先生去後, 世無其人. 望川祀宇, 彷彿遺塵." (「祭奇高峰先生文」, 『松江續集』 권2, 한국문집총간 46, p.210.)

97) "公二十七歲,三月.魁文科別試.…公登第, 明廟見榜目, 喜甚, 呼兒名曰, 某氏及第也, 卽賜酒饌, 使六七人負送, 以助宴需, 且令放榜時, 由西門外而行, 蓋欲於城上見之也.…除司憲府持平. … 時明廟從兄景陽君謀奪妻家財産, 誘殺其妻娚, 事覺, 景陽父子將死. 公執法不撓,明廟私囑于公曰, 請公寬貸, 公終不從, 景陽父子竟死, 公由此忤旨, 久阻淸選." (「年譜上」, 『松江別集』 권2.)

98) "公三十二歲. … 判官公還授職牒. … 與栗谷先生,同被湖堂之選.…公三十三歲三月, 除吏曹佐郎. … 六月, 遠接使朴思庵淳, 辟公爲從事官.…" (「年譜上」, 『松江別集』 권2.)

	시기	출사	낙향	작품
1	40세(선조 8, 1575)-43세(선조 11, 1578)	성균관사성 등.	40세 때 이이에게 김효원 등을 탄핵할 것을 청하였음. 그러나 이이가 듣지 않았고 정철은 실망한 나머지 창평으로 물러남.	
2	43세-45세(선조13, 1580)	장악원정, 통정대부, 동부승지, 대사헌 등.	43세 때 진도군수 이수(李銖)가 윤두수(尹斗壽)에게 뇌물로 쌀을 주었다는 옥사가 있었는데 이 때 정철은 삼윤(三尹: 尹晛, 尹斗壽, 尹根壽)을 옹호하다가 동인들의 탄핵을 받아 물러나고 말았음.	
3	45세-46세(선조14, 1581)	강원도관찰사 등.	46세 대사성의 자리에 있을 때 왕명으로 노수신(盧守愼)의 사직에 대한 비답(批答)을 지었는데 동인의 탄핵을 받아 물러남.	「훈민가(訓民歌」 16수, 「홍주관판기(洪川館板記)」, 「유읍재문(諭邑宰文」, 「江原監司時陳一道弊瘼疏」 등.
4	46세-54세(선조22, 1589)	전라도관찰사, 함경도관찰사 등.	50세 판돈녕의 자리에 있을 때 동인들의 공박과 양사의 논척을 입고 다시 물러나게 되었음. 이 시기는 동인이 득세하던 때라 선조는 정철을 변호해 준 서익(徐益), 조헌(趙憲) 등을 물리치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음. 그 후에는 더 이상 그를 위해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따라서 이 시기는 정철에게 정치적으로 가장 고독한 시기였음.	「全羅監司時陳弊疏」; 「전후미인곡」 등.

99) 「年譜上」, 『松江別集』 권2; 「年譜下」, 『松江別集』 권3; 「洪川館板記」, 『松江原集卷』 권2, 한국문집총간 46, p.157; 「諭邑宰文」, 『松江別集』 권1, 한국문집총간 46, p.236; 「江原監司時陳一道弊瘼疏」, 『松江續集』 권2, 한국문집총간 46, p.200; 「全羅監司時陳弊疏」, 『松江續集』 권2, 한국문집총간 46, p.202.

5	54세－57세(선조21, 1592)	정여립 모반사건을 다스리는 위관(委官), 인성부원군(寅城府院君) 등.	56세 때 건저(建儲) 문제가 생기고 정철은 선조의 총첩인 김빈(金嬪) 모자를 죽이려 한다는 모함을 받았음. 6월에 양사가 계를 올려 정철의 귀양을 청함. 그로 인해 정철은 파직 당하였다가 강계로 유배됨.	
6	57세－ 58세(선조26, 1593)	사은사 등.	58세 때 정철의 일행 중 누군가가 왜군이 모두 물러갔다는 말을 했다는 모함을 받아 강화로 물러나게 되었음. 12월에 강화에서 졸함.	

정철이 자신의 정치사상에 관한 저서를 별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유학자로서의 성격을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러나 정철의 출처 과정을 통해 그가 처해 있던 정치적 상황, 현실대응 태도, 군신관 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또한, 서인의 정치적 입지의 확립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던 이이의 정치사상과 결합해서 정철의 정치사상을 이해해 보기로 한다.

먼저, 정치적 상황의 측면이다. 정철은 서인과 동인의 당쟁이 점차 격화되어 가고 서인이 주로 열세에 처해 있던 시기에 정치활동을 하였다.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인은 동·서 분파 당시에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었고 선조 14년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동인과 세력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그 뒤에 서인세력은 정여립의 모반사건을 계기로 득세하게 되었으나 곧바로 다시 열세에 몰렸다.[100] 따라서 정철이 정치활동을 할 때 서인은 당쟁 속에서 주로 열세에 있었으며 끊임없이 동인의 공격을 받았다.

다음으로, 현실대응 태도를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100) 정철 유배당한 후 양사의 계기가 계속되면서 윤근수, 윤두수, 홍성민(洪聖民), 이해수(李海壽), 장운익(張雲翼) 등 정철과 교분이 두터웠던 이들도 아울러 죄를 입고 멀리 귀양 가게 되었다. 그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철로 인해 관작을 삭탈당하거나 귀양 가게 되었다. 다시 서인 계열의 인사들이 조정에서 대거 밀려났던 것이다."黃廷彧, 黃赫, 尹斗壽, 柳根, 李山甫, 李洽, 任鉉, 金權, 黃愼, 具寃等. 竝坐公被劾. 洪聖民, 李海壽, 張雲翼等. 竝加罪遠竄. …"(「年譜下」, 『松江別集』 권3.)

① 손님이 물었다. "뜻을 이미 세웠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인이 대답하였다. "뜻을 세운 뒤에는 무실(務實)만 한 것이 없습니다." 손님이 물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대답하였다. "아침 내내 밥상을 차려도 조금도 배부르지 않는 것처럼 공허한 말만 있을 뿐 실질이 없다면 어찌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 경연의 자리와 상소하는 글에 나라를 다스릴 만한 좋은 지략과 곧은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단 하나의 폐단도 개혁되지 않고 단 하나의 정책도 시행되는 것을 볼 수 없으니 이것은 실질적인 효과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상께서 옛 도를 회복함으로써 잘 다스리는 방도를 구하고자 하신다면 마땅히 실질적인 효과에 힘쓰고 형식을 일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101] (『東湖問答·論務實爲修己之要』)

② 손님이 물었다. "이미 간사한 것과 바른 것을 분별하여 적임자를 얻어 정치를 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인이 대답하였다. "먼저 잘못된 법을 개혁하여 민생을 구해야 합니다."[102] (『東湖問答·論安民之術)』)

③ 손님이 물었다. "이미 폐단이 있는 법을 개혁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한 뒤에는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인이 대답하였다. "백성을 잘 기른 다음에 교화하는 것이 좋은데, 교화하는 방법으로 학교보다 우선할 것은 없습니다."[103] (『東湖問答·論敎人之術)』)

위의 내용은 이이가 자신의 정치사상을 서술한 『동호문답』 중의 일부를 가져온 것이다. 이이는 '정치의 방법과 실천'을 논한 첫 번째 장인 「무실이 수기의 핵심(論務實爲修己之要)」에서 실질에 힘쓰는 것이 수기의 요점임을 논하고

---

101) "主人曰. 立志之後. 莫如務實. 客曰. 何謂也. 主人曰. 終朝設食. 不得一飽. 空言無實. 豈能濟事. 今夫 經席之上. 章奏之間. 非無嘉謀讜論. 足以治國. 而未見一弊之革. 一策之施者. 只是不務實效故也. 今我主上. 必欲求治. 以復古道." (정재훈 역해(2014), pp.88-97.)

102) "客曰. 旣辨邪正. 得人而爲政. 則政將何先. 主人曰. 先革弊法. 以救民生." (정재훈 역해(2014), pp.108-134.)

103) "客曰. 旣革弊法. 以安斯民. 則復何所事. 主人曰. 養民然後. 可施敎化. 設敎之術. 莫先於學校." (정재훈 역해(2014), pp.135-149.)

있다. 이이는 왕도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뜻을 세우는 입지(立志)가 우선되어야 하며, 입지 이후에 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입지를 세운 뒤에는 형식보다 실질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 장에서 무실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격물치지(格物致知)·성의(誠意)·수신(修身)·효친(孝親)·치가(治家)·용현(用賢)·거간(去奸)·보민(保民)·교화(敎化)이다. 이 순서를 보면 무실을 중시하는 이이가 백성을 교화하는 것(敎民)보다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것(養民)을 가장 급선무로 본 것을 알 수 있다. ②와 ③의 내용을 통해 이이가 역시 입지, 수기, 용현을 하고 나서 정치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차후로 백성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학십도(聖學十圖)』와 같은 이황의 저서는 현실의 문제를 많이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현실의 문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보다 자기 수양을 통한 개인의 자각이 더 근본적인 사회 문제의 해결책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동호문답』과 같은 이이의 저서는 경세에 대한 방법과 당시의 여러 가지 폐법(弊法)을 논한 것으로서 이이의 사회개혁 방안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이이는 많은 시폐소(時弊疏)를 올렸다. 한마디로, 이이는 이상적 윤리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무실(務實)의 정신으로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것을 주요 관심사로 삼았던 것이다.

정철 역시 서인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이의 이론적 기반에 따라 무실의 정신으로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것을 주요 관심사로 삼았을 것이다. 기실 정철은 강원도 관찰사의 자리에 있을 때 창작한 「훈민가」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마치 그가 백성의 교화에만 힘썼을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소(疏)와 유문(諭文) 등의 글도 많이 남겼다. 예컨대 강원도, 전라도 관찰사에 있을 때는 도내의 세액, 부역 등 여러 면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한 상소를 임금에게 올려[104]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고 한

104) "思所以布德意而救民瘼. 荒崖絶谷. 無所不到. 惟恐精神有限. 而耳目不逮. 委定官吏. 分行列邑. 州縣利病. 閭里慘舒. 與夫徭役之煩簡. 稅入之輕重. 編戶之多寡. 田野之迂闊. 悉令咨訪而集衆思. 類考會究. 無名之稅. 非理之斂. 凡可以便宜從事者. 方且一面釐革. 以副聖上憂勤側席之念. 科條率多繫於上供. 損益或有關於有司. 有非微臣所能擅斷者. 則不得不爲殿下言之. 伏覩. …" (「江原監司時陳一道弊瘼疏」, 『松江續集』 권2, 한국문집총간 46, p.200.)

"又分遣長吏. 廣詢民瘼. 若其徭役之不均. 賦稅之或重者. 初非朝家之意. 而一出於汚吏之手. 例爲因循者. 則皆當一切釐革. …" (「全羅監司時陳弊疏」, 『松江續集』 권2, 한국문집총간 46, p.202.)

다.[105] 또한, 그가 강원도에 있을 때 중국 진덕수(眞德秀)의 『정경(政經)』의 유문(諭文) 2편을 재편집하고 자신의 견해를 붙여 「유읍재문」을 저술하였다. 「유읍재문」은 중국 주자학자의 정치론에 많이 의존하면서도 조선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특징을 가졌다. 정철은 「유읍재문」에서 조선의 현실을 주목하고 목민관의 자세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지방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계획이기도 하였다.[106] 그리고 정철은 함경도에 부임하기 전에 임금에게 상소를 올려 정치적 폐단을 개혁해 줄 것을 간절히 청하였다.[107] 이러한 사실을 보면 정철은 훈척정치 아래에서 파생된 많은 사회적 모순과 병폐(病弊)를 개혁하며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백성을 교화하고자 한 그의 마음 못지않게, 심지어 그러한 마음보다 현실의 과제 해결을 위한 개혁을 간절히 하고자 한 그의 마음을 더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듯하다.

---

105) "以鄭澈為江原道觀察使, 澈自處大諫之後, 休官不出, 屢辭召命, 及拜是職, 以追榮先人為重, 乃拜命赴任. 盡心民隱. 詢訪無遺. 敦尙敎化. 旌淑殫惡. 東民聳動." (李珥, 「經筵日記」, 萬歷八年, 庚辰條.) "特旨除全羅道觀察使. 公旣到任, 摠計道內貢案, 徭役, 均一詳定, 民甚便之, 公去後還廢.…"(「年譜上」, 『松江別集』 권2.)

106) 정철이 목민관으로서의 소임을 밝힌 「유읍재문(諭邑宰文)」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몸을 갖되 염치로 하고, 둘째 백성을 무마하되 인으로써 하며, 셋째 마음먹기를 공명하게 하여야 하며, 넷째 일에 임하여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정철은 목민관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열 가지 행위에 대하여 부록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1. 송옥의 판단을 공정하게 못하는 것. 2. 송사를 청취하며 사실을 살피지 못하는 것. 3. 죄수의 구금을 지연시키는 것. 4. 참혹하게 형을 사용하는 것. 5. 중첩으로 세납을 독촉하는 것. 6. 벌과금으로 재물을 착취하는 것. 7. 좌상을 확대시키고 추후 계속 호출하는 것. 8. 고알(告訐)함을 초인하는 것. 10. 가격을 싸게 하여 물건을 사들이는 것. "蓋聞爲政之本. 風化是先. 今欲因俗迪之於善. 爲文諭告. 俾興孝悌之行. 厚族隣之恩. 不幸有過. 許之自新. 若夫推此意而達之民. 則令佐之責也. 繼今邑民. 以事至官. 願不憚煩而諄曉之. 感之以至誠. 持之以悠久. 必有油然而興起者. 若民間有孝行純至. 友愛著聞與夫叶和親族. 賙濟鄕閭. 爲衆所推者. 請采訪以上. 優加褒勸. 至於聽訟之際. 尤當以正名分厚風俗爲主. 昔密學陳公襄爲仙居宰. 敎民以父義母慈兄友弟恭. 而人化服焉. 古今之民. 同一天性. 豈有可行於昔. 而不可行於今. 惟毋以薄待其民. 民亦將不忍以薄自待矣. 此某之所望也. 然而正己之道未至. 愛人之意不孚. 則雖有敎告. 而民未必從. 故某願各以四事自勉. 而去其十害. 何謂四事. 曰..." (「諭邑宰文」, 『松江別集』 권1, 한국문집총간 46, p.236.)

107) "除咸鏡道觀察使. 疏陳時弊. 疏逸不錄. 答曰. 奇哉卿說. 今卿遠離朝廷. 故有此忠懇之言也. 予當留念. 其往欽哉."(「年譜上」, 『松江別集』 권2.)

그렇다면 정철의 출처관은 어떠한가?

> 객이 말하기를, "선비가 이 세상에 태어나 경국제민으로써 뜻을 삼지 않는 이가 없으니, 뜻과 하는 일이 동일해야 하거늘, 어떤 이는 벼슬길에 나아가 그 뜻을 실천하고, 또 어떤 이는 물러나 그 뜻을 스스로 지킴은 무슨 까닭인가?" 주인이 말하기를, "선비의 '겸선'은 진실로 그 원하는 바이거늘, 물러나 '자수'하는 것이 어찌 그 본심이겠는가. 때의 만남과 못 만남이 있을 따름이다."[108] (『東湖問答·論臣道』)

위의 인용문에서 "선비의 겸선은 진실로 그 원하는 바이거늘, 물러나 자수하는 것이 어찌 그 본심이겠는가."라는 말로부터, 현실참여를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이이의 출처관을 분명하게 살필 수 있다. 이이는 경국제민이 군자의 소원이기는 하지만 때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물러나지 않으면 구차한 것이 아니듯이 물러나는 것이 본심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성혼이 이이가 대사간(大司諫)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예전에 없던 일이라 비판하자, 이이는 이윤(伊尹)이 다섯 번이나 출처를 반복했다는 사실을 들어 성혼을 반박하였다.[109] 이를 통해 무실을 중요시했던 이이가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하는 출처를 지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철 역시 무실을 중요시하면서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출처를 지향하였다. 그는 일생동안 출처를 거듭하였다. 치인의 자리에 나아가 경국제민의 뜻을 실현하고, 현실과의 갈등과 같은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나 수신궁리(修身窮理)하는 일은 사대부 생애의 양면이다. 따라서 출사와 낙향을 반복하는 일은 유가사대부 사회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정철의 진퇴 횟수는 출처의리를 강조하던 사림의 기본 입장과 관련지어 볼 때 특히 잦았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당시의 당쟁이 심했다는 말이고 정치에 대한 정철의 욕망이 유난히 강했다는 말이기도 하다.[110] 이는 아마 물러나는 것이 본심은 아니라는 이이의

---

108) "客曰. 士生斯世. 莫不以經濟爲心. 宜乎心迹皆同. 而或進而兼善. 或退而自守. 何耶. 主人曰. 士之兼善. 固其志也. 退而自守. 夫豈本心歟. 時有遇不遇耳." (정재훈 역해(2014), pp.39-47.)

109) 李珥, 「經筵日記 二」, 앞의 책, 권29, p.684.

110) 박영주, 『송강정철평전』, 중앙M&B, 1999, pp.158-159 참조.

출처의리로 해명될 수 있다.

회성의 밤중에 봉영의 물소리 듣나니
백일홍 뽑아두고 임금께 절하고야.
자운궐에 닭 울음 새벽을 재촉하고
명월주의 학 그림자 가을에 외롭구나.
우로(雨露)의 은택은 먼지나 물방울만큼도 갚지 못하니
방외에서 만나자고 한 약속 아직도 더니네.
인간에 다행이 성군을 만나지어
십년동안 송강(松江)의 백구와 어긋났구나.
장안의 먼지 속에 분망한 나그네 자취
호탕했던 예전 기약은 모래 위에 가을이네.
요순의 일월이 바로 우리 조정
옥절이 강동에 이르니 맑은 노래 일어나네.
찬 호숫가에 새도 전송하는 정성을 알고
급류 속에 있으며 사직(辭職)이 더디다 하네.
성포 입은 학사의 반열에 해가 저물고
백로 꿈꾸는 운공(雲空)에 어부의 배리로다.
평평한 십리 모랫가에 비갠 후
삼추(三秋)에 료월(蓼月)의 그윽함이 도리어 우습구나.
강호의 맑은 흥취난들 어찌 없겠냐만
단지 천정의 은례가 두텁기 때문이네.
보잘것없는 신하 비록 일자(一字) 도움도 없지만
성상(聖上)께오선 기와 설 같은 이로 보시네.
나라 살림 꾀하는 진중한 납언(納言)의 처지라
이렇기에 나는 동화(東華)에 오래 머무나니
돌아가 강호에 떠다닐 계획은
바라건대 나라에 남은 빚 갚는 걸 기다려서.

晝省夜聽蓬瀛水, 手搴薇花拜靈脩.
鷄聲曉催紫雲闕, 鶴影秋孤明月洲.

涓埃未報雨露恩, 一約猶遲方外求.
人間幸逢聖明主, 十年松江違白鷗.
奔忙羈跡陌頭塵, 浩蕩前期沙上秋.
唐虞日月卽我朝, 玉節江東淸發謳.
寒湖鳥語曉送誡, 急流中人遲退休.
猩袍日晩學士班, 鷺夢雲空漁父舟.
平沙十里雨霽後, 回笑三秋蓼月幽.
江湖淸趣我豈無, 只緣天庭恩禮優.
微臣縱乏一字補, 聖恩看同夔契儔.
邦謨珍重納言地, 是以東華吾久留.
歸來一計泛泛計, 庶待邦家餘債酬.[111] (「聖恩歌 答江湖白鷗」)

위의 「성은가 강호의 백구에게 답하다(聖恩歌 答江湖白鷗)」를 통해서도 정철이 적극적으로 출사를 지향했음을 엿볼 수 있다. 정철은 이 작품에서 자신이 자연으로의 귀향(歸鄕)을 추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한편, 자신이 "천정(天庭)의 은례(恩禮)" 때문에 그렇지 못한다고 하였다. "돌아가 강호에 떠다닐 계획"은 "나라에 남은 빚 갚는 걸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다. "천정의 은례"나 "나라에 남은 빚"이란 다음 아닌 '성은(聖恩)'이다. 곧 임금에 대한 충심이 그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것이다. 유교사대부에게 임금은 경국제민의 상징적 실체이다. 여기서 그가 임금에 대한 충심을 표명하면서 자연에의 귀의(歸依)보다 경국제민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토록 임금을 사랑하고 현실을 지향하였기 때문에 그는 "십년동안 송강(松江)의 백구와 어긋났"고 "급류 속에 있으며 사직(辭職)이 더디다"하"였다.

또한, 그는 물러날지라도 항상 임금과 조정을 근심하고 있었다. 예컨대, 「양벽정(漾碧亭)」에 "별과 달 하늘에 가득한데 술이 갓 깨었네. 붉은 잎과 노란 꽃이 양벽정이여. 꿈 속에 신정전 선명하니 옥류(玉旒)에 팔짱기고 정녕코 말씀하시네(滿天星月酒初醒, 赤葉黃花漾碧亭. 夢裏分明宣政殿, 玉旒高拱語丁寧)."[112]라

111) 「聖恩歌 答江湖白鷗」, 『松江別集』 권1, 한국문집총간 46, p.227. 김진욱의 번역문을 참조한다. (김진욱, 『송강 정철 문학의 재인식』, 역락, 2004, p.220.)

는 시구가 있다. 그에게 있어서 자연은 즐기면서도 임금을 그리는 근심을 동반하고 있어서 유유자적하지 못하는 곳이다. 자연에 처해 있어도 경세(經世)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고 임금을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 유교의 가르침이지만 정철은 현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깊었던 것이다.

이제 정철의 상대세력에 대한 태도를 살펴볼 차례이다. 이 점 역시 이이의 보합론과 관련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지금 시사(時事)에 대하여 말씀드릴 것이 많으나 우선 먼저 가장 절실하고 급한 것을 논하겠습니다. 신이 듣건대, 예로부터 국가가 믿고 유지하는 것은 사림(士林)이라 합니다. 사림은 나라의 원기(元氣)라, 사림이 성하고 화합하면 그 나라는 다스려지고, 사림이 과격하고 분열되면 그 나라는 어지러워지며, 사림이 패하여 다 없어지면 나라는 망하는 것이니, 지나간 일이 사적(史籍)에 밝게 실려 있습니다.[113]

무실을 중시하는 이이는 당파를 화해시켜 조화롭게 합하려는 보합론(保合論)을 주장하였다. 시비를 확정하기 전에 사림이 조화롭게 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출처의 태도가 적극적인 것과 함께 상대세력에 대한 태도 역시 포용적이었던 것이다. 그는 사림을 통합하는 일이 가장 절박한 일이라고 판단하였다. 사림이 우세해진 당시였지만 여전히 훈척정치 아래에서 파생된 많은 사회적 모순과 병폐(病弊)가 있었다.[114] 따라서 이러한 모순과 병폐를 개혁하여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이의 무실 정신은 자연스레 그로 하여금 보합론을 제기하도록 이끌었다.

정철도 마찬가지로 사회의 문제를 개혁하고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정철 또한 동서를 화합시키고자 하였다. 정철은 동인 이발과의 갈등이 거의 화합불능 상태에 이르기 전에 이이에게 동서 간의

---

112) 「漾碧亭(약벽정)」, 『松江原集』 권1, 한국문집총간 46, p.143. 김진욱의 번역문을 참조한다. (김진욱(2004), pp.231-232.)

113) "竊思政治得失. 系於士林. 士類調和. 合而為一. 而就其中激濁揚清. 是是非非. 然後朝廷可靖. 而事業可興矣." (李珥, 「辭大司諫疏」, 앞의 책, 권7, p.141.)

114) 정만조, 「16세기 사림계 관료의 붕당론」, 『한국학논총』 12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0, p.114.

화합을 부탁한 적이 있었고, 이이의 간절한 권유로 동인과 교도를 맺고 대립을 진정시키려고 애쓴 적도 있었다.[115] 그의 「신년축(新年祝)」이라는 시[116]에서도 동서와 남북이 한 마음으로 승평을 누리는 것을 기원한다고 하여 사림의 통합을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었다.

그러나 서인이 열세에 처해 있었던 현실에서 그가 서인의 입지를 확보하고 서인의 정치사상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강경한 태도로 동인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많았다. 그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이 등으로 대변되는 서인이 항상 동인과의 통합을 꾀하려고 했던 데 반해, 정철은 동인에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때가 많았다. 정철이 40세 때 이이가 자신이 김효원 등을 탄핵할 것을 청한 것을 듣지 않자 물러나게 된 일, 또 그가 정여립 모반사건을 다스릴 때 조정의 상하 관료 중 연루되어 화를 입은 자가 많았으며 특히 동인에서 화를 입은 자가 많았던 기축옥사(己丑獄事) 등은 이에 대한 좋은 예시이다.[117] 정철은 이이와 마찬가지로 서인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들보다 동인에 대응하는 태도가 다소 강경하였다. 이것은 양쪽이 화합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 세력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서인의 입지를 확보할 수 없다는 그의 형세 판단 때문이지 않을까 여겨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동인의 공세가 갈수록 강해지고 이이 같은 인물조차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을 보면 정철의 주장이 타당한 면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상대세력에 대한 정철의 태도는 서인 전체보다 강경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현실대응 태도라는 큰 틀에서 볼 때에는 서인 전체의

115) "是時. 朝議尙未和協. 諸公咸願栗谷勉留調劑. 公意亦然." (「年譜上」, 『松江別集』 권2.)
"栗谷每謂公曰. 公與李潑. 論議和協. 同心調劑. 則士林庶可無事. 言之甚切. 公感栗谷之言. 遂回所見. 與潑定交. " (「年譜上」, 『松江別集』 권2.)

116) "새해에 비나이다 새해에 비나이다. 신년에 비는 바 조정이 말아져서. 동서남북 붕당일랑 모두 쓸어내고. 일심으로 공경하고 협력하여 태평성대 지어내기를. (新年祝新年祝 所祝新年朝著淸 痛掃東西南北說 一心寅協做昇平)." (「新年祝 五首 · 其一」, 『松江原集』 권1, 한국문집총간 46, p.148. 김진욱의 번역문을 참조한다. (김진욱(2004), pp.216.)

117) "自己丑十月至此. 凡十二月. 前後死者數百人. 朝臣名官. 死者十余人. 緣坐留配者. 幾百人. 朝臣被竄者. 鄭彦信金宇顒洪宗祿等數人. 罷黜者數十人. 此則皆當初抉遺也. 庚寅春. 獄事已了. 而廟盜獄間發. 其後續有告密者. 再設庭鞫省鞫. 越三年乃止." (『宣祖修正實錄』 권25, 二十四年 辛卯 五月條. 최태호, 『송강문학론고』, 역락, 2000, p.25 재인용.)

태도와 공통점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의 현실대응 태도는 서인 전체의 태도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철의 군신관은 어떠한가?

정철의 군신관은 서인을 포함한 당시 사람의 군신관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성리학에 바탕을 두고 어느 때보다도 군주의 도덕을 중시하고 '성학'을 강조했던 사림은 군주가 삼대의 성왕처럼 신하를 사우로 삼고 함께 학문을 연마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당시 학자들의 저술처럼 정철이 쓴 책문(策文)에서도 격군심(格君心)·법성현(法聖賢) 등 임금의 심학과 관계된 내용을 언급하였다.[118] 따라서 그는 일반적인 사림처럼 군주가 존중하는 사우가 되는 것을 동경하였다. 한편, 사림은 군주의 사우가 되는 것이 이상이지만 그러한 대접을 받지 못해도 군주에게 충성하고 군주의 권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이끌 때 군주를 공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철이 연군의 내용을 담은 수많은 국문시가와 한시를 남겨서 임금에 대한 충을 유난히 강조한 작가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바이다. 앞의 「성은가 강호의 백구에게 답하다」라는 시에서도 자신이 임금에게 충성한 신하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보면 정철은 일반의 사림처럼 군신관계의 양면적인 성격을 다 지향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현실대응 태도와 군신관계를 비롯한 정철의 정치사상은 서인 전체의 정치사상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정철은 이이 등 서인과 평생의 친구이자 정치무대의 동반자였다. 그들과 진지한 학문적 대화를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의논하면서 서로 의지하였다.

지금까지 굴원과 정철의 생애를 살펴보았다. 굴원은 개혁파로서 신·구세력의 투쟁에서 계속 열세에 처해 있었으며, 정철은 서인으로서 서인이 주로 열세에 처해 있던 시기에 정치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정치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두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적 기반, 현실에 대한 태도, 군신관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

118) "王若曰. 皇降下民. 若有恒性. 治而敎之. 責在君師. 三代之上. 士習美而人心正. … 殿下事必師古. 圖克永世之聖心也.…又按大學之書曰. 堯舜率天下以仁. 而民從之. 桀紂率天下以暴. 而民從之. 然則吾民之正. 不在於殿下之正心乎. 吾民之從. 不在於殿下之求仁乎. 求仁之要. 在於正心. 正心之要. 在於格致. 格致之功. 在於敬義. 伏願殿下敬以直內. 義以方外. 用工於心術隱微之間." (「明廟壬戌別試殿策」, 『松江別集』 권1, 한국문집총간 46, p.253.)

첫째, 사상적 기반에서 차이를 보인다. 굴원은 일가를 형성하였는데 정철은 유교사상을 지배적인 이념으로 삼았다.

둘째, 현실에 대한 태도가 차이를 보인다. 우선, 주요 관심사가 달랐다. 굴원은 왕족신분으로 인해 생긴 애국심 때문에 자국인 초나라에서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철은 이이처럼 조선을 유가적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실(務實)의 정신으로 백성을 먹여 살리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의 출처관 또한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굴원은 애국 때문에 이상과 현실의 갈등에 봉착해도 초나라를 지켰으나 정철은 사림, 특히 이이의 출처의리에 따라 적극적으로 출사하거나 물러나게 되더라도 조정과 임금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상대 세력에 대한 태도의 측면이다. 굴원은 애국 때문에 상대세력과 전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대항하였다. 그러나 정철은 강경할 때도 있지만 일반의 사림처럼 물러설 때도 있고 이이처럼 상대세력과 화합할 때도 있었다.

셋째, 군신관이 차이를 보인다. 굴원은 임금의 사우로 자임하는 것을 견지하면서도 애국 때문에 초왕에게 충성하였다. 그러나 정철은 사림으로서 군주의 사우가 되는 것이 이상이지만 그러한 대접을 받지 못해도 군주에게 충성하고 군주의 권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이끌 때 군주를 공경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요컨대 굴원과 정철의 사상, 현실대응 태도, 군신관을 보면, 굴원은 중국 전국말기의 애국자였다고 할 수 있으며, 정철은 16세기 조선에서 서인 전체의 정치사상에 가까운 서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굴원은 왕족으로서 개인의 상황이 일반적인 ‘사’의 존재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강한 애국심을 가졌다. 그는 중국 전국말기의 일반적인 '사'의 정치원칙과 애국의 정신을 융합하여 자신의 정치사상을 만들었다. 정철은 16세기 조선 사림의 일반적인 정치원칙을 바탕으로 서인 전체의 정치사상과 많은 공통점을 가졌다.

Ⅲ. 화자와 임금에 대한 태도

화자는 '어떻게 말하는가'의 문제와 연결되는 문학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을 작품의 화자로 설정함으로써 문학적 효과를 극대화한다.[119] 따라서 작가가 어떤 화자를 선택했는가를 살피는 것은 그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이소」와 「전후미인곡」의 화자는 임금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시가에서 많은 경우 작가는 자신의 성별과 동일한 화자를 설정한다. 그런데 작가가 자신의 성별과 다른 화자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고대의 사대부가 정치적 좌절을 겪을 때 창작한 시가 가운데에는 작가 자신과 성별이 다른 화자를 설정하여 임금에 대한 태도를 강조하는 작품이 많다. 굴원의 「이소」와 정철의 「전후미인곡」 모두 작가가 자신과 다른 성별의 화자를 설정한 작품이다. 이들 화자는 임금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이소」와 「전후미인곡」에 나타난 임금에 대한 태도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요소라 볼 수 있다. 본장에서는 「이소」와 「전후미인곡」의 화자 및 관련 설정에 내포된 임금에 대한 태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이소」

「이소」는 회왕과 사이가 멀어지고 죄도에서 파면되기 전에 굴원 자신의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소」의 화자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따라서 「이소」에 나타난 화자의 성별을 정확히 판단하고 화자의 설정에 내포된 임금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보고 논의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소」의 화자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남성화자와 여성화자가 혼재하고 있다는 논의가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119)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7, p.278.

반소룡(潘嘯龍), 매경림(梅瓊林) 등이 남송의 주희(朱熹)의 주석을 바탕으로 이를 제기하였다. 「이소」에 여성화자가 등장한다는 주장은 주희가 처음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주희는 단지 어떤 단어를 주석하면서 그 구절이 여성화자라고 했지만, 작품의 어느 대목이 여성화자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반소룡, 매경림 등은 이를 발전시켜 「이소」에 남성화자와 여성화자가 어떻게 혼재되어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반소룡과 매경림은 「이소」에서 조정에 있는 일과 조정에서 물러난 후 초야에 있는 일을 서술하는 부분(1행~65행)의 화자가 여성이고, 누나인 여수(女嬃)와의 대화로 시작된 나머지 부분(66행~188행)의 화자가 남성이라고 주장하였다.[120]

둘째, 「이소」에 여성화자가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주장이 있다. 유국은(遊國恩)은 주희의 주석을 바탕으로 이 주장을 제기하였다. 유국은은 그의 저작에서 「이소」에 나타난 미인, 향초(香草), 중매자 등 여러 소재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여 여성화자가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121]

셋째, 남성화자가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주장이 있다. 조규부(趙逵夫)와 같은 현대의 초사 연구자는 「이소」에 여성화자가 있다는 논의를 반박하고 「이소」에 남성화자가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122]

이처럼 「이소」의 화자에 대한 논쟁의 초점은 주로 여성화자가 있는가, 여성화자가 있으면 전문에 나타나는가, 아니면 어느 대목에 나타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소」에 여성화자가 등장하고 있는가? 여성화자가 등장한다면 어떤 대목에서 어떻게 등장하는가?

이에 본고에서는 화자의 성별을 시간대에 따라 나누어 보려고 한다. 「이소」와 「전후미인곡」의 내용은 다 과거에 대한 회억, 현재의 감회, 미래의 다짐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시간에 따라 전개된다. 화자의 성별을 시간대에 따라 나누어 보면 「이소」와 「전후미인곡」의 화자의 차이와 그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보다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소」는 총 188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1행~53행은 과거에 대한 회억, 54행~185행은 현재의 감회, 186~188행은

120) 주희, 앞의 책, pp.10, 12; 潘嘯龍, 앞의 논문; 梅瓊林, 앞의 논문.

121) 遊國恩, 앞의 책, pp.1-13.

122) 趙逵夫, 「「離騷」的比喻和抒情主人公的形貌問題」, 『中國社會科學』, 1992.

미래의 다짐을 노래하고 있다. 먼저 과거를 회억하는 부분의 화자를 분석해 보자.

남성화자가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에 따르면 과거를 회억하는 부분의 화자는 일관되게 남성이다. 한편, 여성화자가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거나 과거를 회억하는 부분과 초야에 있는 일을 서술하는 부분(1행~53행+54행~65행)에 여성화자가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의 화자는 일관되게 여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부분에 어떤 성별의 화자가 나타나는가? 과거를 회억하는 부분은 주로 자기소개(1행~12행), 임과 이별하게 된 과정을 회억하는 것(13행~25행), 임과 이별하게 된 원인(26행~53행)을 회억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자기소개를 하는 부분을 보자.

저는 고양 임금[123]의 후손이자
저의 돌아가신 아버지는 백용(伯庸)이십니다.
인(寅)의 해 바로 인의 달인 정월, 그달 경인(庚寅)날
저는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갓 태어났을 때의 풍채를 살피시고
점을 쳐 이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정칙(正則)이라 하시고
자(字)를 영균(靈均)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이러한 타고난 아름다운 자질을 가진데다가
수양에 힘썼습니다.
강리(江離)와 외진 곳에서 자라는 백지(辟芷, 구릿대)를 둘렀으며
가을 난초를 엮어 노리개로 찼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처럼 빨라 따라잡을 수 없으니
나를 기다려주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아침에는 산비탈에서 목란을 꺾으며
저녁에는 물가의 모래톱에서 숙망(宿莽, 숙근초)을 캡니다.
해와 달은 한시라도 멈추지 않고

123) 권용호의 번역책에서는 '高陽(고양)'을 '하늘의 신 고양'으로 번역했지만 여기서 '고양 임금'으로 번역한다. '고양'은 중국 전설에 나오는 삼황오제의 하나인 전욱(顓頊)을 지칭하는 것이다. (司馬遷, 「五帝本紀」, 앞의 책.)

봄과 가을은 끊임없이 돌며 이어집니다.
초목이 시들어 떨어질 것 생각하니
미인 늙어 가시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어찌 젊었을 때의 그릇된 행동들을 버리지 않으십니까?
어찌 이런 모습을 고치지 않으십니까?
준마 타고 마음껏 달리십시오.
제가 앞에서 인도해드릴 테니.[124]

帝高陽之苗裔兮, 朕皇考曰伯庸.
攝提貞于孟陬兮, 惟庚寅吾以降.
皇覽揆余于初度兮, 肇錫余以嘉名.
名余曰正則兮, 字余曰靈均.
紛吾既有此內美兮, 又重之以修能.
扈江離與辟芷兮, 紉秋蘭以為佩.
汩余若將不及兮, 恐年歲之不吾與.
朝搴阰之木蘭兮, 夕攬洲之宿莽.
日月忽其不淹兮, 春與秋其代序.
惟草木之零落兮, 恐美人之遲暮.
不撫壯而棄穢兮, 何不改乎此度?
乘騏驥以馳騁兮, 來吾道夫先路.[125] (1행~12행)

자기소개를 하는 부분에서 먼저 화자는 자신의 비범한 출생을 소개하며 자신의 재덕을 자랑하고 있다. 화자는 첫머리에서부터 자신이 고양 임금[126]의 후손

124) 본고에서는 주로 권용호, 『초사』, 글항아리, 2015, pp.23-56. 를 참고하여 「이소」를 번역한다. 그 중에 정확하지 않거나 어색한 표현을 바꾸고 의역을 직역으로 바꿀 것이다.

125) 「이소」의 원문은 모두 朱熹의 『楚辭集注』를 인용한다.

126) 高陽(고양): 『사기·초세가)』에 의하면, 고양은 전욱(顓頊)을 지칭하는 것으로 초나라의 조상이다. 고양의 후손인 계련(季連)은 성이 '미(羋)'인데 초나라의 시조이다. 주문왕(周文王) 때 계련(季連)의 후손 중에 육웅(鬻熊)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육웅은 문왕(文王)을 모시다가 일찍 죽었다. 주성왕(周成王)은 웅역(熊繹)이 문왕 때 왕실을 위하여 힘쓴 공신의 후손임을 들어 융역을 초국(楚國)에 봉하였다. ("楚之先祖出自帝顓頊高阳.… 熊繹當周成王之時, 擧文, 武勤勞之後嗣, 而封熊繹於楚蠻, 封以子男之田, 姓羋氏, 居丹陽." (司馬遷, 「楚世家」, 앞의 책, 권40.)

이라며, 왕족이라는 자신의 고귀한 신분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인년(寅年)·인월(寅月)·인일(寅日)이라는 범상치 않은 출생일을 과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이러한 자신의 출생에 맞게 '정칙(正則)'과 '영균(靈均)'이라는 탁월한 이름과 자(字)[127]를 지어주셨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화자는 자신이 신분뿐만 아니라 출생 시간과 이름에서조차도 모두 비범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선천적으로 재능과 품성이 우월한[內美]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이 대목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재덕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인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이어서 자신이 훌륭한 자질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인생관을 지켜왔음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신이 탁월한 선천적 재덕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도 이러한 자질을 닦아나갔다[修能]"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강리(江離), 벽지(辟芷), 난초(蘭草)[128] 등 향초(香草)를 몸에 장식하였다. 그리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목란(木蘭), 숙망(宿莽)[129] 같은 향초를 수집하였다. 향초란 무속에서 정결성의 상징이다. 무(巫)들은 향초로 옷을 해 입고 향초를 먹고 향초물에 목욕하기도 한다.[130] 「이소」에서는 화자가 향초를 몸에 걸치고(6행, 36행, 37행), 향초를 먹고(34행), 향초를 가꾸는 데다(26행, 27

127) 왕일의 『초사장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정(正)은 평(平)이고 칙(則)은 법(法)이다. 영(靈)은 신(神)이고 균(均)은 조(調)이다. 바르고 평평함은 법규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하늘보다 더한 것이 없다. 사물을 기르는 데 고루 알맞게 함은, 땅보다 특출난 것이 없다. 높이 솟은 평지를 원(原)이라하므로, 부친인 백용(伯庸)은 나의 이름을 평(平)이라 하여 하늘을 본받게 했고, 나의 자(字)를 원(原)이라 하여 땅을 본받게 하였다. 자기야말로 위로는 군주를 편안히 할 수 있고, 아래로는 백성을 기를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 正, 平也. 則, 法也. 靈, 神也. 均, 調也. 言正平可法則者, 莫過於天, 養物均調者, 莫神於地. 高平曰原, 故父伯庸名我爲平以法天, 字我爲原以法地. 言己上之能安君, 下之能養民也." (王逸, 「離騷經章句」, 앞의 책, 권1.)

128) 江離(강리): 오늘날 궁궁이(芎藭)라고 불리는 식물로 특별한 향기와 맛을 가지고 있음. 예로부터 "그 잎은 향기로워 정원에 심어 놓으면 향기가 가득한" 매우 중요한 향과(香科)식물이다. 辟芷: 辟(벽), '僻(벽)'과 같은 글자로, 고요하고 외진 곳을 칭함. 芷(지)는 오늘날의 백지(白芷)이다. 蘭(란): 택란류(澤蘭類)에 속하는 식물로 대부분 낮은 습지에서 자란다. 택란류의 잎은 향기로우며, 기름에 볶아서 향료를 만든다. (潘富俊, 『楚辭植物圖覽』, 上海書店出版社, 2003, p.17, 19, 21.)

129) 木蘭(목란): 목란과 식물의 꽃은 대다수 꽃의 색깔이 선명하고 향기가 농후하다. 宿莽(숙망): 숙근초. (潘富俊, 앞의 책, p.23.)

130) 김인호, 『초사와 무속』, 신아사. 2001, p.100.

행), 향초를 캔다(8행, 91행). 작가 굴원이 초나라에서 성행한 무속의 영향을 받아 고결한 성품과 뛰어난 능력을 향초에 비유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강리 등 향초를 몸에 장식했다거나 목란 등 향초를 수집했다는 것은 다 화자가 아름다운 자질을 유지하기 위해 인격과 재능을 부지런히 수양해 왔다는 말이다. 이를 통해 화자가 원대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자는 이러한 인생관을 지켜온 이유가 천리마를 타고 달리는 임의 앞길을 인도해 드리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곧 그의 인생목표 때문이라고 한다. 그가 수신(修身)을 하며 기다리는 세월은 한없이 흘러만 가니, 초목이 시들어 떨어질 것을 생각하며 떠오른 걱정이란 바로 미인(美人), 곧 임의 늙어감이다. 그렇다면 화자가 임의 늙어감을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임이 아직 온건한 품성으로 고쳐지지 않았으며 화자와 함께 목표를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임이 더 늙기 전에 품성이 아름다운 사람, 즉 진정한 미인이 되어서 천리마를 타고 달려, 자신이 앞길을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천리마를 타는 사람을 위해 앞길을 인도하고 용맹을 과시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의 태도에 가까운 것이기에 이 대목의 화자가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

옛날 세 분의 선대 임금께서는 덕이 순수하시어
실로 많은 방초가 모였습니다.
신초(申椒)와 균계(菌桂)도 섞여 있었으니
어찌 저 혜초(蕙草)와 백지로만 꿰차겠습니까?
요임금과 순임금께서는 바르고 곧으시어
정도(正道)를 따라 길을 나아갔습니다.
걸(桀)과 주(紂)는 얼마나 방종을 일삼았습니까.
그들은 그릇된 길에 빠져 허둥대며 걸었습니다.
저 당파를 이룬 무리들 향락만 추구하니
그들의 길은 어둡고 좁아 위험천만할 것입니다.
제가 어찌 화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임금 수레가 엎어지는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저는 임[131]을 앞뒤에서 열심히 보살피고

131) 권용호의 번역책에서는 상대방을 '폐하'라고 한다. 그러나 작품에서 화자가 직접 상대방을 '폐하'

선왕 폐하의 자취를 따르고자 했습니다.

昔三後之純粹兮, 固衆芳之所在.
雜申椒與菌桂兮, 豈維紉夫蕙茝?
彼堯舜之耿介兮, 既遵道而得路.
何桀紂之猖披兮, 夫唯捷徑以窘步.
惟夫党人之偷樂兮, 路幽昧以險隘.
豈余身之憚殃兮, 恐皇輿之敗績.
忽奔走以先後兮, 及前王之踵武. (13행~18행)

이 대목은 자신이 임과 이별하게 된 원인을 회억하는 부분의 서두인데 이 대목에서 화자는 자신이 임과 국가를 위해 온 힘을 다했다는 정치태도를 표명하고자 한다. 화자가 그러한 인생목표를 가지게 된 것은 옛 성왕이 도리를 지키고 향초인 인재들을 등용해서 천하의 치세를 만들었던 반면, 옛 혼군(昏君)은 덕이 없어서 나라를 망하게 했다고 생각하며, 고국의 소인배가 안락함을 좇아서 나라에 재앙을 초래할까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임의 "임금의 수레"가 엎어지지 않고 임이 선왕(先王)의 발자취를 따르시게 하기 위해 자신이 안위를 무릅쓰고 수레 앞뒤를 바삐 끌며 보살폈다고 한다. 여기서 "황여가 엎어진다."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고, "임이 선왕의 발자취를 따르시게 한다."는 것은 임이 전대 성왕(聖王)을 본받는다는 뜻이다. 화자는 자신이 관직에 있었을 때 임이 옛날 성왕처럼 국가를 잘 다스리도록 돕기 위해 개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바쁘게 일하던 일을 회상하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화자는 명백하게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가 왕을 인도할 수 있는 스승이라고 자부하는 남성정치가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의 내용을 다시 돌아보면 화자가 추구하는 목표의 비유적 의미는 바로 임이 현군이 되어 자신의 지도하에 미정(美政)을 실현하는 것이다. 임이 천리마를 타고 달린다는 것은 임이 현군(賢君)이 되어 정신을 가다듬어 나라를

라고 부르지 않는다. 특정 부분에서 화자가 상대방을 '영수(靈修)', '전(荃, 향초 이름)'이라고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영수나 전이라는 말이 나타나는 부분을 번역할 때는 상대방을 영수이나 전이라고 칭한다. 다른 부분을 번역할 때는 상대방을 '임'이라고 한다.

잘 다스리는 것을 비유하고, 자신이 앞길을 인도하는 것은 자신이 현신(賢臣)으로서 임이 전대의 성왕처럼 올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하는 것을 비유한다. 이 목표가 남성정치가인 화자의 정치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작가 굴원이 임금과의 과거를 회억한 부분(1행~53행)에서 처음에는 남성화자로 자신의 타고난 재덕, 인생관, 정치목표, 정치태도를 돌아보았다. 굴원은 자신이 선천적으로 탁월한 재덕을 가지고 후천적으로도 이러한 자질을 닦아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초나라 임금이 현군이 되어 자신의 지도하에 미정을 실현하도록 돕고자 하였다. 또한, 그는 초나라 임금이 옛날 성왕처럼 국가를 잘 다스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소」에 여성화자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이 과거를 회억한 부분(1행~53행)에 여성화자가 일관적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한 것과 달리, 이 부분은 대부분 남성화자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이 부분의 화자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남성화자로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가? 왜 「이소」에 여성화자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이 이 부분에서는 유독 여성화자의 목소리가 일관적으로 들린다고 주장하였는가? 이는 화자가 갑자기 임을 영수(靈修)라고 부르는 다음의 두 대목에서 여성화자임을 분명하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저는 임을 앞뒤에서 열심히 보필하고
선왕 폐하의 자취를 따르고자 했습니다.
임께서는 저의 충정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참언을 믿고 대노하셨습니다.
저는 충언이 화를 부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참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忽奔走以先後兮, 及前王之踵武.
荃不察余之中情兮, 反信讒而齌怒.
余固知謇謇之為患兮, 忍而不能舍也. (19행~21행)

③ 저 하늘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 모든 것이 오직 영수만을 위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황혼 때 만나자고 말씀하시고
어찌 중도에 길을 바꾸셨네요.
애초에 저와 약속을 해놓으시고
나중에 마음을 바꿔 다른 생각을 가지셨네요.
영수와 이별하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영수의 잦은 변심에 마음이 아파요.

指九天以為正兮, 夫唯靈修之故也.
曰黃昏以爲期兮, 羌中道而改路.
初既與余成言兮, 後悔遁而有他.
余既不難夫離別兮, 傷靈修之數化.(22행~25행)

(2) 길게 숨을 내쉬고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도 모진 인생을 슬퍼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것에만 얽매여
아침에 간언을 올렸다가 저녁에 버림받았습니다.
제가 버림받은 것은 혜초를 찼기 때문이고
또 백지를 땄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이니
백 번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長太息以掩涕兮, 哀民生之多艱.
余雖好修姱以鞿羈兮, 謇朝誶而夕替.
既替余以蕙纕兮, 又申之以攬茝.
亦余心之所善兮, 雖九死其尤未悔.(40행~43행)

④ 영수의 어리석고
끝내 사람의 본심을 살피지 못한 것을 원망해요.
여인들은 저의 아미(蛾眉)를 시기하고
근거 없는 말을 지어내 제가 음탕한 짓을 잘 한다고 비방했어요.

怨靈修之浩蕩兮, 終不察夫民心.

眾女疾余之蛾眉兮, 謠諑謂余以善淫. (44행~45행)

위의 두 대목(③(19행~21행)과 ④(40행~43행)은 각각 임과 이별하게 된 과정을 회억하는 부분과 이별의 원인을 회억하는 부분에 들어 있다. (1)의 ③ 앞 대목(19행~21행)에서 화자는 임이 선왕(先王)의 발자취를 따르시게 하려고 임의 앞뒤에서 열심히 보필하지만 임이 오히려 참소를 믿고 노여워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간언이 화를 부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이소」의 서두부터 여기까지 화자는 여전히 남성정치인의 말투로 임과 이별하게 된 과정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재덕을 표방하고 임을 비판한다.

그러나 뒤의 ③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유는 '영수'를 위한 마음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주희는 영수란 "상대방이 현명하고(靈) 자신을 잘 장식하다(修)"는 뜻으로 여자가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 부르는 말이라고 한다. 산귀(山鬼)가 애인을 기다리고 있는 심정을 노래하는 굴원의 「산귀」에 "영수를 평안히 머무르게 하여 돌아갈 것을 잊게 하고 싶지만, 이 몸 이미 늙었으니 누가 나를 다시 꽃피울까."[132]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영수란 작품에 나타난 '공자(公子)' ·'낭군(君)'[133]처럼 여성인 '산귀'의 애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산귀」 중의 영수는 확실히 여인이 애인을 부르는 말이다. 또한, 고대의 시문에서 영수는 주로 애인을 부르는 말[134]이나 임금을 뜻하는 말[135]로도 쓰인다. 이를 보면 초사 중의 영수라는 말은 많은 후대 사람들에 의해 여자가 애인을 부르는 말로 파악되고 있는 듯하다. 「이소」 중의 영수도 마찬가지로 여성화자가 애인을 부르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하늘을 가리켜 맹세한다."고 하고 "오

---

132) "留靈修兮憺忘歸, 歲既晏兮孰華予?" (屈原, 「山鬼」.)

133) 『山鬼』, "怨公子兮悵忘歸, 君思我兮不得閑?" (屈原, 「山鬼」.)

134) "無限新嬌. 在衡蕪巷陌, 柳色河橋. 水窗窺倚扇, 月榭教吹簫. 風前一捻可憐腰. 病餘黯然, 柔魂易銷. 屏山冷, 有替淚, 臘花紅照. 愁悄. 人眇眇. 心事問誰, 明鏡當懷抱. 小苑棲螢, 畫樓啼鴂, 換了斜陽芳草. 爭奈靈修故來遲, 黛眉蟬鬢青蛾老. 無情天, 悶懨懨, 一任昏曉." (張景祁, 「換巢鸞鳳 用梅溪韻同魏丈滋伯作」, 搜韻https://sou-yun.com/index.aspx/)

135) "我有百鍊銅, 鑄為盤龍鏡. 制擬軒轅古, 色作寒冰瑩. 外可毛發鑒, 內可心膽靜. 持之遺靈脩, 期使萬象正. 胡為眾妒興, 詆詬乃交並. 人心豈真昧, 物價諒有定. 千秋在世間, 誰能掩光熲." (孫承恩, 「擬古二十七首·其二十一」, 搜韻.)

직 영수 때문이다"라고 강조하여 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사랑이 진지한 것을 강조한다.

이어서 영수를 향한 자신의 일편단심과 영수의 변심을 대비시켰다. 영수가 자신과 해질녘에 만나기로 기약했는데 도중에 길을 바꿨다는 말은 영수가 애초에는 황혼 때 자기를 신부로 맞이하러 온다고 약속했지만 결혼식 날 길에서 자신을 버렸다는 뜻이다. 주희에 따르면 '황혼'이란 『의예(儀礼)』에서 말한 '초혼(初昏)'으로 옛날 사람들이 신부를 맞이하는 시간이다. 이에 "중도에 길을 바꿨어요."라는 말은 신부가 신랑집으로 떠나는 길에 버림을 당했다는 뜻이라고 한다. 고대의 자료를 살펴보면 주희의 해석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고의 『백호통(白虎通)』에 따르면, 황혼이 결혼예식을 행할 시간이라서 '婚(혼)'이란 글자가 '여(女)'라는 글자와 '혼(昏)'이라는 글자로 조합된 것이다.[136] 또한, 고대의 시문에서 '황혼'을 결혼예식을 행할 시간으로 쓸 경우가 많다. 예컨대, 「고시위초중경처작(古詩為焦仲卿妻作)」에 "신부를 맞이하는 그날 하루는 소와 말이 울부짖고, 새색시 난지(蘭芝)는 푸른색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암담한 황혼이 지난 후, 적적한 해시(亥時)가 시작될 무렵이었다."[137]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황혼 무렵에 결혼식을 행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말을 주희에 따라 해석할 수 있다.

그 뒤의 "당초에는 저와 약속했는데, 나중에는 변심하여 다른 뜻을 가지셨어요."라는 말도 이러한 대비를 하고 있다. "중도에 길을 바꾸다"라는 말은 곧 뒤에서 말한 '유타(有他)'와 상응하는 일이다. 고대의 시문에서 '유타'나 '유타심(有他心)'이라는 말은 "다른 뜻을 가진다"는 의미로 남자가 변심하여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된 경우에 많이 쓰인다.[138] 즉, 여기서 두 사람이 이별하게 된 원

---

136) "婚姻者, 何謂也? 昏時行禮, 故謂之婚也. 婦人因夫而成, 故曰姻." (班固, 「嫁娶」, 『白虎通』 권9, 國學導航 http://www.guoxue123.com/)

137) "其日牛馬嘶, 新婦入青廬. 奄奄黃昏後, 寂寂人定初."(「古詩為焦仲卿妻作」, 陳徐陵, 『玉臺新詠』 권1, 四庫全書 電子版.)

138) 예컨대, "有所思, 乃在大海南. 何用問遺君, 雙珠玳瑁簪. 用玉紹繚之. 聞君有他心,拉雜摧燒之. 摧燒之, 當風揚其灰. 從今以往, 勿復相思, 相思與君絕. 雞鳴狗吠, 兄嫂當知之. 秋風肅肅晨風颸, 東方須臾高知之." (『有所思』(兩漢樂府), 搜韻.); "妾家白門楊柳下, 楊柳當年系郎馬. 又住錢塘楊柳邊, 楊柳仍藏烏啞啞. 生憎啞啞烏, 逐郎郎在湖, 聊復為郎提玉壺. 泛月月未起, 蕭蕭一湖水. 向月人人道有情, 未見

인은 영수가 변심하여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임금과 신하가 서로 의기투합하다가 임금의 마음이 변하여 신하를 멀리하게 된 것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139]

영수의 변심에 대해 화자는 비판적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그는 "당신과 이별하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당신의 잦은 변심에 마음이 아프네요."라고 한다. 영수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영수에게 사랑을 다 바쳐도 배신을 당한 데 대한 실망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여기서 끝까지 영수를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영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영수를 비판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자신의 분노를 공공연히 드러낸다. 따라서 ③은 여성 화자가 영수에 대한 일편단심과 영수의 변심을 대비시켜서 영수의 변심을 비판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④의 내용을 살펴볼 차례이다.

(2)의 ④ 앞 대목에서 화자는 고결한 인격을 상징하는 향초를 좋아하여 임에게 간언을 하였다가 버림을 당했지만 여러 번 죽어도 후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곧 ④의 앞 대목에서 남성정치인의 말투로 이별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자신의 재덕을 표방하고 임을 비판한다.

그러나 뒤의 ④에서 다만 영수, 곧 사랑하는 남자가 어리석고 사람의 본심을 살피지 못한 것을 원망한다고 한다. 영수가 자신의 '아미'를 질투하는 여자들이 자신을 헐뜯는 말을 믿어서 자신을 버렸기 때문이다. 고대의 시가에서 '아미'는 누에나방처럼 예쁜 눈썹이라는 뜻으로 여인의 미모나 아름다운 여인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당나라 왕적(王適)의 〈강상유회(江上有懷)〉에서 "낙양 규방에 밤은 몹시도 깊은데, 아름다운 미인이 사람의 간장을 끊네."[140]라고 하는데 이 시의 '아미'는 미인을 가리킨다. 유희이(劉希夷)의 「백발옹의 슬픔을 대변한다(代悲白頭翁)」에서 "어여쁜 모습이 그 언제까지이리. 눈 깜

情人為情死. 君不見白使君蘇使君, 一呼小蠻一朝雲. 今日妾歌懊惱詞, 借問使君聞不聞？ 無端再唱金陵樂, 若個天涯不流落. 好認西湖是妾家, 南屏山前多藕花. 藕花折郎手, 花飄不得藕. 心知郎有他, 為郎來勸酒. 一訴姊妹知, 不如訴郎友. 將尋小小過西陵, 月落天低江渡口."(吳夢旸, 「同潘景升顧嘿孫集湖上代妓作」, 搜韻.)

139) 朱熹, 앞의 책, 蔣立甫 校點(2001), p.10.

140) "洛陽閨閣夜何央, 蛾眉嬋娟斷人腸." (王適, 「江上有懷」, 搜韻.)

짝하면 흰 머리 실처럼 날리게 된다네."[141]라고 하는데 이 시의 '아미'는 여인의 미모를 가리킨다. 「이소」의 아미도 여인의 미모라는 의미로 보인다. 또한, 뭇 여자들이 화자를 비방하고 싶은 정도로 화자의 '아미'를 질투한 것을 보면 화자와 뭇 여자들은 외모상으로 경쟁관계에 있다. 이것도 화자가 용모가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여기서 용모가 아름답고 성품이 좋은 여자는 재능이 있고 임금에게 충성을 하는 신하, 곧 재덕이 있는 신하를 빗대는 말이고, 용모가 아름답지 않고 질투심이 많은 뭇 여인들은 재덕이 없는 신하를 빗대는 말이다. "뭇 여인들이 내 미모를 질투하여 내가 음탕하다고 비방한다."는 것은, 간신들이 오히려 재덕이 있는 신하가 한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비방하는 형태를 빗대어 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④에서 여성화자는 영수가 자신의 미모를 질투하는 뭇 여인들의 참언을 믿어서 변심했던 사실을 밝혔다. 여기서 용모가 아름답고 성품이 뛰어난 자신과 용모가 아름답지 않고 질투심이 많은 뭇 여인들을 대비시켜 임의 어리석음을 비판하고 자신의 분노를 공공연히 드러낸다. ④의 내용은 ③의 내용의 근본적 원인이 된다.

이렇듯 과거를 회억하는 부분(1행~53행)에 여성화자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일부에만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화자의 대목에서 굴원은 먼저 여성화자로 좌도의 관직에 있었을 때 초왕이 처음에 자신과 같이 미정을 실현하고자 했으나 나중에 자신을 멀리하게 된 과정을 회억한다. 그 다음으로 여성화자로 초왕이 변심했던 근본적 원인은 초왕이 어리석어 자신의 재덕을 질투하는 간신배의 참언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두 대목에서 자신의 충심과 초왕의 배신, 자신의 재덕과 간신배의 재덕이 없는 것을 대비시켜 어리석은 임과 간사한 신하들을 비판하고 자신의 분노를 공공연히 호소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본고는 「이소」의 과거를 회억한 부분에 남성화자와 여성화자가 혼재되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현재 일어나는 일(54행~185행)과 미래에 대한 전망(186행~188행)을 서술하는 부분의 화자는 어떤 성별을 지니고 있는가? 「이소」의 현재와 미래를 노래하는 대목은 구체적으로 초야로 물러

141) "宛轉蛾眉能幾時? 須臾鶴發亂如絲." (劉希夷, 「代悲白頭翁」, 搜韻.)

나고 천상계로 떠나는 마음이 생겼다는 대목(54행~65행), 이 일에 대해 여수, 순임금과 대화한다는 대목(66행~91행), 천상계에 가서 "여자를 찾음"을 서술하는 대목(92행~129행), 영분, 무함을 찾아서 "여자를 찾음"의 문제를 중심으로 그들과 대화한다는 대목(130행~167행), 다시 천상계에 가서 여자를 찾는다는 대목(168행~185행), 고국과 천상계의 사이에 선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원을 말하는 대목(186행~188행)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를 노래하는 대목은 천상계에 가서 여자를 찾는다는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소」에 여성화자가 존재한다는 선행연구는 과거를 회억하는 부분 이외에도 초야에 있는 일을 서술하는 대목의 화자만 여성이라고 주장하거나, 나머지 모든 부분의 화자가 여성이라고 주장한다. 전자의 경우 초야에 있는 일을 서술하는 대목과 앞의 조정에 있는 일을 회억하는 대목이 뒤의 대목과 달리 주로 조정과 직접 관련된 일을 서술하는 대목이라서 두 대목을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대목의 화자가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후자는 현재와 미래를 서술하는 부분의 중심내용인 "여자를 찾음"을 남편에게 버림받은 화자가 임에게 바치면 자신이 임의 옆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여자를 찾는다는 뜻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의 화자를 여성으로 본다. 화자의 성별이 그가 여자를 찾는 이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소」의 현재와 미래를 노래하는 대목에 나타나는 화자의 성별을 파악하기 위해 초야에 물러난 후 일어나는 일을 서술하는 대목의 화자의 성별을 살펴보고, "여자를 찾음"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초야에 물러난 후 일어나는 일을 서술하는 대목을 본다.

길을 살피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서성이다 돌아가렵니다.
수레를 돌려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더 먼 곳에서 길을 잃어버리기 전에 말입니다.
난초가 자라는 물가의 언덕에 말을 풀어놓고
산초나무가 우거진 언덕으로 달려가 잠시 쉬렵니다.
직언을 올려 받아들이지 않아 죄 지은 몸 되었으니
물러나 처음 입었던 옷을 다시 수선하렵니다.

연잎을 마름질해서 상의를 만들고
연꽃을 이어 하의를 만듭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로 내 마음만 고결하면 됩니다.
머리에 쓴 갓을 더욱 높게 올리고
허리에 찬 검을 더욱 길게 합니다.
향기와 악취가 함께 섞여 있더라도
고결한 자질은 해를 입지 않습니다.
문득 고개를 돌려 눈 닿는 곳을 봅니다.
저는 천지의 저 끝을 보러 갈 것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식으로 많이 꾸미면
짙은 향기는 더 잘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유난히 좋아합니다.
몸이 부서지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悔相道之不察兮, 延佇乎吾將反.
回朕車以複路兮, 及行迷之未遠.
步余馬于蘭皐兮, 馳椒丘且焉止息.
進不入以離尤兮, 退將複修吾初服.
制芰荷以爲衣兮, 集芙蓉以爲裳.
不吾知其亦已兮, 苟余情其信芳.
高余冠之岌岌兮, 長余佩之陸離.
芳與澤其雜糅兮, 唯昭質其猶未虧.
忽反顧以遊目兮, 將往觀乎四荒.
佩繽紛其繁飾兮, 芳菲菲其彌章.
民生各有所樂兮, 余獨好修以為常.
雖體解吾猶未變兮, 豈余心之可懲. (54행~65행)

초야에 물러난 후 일어나는 일을 서술하는 대목에서 화자의 성별은 그가 초

야로 물러난 후 새롭게 만든 복식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화자는 원래 입었던 것처럼 마름나무와 연꽃으로 자신의 '의(衣)'와 '상(裳)'을 만드는 행위를 통해 고결한 인격을 표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남성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연잎으로 '의'를 만들고 연꽃으로 '상'을 만드는 것은 앞에서 향초를 몸에 장식한다는 것처럼 고고함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연잎으로 '의'를 만들고 연꽃으로 '상'을 만드는 행위는 화자가 여성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화자가 남성임을 암시하고 있다. 중국 고대에는 남자와 여자 둘 다 상의하상(上衣下裳)인 옷을 입었는데 남자의 예복만 '의'와 '상'이 분리된 것이고 여자의 예복, 남자와 여자의 평상복은 '의'와 '상'이 일체라고 한다.[142] 여기서 화자는 다른 소재로 '의'와 '상'을 만드는 것으로 보아 그의 의복은 '의'와 '상'이 분리된 것이며, 따라서 그가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는 '관(冠)'을 더욱 높게 하며, 허리에 찬 검을 더욱 길게 하는 행위를 통해 세상의 일에 괘념하지 않고 고고함을 유지하려는 의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별이 남성임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서주(西周)나 전국시대에 편찬된 책 『주례(周禮)』에 기록된 복식 제도를 보면 당시 남자의 '관'은 이미 예복의 필수적인 부속품이지만 여성의 '관'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듯하다. 당나라 이전에 '관'은 주로 남자가 쓰는 것이라고 생각된다.[143] 더 중요한 것은 고대에 검은 일반적으로 남자가 썼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의 복식을 통해 그가 남성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듯 현재 일어나는 일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서술하는 부분의 서두에서 작가는 남성화자로 고결한 인격을 지키려는 자신의 신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두 부분의 화자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면 이 두 부분의 중심문제인 "여자를 찾음"의 의미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

142) "古時衣與裳有分者, 有連者. 男子之禮服. 衣與裳分. 燕居得服衣與裳連者, 謂之深衣. 婦人之禮服及燕居之服, 衣裳均連. 以示婦女情感專一." (錢玄, 『三禮名物通釋』, 江蘇古籍出版社, 1987, pp.17-18.)

143) 衛向虎, 「關於中國古代女子"冠"的幾點思考」, 『現代裝飾(理論)』 10期, 2015, p.2.

꿇어 앉아 옷섶을 단정히 펼치고 진심을 아룁니다.
저는 정도(正道)를 따랐기에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뿔이 없는 네 마리 옥룡이 끄는 봉황수레를 타고
순식간에 먼지바람을 일으켜 하늘로 올라갑니다.
… (중략)
천문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문을 열라 하니
문지기는 천문에 기댄 채로 바라보기만 합니다.
날은 어둑어둑 저물려하고
저는 난초를 엮으며 오랫동안 서 있습니다.
… (중략)
풍륭(豐隆)에게 구름을 타고 가서
복비(宓妃)가 있는 곳을 찾게 합니다.
차고 있던 매듭을 풀어 마음을 전하고
건수(蹇修)로 중매를 서게 합니다.
… (중략)
높이 솟은 옥 누대를 바라보다
유융국(有娀國)의 미녀를 보았습니다.
짐새에게 중매를 서달라고 했지만
짐새는 그녀의 좋지 않은 점을 말합니다.
… (중략)
소강(少康)이 장가들기 전
유우씨(有虞氏)의 두 딸은 약혼을 기다렸습니다.
중매를 서는 사람들 무능하고 어리석어
말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세상이 더럽고 혼탁해 어진 이들이 질시를 받고
좋은 사람은 가리고 나쁜 사람을 받들길 좋아합니다.
궁궐은 깊고 멀며
명철하신 임금은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충정을 품고도 나타낼 길이 없으니
제가 어찌 평생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跪敷衽以陳辭兮, 耿吾既得此中正.
駟玉虬以乘鷖兮, 溘埃風余上征.
…(중략)
吾令帝閽開關兮, 倚閶闔而望予.
時曖曖其將罷兮, 結幽蘭而延佇.
…(중략)
吾令豐隆乘雲兮, 求宓妃之所在.
解佩纕以結言兮, 吾令蹇修以為理.
…(중략)
望瑤台之偃蹇兮, 見有娀之佚女.
吾令鴆為媒兮, 鴆告余以不好.
…(중략)
及少康之未家兮, 留有虞之二姚.
理弱而媒拙兮, 恐導言之不固.
世溷濁而嫉賢兮, 好蔽美而稱惡.
閨中既已邃遠兮, 哲王又不寤.
懷朕情而不發兮, 余焉能忍此終古.(92행~129행)

위에 인용한 대목은 천상계에 가서 천제의 딸, 복비(宓妃), 간적(簡狄), 이요(二姚) 등 여러 여자를 찾는 과정을 서술하는 대목으로 "여자를 찾음"의 의미를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대목이다. 화자의 성별이 그가 여자를 찾는 원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자를 찾음"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먼저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자신의 연인을 찾는 것이다. 즉, 현군(賢君)을 찾음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다.[144] 그의 인연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여자라고 하면, 그를 남성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임에게 바치는 여자를 찾는 것이다. 즉, 자신이 없는 조정에서 임금을 보좌하는 현신(賢臣)[145]이나 현비(賢妃)[146]을 찾아주는 것을 빗대어 말한다

144) "女, 神女, 蓋以比賢君也. 於此又無所遇, 故下章欲遊春宮, 求宓妃, 見佚女, 留二姚, 皆求賢君之意也."(朱熹, 앞의 책, 蔣立甫 校點(2001), p.20.)

145) "女以喻臣. 言己雖去, 意不能已, 猶復顧念楚國無有賢臣."(王逸, 「離騷經章句」, 앞의 책, 권1.)

146) "是時楚宮南后、鄭袖並寵於王, 袖與靳尚輩表裏惑君, 后不之問, 讒與侵比, 此王所以終不悟也.故思

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자신이 임금의 옆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147]을 빗대어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화자는 남성도 될 수 있으며 여성도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여자를 찾음"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일까? 화자는 차례로 천제의 딸, 복비(宓妃), 간적(簡狄), 이요(二姚)[148]에게 청혼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화자는 자신이 직접 가서 청혼하는 것이 아니라 건수(蹇修)[149], 짐새 등 신화와 전설 속의 인물이나 새에게 중매를 서도록 하였다. 화자가 임을 위하여 중매를 서는 경우에는, 청혼하려는 여자에게 직접 갈 수 있으므로 중매인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다. "홀로 가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다(欲自適而不可)"는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화자는 왜 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 고대에 남자가 중매인을 쓰지 않고 직접 여자의 집에 가서 자신을 위해 청혼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다.[150] 이를 보면 여기서 남성화자가 임이 아닌 자신을 위해 여자를 찾으려고 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자를 찾음"은 자신이 직접 현군을 찾는 것을 빗대어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소」에서 이별 이후의 상황을 서술하는 두 부분의 화자는 남성일 것이다. 곧 작가 굴원은 남성화자로 조정에서 물러난 후 다른 현군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표현한다.

得賢女, 正位宮中, 以廢壁而沮讒也." (錢澄之, 『屈話』. 楊成孚, 「「離騷」"求女"解新論」, 『南開學報』 05期, 1995, p.55 재인용.)

147) "言君之不可求, 而歸罪於左右之蔽郭. 此下言所以通君側之人."(梅曾亮, 『古文詞略』. 楊成孚, 앞의 논문, p.56 재인용.)

148) 복비(宓妃): 복희씨(伏羲氏)의 딸로, 낙수(洛水)에 빠져 죽어 낙수의 신이 되었다고 함. 간적(簡狄): 유융(有絨)의 딸로 고신씨(高辛氏)의 비(妃)가 되었다고 함. 교(郊)에 빌다가 제비알을 얻어 삼키고 태기가 있어 은(殷)나라 시조 설(契)을 낳았다. 이요(二姚): 유우국(有虞國) 군주의 두 딸. 성(姓)이 요씨(姚氏)이다. 하(夏)나라의 중흥조인 소강(少康)의 비(妃)가 되었다고 한다. (金開誠 외, 『屈原集校注』,中華書局, 1999, pp.107-118 참조.)

149) 건수(蹇修): 태호(太皞) 복희씨(伏羲氏)의 신하다. ("蹇修, 伏羲氏之臣也." (王逸, 「離騷經章句」, 앞의 책, 권1.))

150) "伐柯如何？ 匪斧不克,取妻如何？ 匪媒不得."(許富宏, 「從『抽思』『思美人』看『離騷』求女的喻意」, 『雲夢學刊』, 1996, p.8 재인용); 『孟子·滕文公下』, "不待父母之命, 媒妁之言, 鉆穴隙相窺, 逾墻相從, 則父母國人皆賤之." (「伐柯」, 『詩經』, 王秀梅 譯註, 中華書局, 2006, p.234.)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소」의 과거를 회억하는 부분, 현재 일어나는 일을 서술하는 부분, 미래에 대한 소원을 말하는 부분의 화자는 차례대로 남성+여성, 남성, 남성이다. 이를 바탕으로 굴원이 「이소」에서 여성화자와 남성화자를 모두 등장시키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굴원이 여성화자와 남성화자를 모두 등장시켜 임금에 대한 어떤 태도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소」의 여성화자나 남성화자가 추구하는 여자가 용모와 마음이 다 아름다운 미인(美人)이라는 점이다. 굴원은 '아름다움(美)'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추구하는 이상정치는 미정(美政)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작품에서 많이 사용하는 비유는 미인의 비유라고 불린다. 이러한 미인은 단지 용모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이소」의 여성화자는 용모가 뭇 여인들의 질투를 받을 정도로 아름다우며, 질투심이 많은 뭇 여인들과 달리 임에 대한 사랑도 순수한 여자이다. 남성화자는 여자들에게 청혼을 하는 과정에서 미모를 지니고 교만함을 부리는 복비[151] 같은 여자가 자신이 찾고 싶은 여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남성화자가 찾고 싶은 여자는 용모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와 마음이 통하기도 하는 여자이다. 이를 보면 굴원의 마음속에 진정한 미인은 단지 용모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연인에 대한 사랑도 순수한 여자이다. 정치에 관하여 말하자면 이 '아름다운 용모와 품성'은 정치인의 재능과 품성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곧 굴원은 정치적 재덕이 있는 사람을 미인에 비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굴원은 남성화자가 미인을 찾는 것에 빗대어 임금이 신하를 사우로 삼는 군신관계를 지향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굴원은 남성화자로 자기소개를 하는 대목에서 자신이 재덕이 뛰어나고 이러한 자질을 꾸준히 수양해 온 사람인 것을 표방하면서 임과 함께 원대한 이상을 실현하고 싶다는 자신의 목표를 말한다. 이는 자신이 모시는 임금도 자신의 재덕에 걸맞게 자신과 함께 원대한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자부심을 드러낸다. 이어서 그는 남성화자로 임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재덕이 있는 현군을 찾고

151) "紛總總其離合兮, 忽緯繣其難遷. 夕歸次於窮石兮, 朝濯發乎有盤. 保厥美以驕傲兮, 日康娛以淫遊. 雖信美而無禮兮, 來違棄而改求."(屈原, 「離騷」.)

싶다고 한다. 따라서 굴원이 추구하는 군신관계는 임금과 신하 모두 재덕을 지니고 있어 신하가 임금의 사우가 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두 아름다운 사람의 결합"[152]은 바로 이러한 군신관계를 의미한다.

한편, 굴원은 여성화자를 통해 자신이 이미 임금을 위해 온 힘을 다했으나 재덕이 있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은 고국의 임금과 소인배의 소행을 참지 못하는 마음을 강조한다. 굴원은 남성화자뿐만 아니라 여성화자를 통해 자신의 재덕을 표방하면서 임금과 간신배를 비판한다. 여성화자는 자신의 충심과 임의 변덕스러움, 자신의 재덕과 뭇 여인들의 재덕이 없음을 대비시킨다. 굴원은 여성화자로 자신이 충분한 재능을 지니고 있으며 임금에게 충성을 다 바쳤으나 결과적으로 간신배의 모함을 받아 임금의 존중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슬픔과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여성화자로 자신의 재능과 임금에 대한 충심을 표방하는 것은 그의 최종목적이 아니라 임금과 소인배를 비판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다. 굴원은 자신의 재덕에 대한 강조를 통해 임금의 어리석음과 소인배의 간사함을 비판하는 데 그 어떤 화려한 비유보다도 재덕을 상징하는 미인의 말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남성화자로 그들을 비판하는 것을 다시 여성화자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굴원은 신하가 임금의 사우가 되는 군신관계를 지향하는 간절한 마음을 남성화자로 표현하고, 여성화자를 통해 자신이 이미 임금을 위해 온 힘을 다했음에도 자신을 존중하지 않은 고국의 임금과 소인배를 참지 못하는 마음을 강조한다.

2.「전후미인곡」

「전후미인곡」은 작가 정철이 50세 되던 1585년에 사헌부와 사간원의 논척을 받고 고향인 창평으로 물러난 뒤 임금에 대한 감정을 노래한 작품인데 이때「전후미인곡」의 화자는 일반적으로 여성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전후미인곡」

152) "兩美其必合兮."(屈原, 「離騷」.)

의 화자가 과연 여자인지를 확인해 보고, 정철이 그러한 화자를 설정하여 어떤 군신관계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미인곡」의 화자를 살펴보자.

앞에서 말했듯이 화자의 성별을 시간대를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이소」와 「전후미인곡」의 내용은 다 과거에 대한 회억, 현재의 감회, 미래의 다짐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시간에 따라 전개되는 것이다. 화자의 성별을 시간대를 나누어 보면 「이소」와 「전후미인곡」의 화자의 차이와 그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보다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미인곡」은 총 63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미인곡」의 구성은 서사(1행~13행)와, 춘하추동의 사계절에 따른 본사(14행~54행)의 전개, 그리고 결사(55행~63행)로 이어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중에서 1행~8행은 과거에 대한 회억, 9행~54행은 현재의 감회, 55~63행은 미래의 다짐을 노래하고 있다. 「사미인곡」에서 자신과 임의 만남과 이별을 회억하는 대목의 화자를 보도록 하자.

이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ᄒᆞᆫ싱 緣연分분이며 하ᄂᆞᆯ 모ᄅᆞᆯ 일이런가
나 ᄒᆞ나 졈어 잇고 님 ᄒᆞ나 날 괴시니
이 ᄆᆞ음 이 ᄉᆞ랑 견졸 ᄃᆡ 노여 업다
平평生싱애 願원ᄒᆞ요ᄃᆡ ᄒᆞᆫᄃᆡ 녜쟈 ᄒᆞ얏더니
늙거야 ᄆᆞᄉᆞ 일로 외오 두고 그리ᄂᆞᆫ고
엇그제 님을 뫼셔 廣광寒한殿뎐의 올낫더니
그 더ᄃᆡ 엇디ᄒᆞ야 下하界계예 ᄂᆞ려오니 (1행~8행)

처음 시작부터 화자는 자신과 임의 만남을 회억한다. 그는 자신이 임을 따라 태어난 존재이며, 그 임과 한 평생을 같이 할 연분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말에서 자신과 임의 만남이 숙명이고, 자신이 임에 의해서만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나타낸다. 애초에 정해진 임과의 인연을 믿는 그는 평생 임의 곁에 머무르고 임과 서로 달콤하게 사랑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화자는 자신과 임의 이별을 회억한다. 그는 늘그막에 이유도 모르고

쫓겨나게 된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임과 관계가 끊어진 원인을 모른다는 점이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별의 이유를 모른다고 하니까 화자는 자신이 억울하다는 의식을 다소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임과 그 주변 인물을 공공연히 탓하지는 않는다.

이렇듯 임과 영원히 서로 사랑하고자 하고 임에게 버림을 받아도 임과 그 주변인물을 공공연히 탓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고전시가에서는 여성의 태도에 가까운 것이기에, 이 대목의 화자가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다시 주목되는 것은 화자가 천상계의 선녀인 것을 암시하고 있는 점이다. 화자는 임과 함께 광한전(廣寒殿)에 올라 행복을 나누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하루아침에 하계로 쫓겨났다고 한다. 곧 자신이 본래 광한전에 있었으며 그 곳의 주인과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광한전은 달 가운데 있는 설화 속의 궁전으로 옥황상제가 계신 곳이다.[153] 남신(男神)인 옥황상제와 서로 사랑하다가 헤어지고 하계로 내려오게 된다고 하니 자신이 선녀인 것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확실히 여성이다.

작가 정철은 「사미인곡」의 과거를 회억하는 부분에서 여성화자로 선조의 총애를 받다가 낙향하게 된 일을 서술하였다. 실제로 정철은 명종대 정치적 침체를 겪었다가 선조 등극 이후 선조의 총애를 받아서 등용되었다. 그러나 당시 당쟁이 격화되어 정철은 늙은 나이인 50세에 동인의 탄핵을 받아 창평으로 낙향하게 되었다. 그 시기에 임금은 정철을 변호해 준 사람들을 물리쳐 듣지도 않았다. 여기서 그는 여성화자를 통해 숙명적으로 만난 임금과 영원히 서로 믿고 존중하고 싶은 심정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억울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도 임금과 그 주변인물을 공공연히 탓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임금과 영원히 서로 믿고 존중하는 것을 기대하지만 임금의 믿음을 잃어도 임금을 탓하지 않겠다는 마음은 그의 일방적인 충효의식을 드러낸다.

153) 한국인의 민간전통 가운데서 가장 친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교적 최고신은 옥황상제이다. 신들의 위계에 따라 거하는 유선(遊仙) 공간이 다른데, 옥황상제는 백옥경(白玉京)과 광한전(廣寒殿) 등 천상선계에 거하고 부상해(扶桑海) 위 삼신(三神)과 곤륜산, 십주(十洲) 등에 거하는 지상선계(地上仙界)와 같은 것으로 대별되기도 한다. (이은봉, 『한국인의 죽음관』,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p.214-215)

이렇듯 「사미인곡」의 과거를 회억한 부분에 나타난 화자는 임을 절대적 존재로 인식하는 여성이다. 「사미인곡」의 나머지 부분, 곧 이별 뒤의 일을 서술하는 부분의 화자는 여전히 여성일까?

올 저긔 비슨 머리 헛틀언디 삼년일쇠
臙연脂지粉분 잇닉마ᄂᆞᆫ 눌 위ᄒᆞ야 고이 홀고
ᄆᆞ음의 ᄆᆡ친 실음 疊텹疊텹이 ᄡᅡ혀 이셔
짓ᄂᆞ니 한숨이오 디ᄂᆞ니 눈물이라
人인生싱은 有유限ᄒᆞᆫᄒᆞᆫᄃᆡ 시름도 그지업다 (9행~13행)

위의 인용한 대목은 「사미인곡」에서 이별 이후 최근 3년의 일을 노래하여 사계절에 따른 술회(述懷)의 서막을 열었던 대목인데 여기에서는 임과 이별하게 된 후 이별의 충격을 감당해 내지 못하는 심정을 나타낸다. 이 대목에서 임과 떨어져 있어서 머리를 빗지 않는다거나 화장하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것을 통해, 임이 계시지 않는 하계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머리를 빗거나 연지분으로 화장하는 행위는 주로 여성이 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이 대목의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다.

無무心심ᄒᆞᆫ 歲셰月월은 믈 흐ᄅᆞᄃᆞᆺ ᄒᆞᄂᆞᆫ고야
炎염凉냥이 ᄯᅢ를 아라 가ᄂᆞᆫᄃᆞᆺ 고텨 오니
듯거니 보거니 ᄂᆞᆺ길 일도 하도 할샤
東동風풍이 건듯 부러 積젹雪셜을 헤텨 내니
窓창 밧긔 심근 梅ᄆᆡ花화 두세 가지 픠여셰라
ᄀᆞᆺ득 冷닝淡담ᄒᆞᆫᄃᆡ 暗암香향은 므ᄉᆞ 일고
黃황昏혼의 ᄃᆞᆯ이 조차 벼마ᄐᆡ 빗최니
ᄂᆞᆺ기ᄂᆞᆫ ᄃᆞᆺ 반기ᄂᆞᆫ ᄃᆞᆺ 님이신가 아니신가
… (중략)
芙부蓉용을 거더 노코 孔공雀쟉을 둘러 두니
ᄀᆞᆺ득 시름한ᄃᆡ 날은 엇디 기돗던고
鴻원鴦앙錦금 버혀 노코 五오色식線션 플텨내여
금자히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내니

手슈品품은 ᄀᆞ니와 制졔度도도 ᄀᆞᄌᆞᆯ시고
珊산瑚호樹슈 지게 우희 白빅玉옥函함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ᄃᆡ ᄇᆞ라보니
山산인가 구롬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千쳔里리 萬만里리 길희 뉘라셔 ᄎᆞ자갈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 (중략)
淸쳥光광을 픠워 내여 鳳봉凰황樓누의 븟티고져
樓누 우희 거러 두고 八팔荒황의 다 비최여
深심山산窮궁谷곡 졈낫ᄀᆞ티 ᄆᆡᆼ그쇼셔
… (중략)
陽양春츈을 부처 내여 님 겨신 ᄃᆡ 쏘이고져
茅모簷쳠 비쵠 ᄒᆡ를 玉옥樓누의 올리고져
紅홍裳샹을 니믜ᄎᆞ고 翠취袖슈를 半반만 거더
日일暮모脩슈竹듁의 혬가림도 하도 할샤
댜른 히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靑쳥燈등 거론 겻ᄐᆡ 鈿뎐箜공篌후 노하 두고
쑴의나 님을 보려 ᄐᆞᆨ 밧고 비겨시니
鴦앙衾금도 ᄎᆞ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샐고 (14행~54행)

인용한 부분은 이별 후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일어나는 일과 그때 느끼는 심정을 서술하는 대목인데 임을 그리워하고 걱정하는 심정을 드러낸다. 봄에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매화를 꺾어 임에게 바치겠다고 한다. 봄이 와서 창 밖 매화나무에 두세 가지 꽃이 피었다. 매화는 눈서리를 이기고 일찍 피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여기의 매화는 매화 중에서도 일찍 핀 것이라서 더욱 아름답고 향기로우며 귀하게 보인다. 이러한 매화가 핀 날에 달이 뜨고 달빛이 베갯머리에 비치니 임을 본 듯하다. 화자는 매화를 꺾어 임 계신 데 보내고 싶다.

그동안 「사미인곡」에서 정철이 중국의 이별 시를 본따 이별의 심정을 표현하는 점은 크게 주목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당나라의 노동(盧仝)은 매화꽃이 핀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은 시를 지은 바 있다.

미인이여, 나의 미인이여.
저녁에는 비 되고 아침에는 구름 되는지 모르겠네.
하룻밤 그리움에 매화꽃 피니
갑자기 창 앞에 그대가 온 게 아닌가 싶다.

美人兮美人, 不知爲暮雨兮爲朝雲.
相思一夜梅花發, 忽到窓前疑是君.[154]

이 시는 은둔하여 세상에 나오지 않는 현인군자(賢人君子)를 미인에 비유하여 현자를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한 시이다. 화자는 자신을 버리고 간 미인을 아주 그리워한다. 그의 그리움으로 온 밤을 밝히자 매화꽃이 피었으니 갑자기 창 앞에 미인이 온 것 같다. 매화가 피는 날에 미인을 본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하여 미인에 대한 그리움을 호소하는 것은 노동의 시와 정철의 「사미인곡」이 지닌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사미인곡」으로 돌아오면 여름에는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임에게 바치겠다고 한다. 여름에 햇빛이 강하게 비치는 만큼 장막을 바꾸어 치고 살아야 한다. 비단으로 친 장막이 적막하게 걸렸는데 수놓은 장막은 비어 있다. 따라서 연꽃을 수놓은 장막을 걷어놓고 공작새를 수놓은 병풍을 둘러 두었다. 그러나 그렇게 병풍을 치고 살아도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에게는 여름날 하루가 너무 길다. 그러므로 그는 원앙새의 무늬가 든 비단을 베어 재단하고 오색실을 풀어내어 금자로 재어서 임의 옷을 짓는다. 짓고 나니 스스로 보아도 솜씨가 좋고 격식도 갖추었다. 이 옷을 백옥함에 넣어 산호로 만든 지게 위에 두고는 임에게 보내려고 한다. 그런데 임 계신 곳을 바라보니 산이 가리고 구름이 험하고 천리 만리나 멀다. 임과 두 공간으로 갈린 화자가 더욱 외로워 보인다.

여름을 묘사하는 대목에서 원앙새의 무늬가 든 비단으로 임의 옷을 지어서 임에게 보내고자 한다는 말은 당나라 온정균(温庭筠)의 「직금사(织锦词)」의 시구와 유사하다.

---

154) 盧仝, 「有所思」, 蔡正孫, 『詩林廣記前集』 권8, 四庫全書 電子版.

금으로 만든 북이 만 갈래의 색실의 틈으로 왔다 갔다 하여
원앙새 문양이 짜여 있는 산뜻한 비단이 처음으로 한 필이 되었다.
비단의 많은 매듭이 다 같은 중심을 가지고
꽃술이 어지럽고 구름이 서려 서로 깊이 섞어 있네.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으니
옥으로 붉은 현금(弦琴)의 기러기발 만들었다.
임을 위해 함께 덮을 이불을 베어
별이 멀리 있어도 천리나 함께 있다.

簇簌金梭萬縷紅, 鴛鴦艷錦初成匹.
錦中百結皆同心, 蕊亂雲盤相間深.
此意欲傳傳不得, 玫瑰作柱朱弦琴.
為君裁破合歡被, 星門迢迢共千里.[155]

온정균의 「직금사」 중의 시구이다. 천리 밖에 있는 임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 화자는 원앙새의 무늬가 든 비단을 짜서 원앙금으로 만든 이불을 베어 절반의 이불을 임에게 보내고 싶다고 한다. 원앙새의 무늬가 든 비단으로 임의 옷을 지어서 천리만리 밖에 있는 임에게 보내고자 한다는 「사미인곡」의 시상은 이와 흡사하다.

가을에는 위루에 올라서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달빛과 별빛을 임이 계신 봉황루에 보내겠다고 한다. 찬 가을 밤 하늘을 기러기가 울며 간다. 기러기는 남북을 오가며 그리움이 담긴 편지를 전할 수 있는 새이기 때문에 그리움을 상징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지금은 임의 소식도 없고 임에게 그리움을 전달할 수도 없다. 임이 그리워 높은 누각에 올라 보니 밝은 달과 북극의 별이 보인다. 달빛과 별빛에 임 생각이 나 '청광(淸光)'이라는 그 밝은 달빛을 임이 계신 봉황루에 보내고 싶다. 그는 임이 밝은 빛으로 세상의 모든 어둠을 없앨 수 있기를 소망한다.

남북조의 유완(劉緩)의 「신월(新月)」에서도 청광(淸光)과 봉황루(鳳凰樓)

155) 温庭筠, 「织锦词」, 『溫庭筠全集校註·上』, 中華書局, 2007, p.7.

를 빌어 이별의 심정을 노래한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선궁(仙宮)의 구름 장막을 걷어 올리면
옥 고리가 나타나도다.
청광을 보낼 수 없으나
봉황루를 그리워하네.

仙宮雲箔卷,露出玉簾鉤.
淸光無所贈,相憶鳳凰樓.156)

구름을 걷어 올리는 옥 고리처럼 생긴 달을 보고 임이 생각나 달빛을 의미하는 '청광'을 임에게 보내고 싶지만, 달빛을 임에게 보내기 어렵다. 그러나 달을 보면 옛날에 봉황루에서 임과 함께 달을 완상하는 일이 저절로 떠올린다. 여기서 봉황루라는 말이 아주 교묘하게 쓰인다. 먼저, 임이 있는 누각이 조용하고 화려한 것을 드러내 누각에 있는 사람이 옥처럼 아름다움을 암시한다. 또한, 봉황은 한시에서 흔히 사랑을 상징한다. 봉황루는 말 그대로 화자가 추억하는 것이 달빛 아래 임과 달콤하게 보내던 시절인 것을 암시한다. 「사미인곡」의 "淸쳥光광을 픠워 내여 鳳봉凰황樓누의 븟티고져"는 이 시에서 봉황루에 있는 임에게 청광을 보내고 싶다는 것과 흡사한 점이 있다.

겨울에는 따뜻한 햇빛을 임에게 보내고 싶다고 한다. 눈이 휘날리니 사람은 물론이고 새조차 움츠리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날씨가 춥다. 자신이 있는 소상강의 남쪽도 이렇게 추운데 임이 계신 북쪽의 높은 옥루(玉樓)가 더 춥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화자는 처마 끝에 비친 남방의 따뜻한 햇빛을 옥루에 계신 임에게 올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수록 외롭다. 그는 붉은 치마를 여미고 푸른 소매를 반쪽 걷은 채 해지는 저녁에 심란하게 대나무에 기대고 있다. 긴 밤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천등을 켜고 전공후(鈿箜篌)를 뜯고 싶은 듯하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 없으니 그만두었다. 임을 만나기 위해 꿈을 꾸려고 하지만 이불이 차갑고 밤이 길게 느껴져 잠도 이루지 못한다.

156) 劉緩,「新月」, 搜韻.

겨울을 묘사하는 대목에서도 중국 한시를 따온 흔적이 보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날이 차니 푸른 옷소매 더욱 차고
날 저물자 긴 대나무 의지하네

天寒翠袖薄, 日暮倚修竹.[157]

② 일어나 공후를 타려고 하지만
물이 얼어붙는 듯 채현(彩弦)이 응결되네.
혼자 자고 근심이 떠나지 않아
살짝 눈물이 나면서 울음소리가 따르고 있네.

欲起把箜篌,如凝彩弦澀.
孤眠愁不轉,點淚聲相及.[158]

③ 이불이 차갑고 베개가 얼음장 같구나.
밤이 길기만 하니 더욱 잠이 안 드네.

衾寒枕冷, 夜迢迢、更無寐.[159]

①은 두보의 「가인(佳人)」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 시에서 임금에게 버림받은 신하를 남편에게 버림받아도 골짜기에서 올바른 절조를 지키며 꿋꿋이 살아가는 가인에 비유한다. 「사미인곡」의 "紅홍裳샹을 니믜ᄎᆞ고 翠취袖슈를 半반만 거더/ 日일暮모脩슈竹듁의 혬가림도 하도 할샤"는 이 부분과 유사하다. ②는 당나라 오상지(吳象之)의 「양춘가(陽春歌)」의 시구이다. 이 시에서 보이는 것처럼 공후(箜篌)는 화자가 임을 그리워해서 잠이 안 들 때 자주 생각나는 악기이다. 「사미인곡」의 공후도 임을 그리워해서 잠이 안 드는 심정을 상징한

157) 杜甫, 「佳人」, 『杜詩詳註』, 仇兆鰲 註, 中華書局, 1999, p.554.

158) 吳象之, 「陽春歌」, 搜韻.

159) 柳永, 「爪茉莉秋夜」, 『柳永詞詳註及集評 』, 姚學賢·龍建國 篹, 中州古籍出版社 1991, p.210.

다. ③은 송나라 유영(柳永)의 「조말리(爪茉莉)·추야(秋夜)」의 시구이다. "鴈衾도 추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샐고"라는 「사미인곡」의 시구는 이 시의 "이불이 차갑고 베개가 얼음장 같구나. 밤이 길기만 하니 더욱 잠이 안 드네."라는 시구와 많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계절에 따른 감회를 서술하는 대목에 나타난 화자의 감회와 복장을 통해 「사미인곡」에서 여성화자가 일관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자는 시시각각으로 임을 그리워하고 자신의 사랑이 담긴 것을 임에게 보내고 싶다고 하며 임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걱정을 토로한다. 「사미인곡」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정적인데[160] 이렇게 매일 조용하게 임을 그리는 사람이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화자는 여름에 '비단'을 잘라 '금자'로 제도하여 옷을 지으며, 겨울에 '붉은 치마'를 입고 '푸른 소매'를 반쯤 걷고 있다. 여름에 화자가 하는 행동, 겨울에 화자가 입은 복식을 통해 그가 여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미인곡」에서 이별 이후의 상황을 서술하는 대목의 화자도 여성이다.

이 대목에서 정철은 여성화자로 임금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간 후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에 잠겨 있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여기서 매화는 사군자(四君子)의 하나로서 절개와 임금에 대한 불변의 사랑을 상징한다. 화려한 옷과 따뜻한 햇빛은 임금의 고민에 대한 관심을 상징한다.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별빛과 달빛은 왕화(王化)가 온 백성에게 미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상징한다. 그는 언제나 사랑하는 임금이 잘 지내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속미인곡」의 화자는 어떠한가?

「속미인곡」은 총 48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1행~14행은 과거에 대한 회억, 15행~42행은 현재의 감회, 43~48행은 미래의 다짐을 노래하고 있다. 「속미인곡」은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에 의해 두 사람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61] 「속미인곡」에서 을이 갑에게 자신과 임의 과거를 회억하는 대목을 보도록 하자.

---

160) 최상은, 「고전시가의 이념과 현실, 그리고 공간과 장소 의식 탐색」, 『한국시가연구』34집, 한국시가학회, 2013, p.25.

161) 김사엽, 『송강가사』, 문호사, 1959; 최태호, 앞의 책, p.212; 정재호 외, 『송강가사』, 신구문학사, 2006, pp.135-136.

뎨 가ᄂᆞᆫ 뎌 각시 본 듯도 ᄒᆞᆫ뎌이고
天텬上샹 白ᄇᆡᆨ玉옥京경을 엇디ᄒᆞ야 離니別별ᄒᆞ고
ᄒᆡ 다 뎌 져믄 날의 눌을 보라 가시ᄂᆞᆫ고
어와 네여이고 이내 ᄉᆞ셜 드러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얌즉 ᄒᆞᆫ가마ᄂᆞᆫ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ᄉᆡ
… (중략)
내 몸의 지은 죄 뫼ᄀᆞ티 ᄡᅡ혀시니
하ᄂᆞᆯ히라 원망ᄒᆞ며 사ᄅᆞᆷ이라 허믈ᄒᆞ랴
셜워 플텨혜니 造조物믈의 타시로다
글란 ᄉᆡᆼ각마오 ᄆᆡ친 일이 이셔이다 (1행~14행)

이 대목에서 갑이 문제를 제기하자 을도 「사미인곡」의 화자처럼 자신과 임의 만남과 이별을 회억한다. 먼저 화자는 자신과 임의 만남을 회억한다. 을은 숙명으로 임과 만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는 임이 나를 "너로다 여기"어 서로 사랑하게 된다고 한다. 곧 운이 좋아서 "우연이 인연이 되어 보다 깊은 사랑이 이루어졌음"[162]을 나타낸 것이다. "한평생 연분"이든 운이 좋은 '우연'이든 임과의 만남을 숙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의식을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운명을 아끼고 영원히 임과 서로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을 토로한다.

이어서 임과 이별하게 된 것에 대해 자기반성을 하면서도 자기결백을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그는 자신이 임과 이별하게 된 것은 산 같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 자기의 잘못이라서 하늘도 사람도 원망하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서 '하늘'은 임을 가리키고, '사람'은 임의 주변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자기의 잘못을 노래하지 않는 「사미인곡」과 다른 듯하다. 그러나 자기부정을 하면서도 자신이 전혀 딴 뜻이 없었다고 하고, '하도떤지'라는 추측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실 자신도 잘못의 소재를 모른다는 입장을 드러낸다.[163] 이에 이 일을 조물이 만든 운명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즉, 을에게 억울한 심정이 전

162) 정재호 외, 앞의 책, p.201.

163) 이혜순, 앞의 논문, pp.72-73.

혀 없는 것은 아닌 듯하다.

따라서 을은 자신이 억울하다는 의식을 다소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임과 임의 주변인물을 공공연히 탓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반성도 하고 있다. 이렇게 「사미인곡」의 화자보다 일방적인 사랑을 더욱 강조하는 것은 고전시가에서는 여성의 태도에 가까운 것이기에, 이 대목의 화자가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을의 반성의 말을 들은 갑은 "그것일랑 생각 마오 (을에게) 맺힌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여 을에게 임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억울한 심정도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두 화자의 역할과 성격에 대해 선행연구는 갑이 을과 동일한 의식을 가진 인물로서 을로 하여금 임에 대한 사랑을 토로하도록 유도하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데에 불과하다고 이해하거나,[164] 두 화자가 동조한다기보다 서로 이질적인 가치를 드러낸다고 지적한다.[165] 그러나 위의 두 화자의 말을 보면 갑이 을과 동일한 의식의 인물로서 을로 하여금 임에 대한 사랑과 원망을 다 토로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두 화자는 스스로 여성임을 직접 밝히기도 한다. 첫째, 갑이 화자 을을 '각시'라고 부른다. 각시는 젊은 여자를 이르는 말이고 한자로 '閣氏'로 적기도 한다.[166] 따라서 대화의 처음부터 화자 갑은 을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고대의 남녀 간의 예의를 보면 이 "해 다 져 저문날"에 여성인 화자 을과 따뜻하게 대화를 나누는 갑도 여성인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둘째, 을이 옥황상제가 사는 백옥경(白玉京)[167]에서 하계로 내려왔다고 하는 것도 을이 선녀인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을과 임 사이의 일을 잘 아는 것을 보면 갑도 천상계의 선녀였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점을 통해 을과 갑은 모두 여성화자임을 알 수 있다.

정철은 「속미인곡」에서 두 여성화자의 대화로 임금과의 만남과 이별을 회억한다. 그는 「속미인곡」에서도 숙명적으로 만난 임금과 영원히 사랑하고 싶은 마

---

164) 정재호 외, 앞의 책, p.186.

165) 조세형, 「가사 장르의 담론 특성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8, pp.49-51.

166) 이병기, 앞의 논문, p.450.

167) 백옥경(白玉京): 옥경(玉京). 도가에서 이르는 옥황상제가 있다는 곳. 예컨대, 송나라의 백옥섬(白玉蟾)의 시 「聞鶴嘆」에 "天臺山上玉京天,何似青天玉帝前."이란 구절이 있음.

음을 표출한다. 그러나 「사미인곡」보다 「속미인곡」에서 이별의 원인에 대해 더 복잡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속미인곡」에서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있지만 임금과 그 주변 인물을 공공연히 탓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반성도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임금과 그 주변인물을 원망하면서도 임금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임금과 그 주변인물을 차마 탓하지 못한다는 그의 복잡한 심정을 드러낸다. 「속미인곡」에서는 임금과 영원히 서로 믿고 존중하는 것을 기대하지만 임금의 총애를 잃어도 차마 임금을 탓하지 못한다는 일방적인 충효의식이 드러나 있다.

이렇듯 「속미인곡」의 과거를 회억한 부분에 나타난 화자는 임을 무조건 사랑하는 여성이다. 「속미인곡」의 나머지 부분, 곧 이별 뒤의 일을 서술하는 부분의 화자는 여전히 여성일까?

님을 뫼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믈 ᄀᆞ튼 얼굴이 편ᄒᆞ실 적 몃 날일고
春츈寒한苦고熱열은 엇디ᄒᆞ야 디내시며
秋츄日일冬동天텬은 뉘라셔 뫼셧ᄂᆞᆫ고
粥쥭朝조飯반 朝죠夕셕뫼 녜와 ᄀᆞᆺ티 셰시ᄂᆞᆫ가
기나긴 밤의 ᄌᆞᆷ은 엇디 자시ᄂᆞᆫ고
… (중략)
玉옥 ᄀᆞ튼 얼구리 半반이 나마 늘거셰라
ᄆᆞᄋᆞᆷ의 머근 말ᄉᆞᆷ 슬ᄏᆞ장 숣쟈 ᄒᆞ니
눈물이 바라나니 말ᄉᆞᆷ인들 어이 ᄒᆞ며
情졍을 못다ᄒᆞ야 목이조차 몌여ᄒᆞ니
오뎐된 鷄계聲셩의 ᄌᆞᆷ은 엇디 ᄭᆡ돗던고 (15행~42행)

위에 인용한 대목은 「속미인곡」에서 화자 을이 이별 뒤의 생활과 심정을 술회하는 대목인데 임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을 드러낸다. 갑이 을에게 맺힌 일이 있다고 하니 을은 임을 원망하지 않고 임을 걱정하기만 하는 마음을 보이려고 한다. 을은 물 같이 밝고 고운 임의 얼굴이 편할 날이 몇 날이 될까 하고 걱정한다. 임이 사계절을 어떻게 보내시며 누가 임을 모시어 잘 보살피고 있는지 걱정한다. 새벽에 드시는 죽, 아침저녁의 진지, 밤의 잠자리 등을 두루 근심한다.

임의 일을 궁금해 하고 걱정하는데 소식마저 없다. 그러니 마음 둘 데가 없는 을이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없다. 그는 높은 곳에서라면 임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산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잡거니 밀거니 하여 높은 산에 올라가 임 계신 곳을 바라보려고 하니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볼 수가 없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강가에서 임의 소식을 들을지도 모르니 이제 강가로 가 볼 수밖에 없다. 강가에 가자 오가는 사람들은커녕 사공도 없는 빈 배만 있다. 기다리다 해가 지고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채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성이 지극했던 까닭에 잠깐 풋잠이 든 사이에 임을 꿈에서 보게 되었다. 그런데 옥과 같이 곱던 임의 얼굴이 반 넘게 늙어 보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임을 그리워하고 걱정하는 을의 관심사 중 날씨, 식사, 수면 등 일상사가 주를 이룬다는 점이다. "님을 뫼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는 말을 통해 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이 이러한 일상사를 세심하게 보살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여기 저기 임의 소식을 알아보고 꿈에서 본 임의 얼굴이 많이 수척한 것은[168] 일상사에 대한 자신의 세밀한 보살핌이 없으면 임이 잘 지내지 못할까 걱정하는 마음을 반영한다. 보통 일상사를 보살피는 것이 여인이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의 하나이므로, 을이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속미인곡」에서 이별 이후의 상황을 나타내는 대목의 화자도 여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속미인곡」에도 여성화자가 나타난다.

정철은 이 부분에서 여성화자로 임과 떨어져 있어도 임을 그리워하고 걱정하는 간절한 마음을 드러낸다. 그는 신하들의 다툼과 백성의 삶으로 인해 고심하는 임금을 걱정하고 임금이 잘 지내는지 아주 궁금해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임금의 소식을 모르는 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아주 초조해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전후미인곡」의 화자는 일관적으로 여성이다. 「전후미인곡」에 나타난 여성화자는 임과 서로 영원히 사랑하고 싶지만, 천상계에서 쫓겨나도 임을 탓하지 않으며 임을 그리워하고 걱정하기만 한다. 정철은 「전후미인곡」에서 여성화자로 임금과 영원히 서로 믿고 존중하는 것을 기대하지만,

168) 이혜순, 앞의 논문, p.72.

임금에게 버림을 받아 불우하게 살고 있어도 임금을 공공연히 탓하지 않으며 임금을 그리워하고 걱정한다는 일방적인 충효의식을 드러낸다.

3. 태도의 비교

굴원과 정철은 서로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한 임금에 대한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각기 다른 화자를 설정하고 있다. 「이소」의 화자가 남성+여성인 것에 비해, 「전후미인곡」의 화자는 여성이다. 「이소」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의 두 대목에만 여성화자가 나타나는 것에 비해, 「전후미인곡」에서는 여성화자가 일관적으로 나타난다. 굴원은 「이소」에서 여성화자로 임금을 위해 이미 충성을 다했으니 더 이상 자신을 사우로 섬기지 않는 임금을 못 참겠다는 울분의 심정을 호소하고, 남성화자로 이제 다른 현군을 찾아서 사우의 대접을 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토로한다. 정철은 작품에서 여성화자로 임금과 영원히 서로 믿고 존중하는 것을 기대하지만, 임금에게 버림을 받아도 임금과 그 주변인물을 공공연히 탓하지 않으며 임금을 그리워하고 걱정한다는 일방적인 충효의식을 드러낸다. 한마디로, 굴원은 일방적인 충효가 아닌 군신관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철은 일방적인 충효의 군신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여성화자를 설정하는 목적의 차이다. 「이소」의 여성화자가 자신의 원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전후미인곡」의 여성화자는 임에 대한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굴원이 재덕을 상징하는 미인의 말로 자신의 재능과 충성심을 강조하는 목적은 자신을 비방하는 간신배와 간신배를 믿게 된 임금에게 재덕이 없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여자, 특히 아름다운 여자가 훌륭한 품성을 비유하는 것은 정철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근대 작가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굴원과 달리 정철은 「전후미인곡」에서 여성화자로 단순히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표방하고자 한다. 곧, 굴원은 여성화자로 임금에 대한 비판을 강조하려는 것과 달리, 정철은 여성화자로 단순히 자신의 충심을 강조하려고 한다.

그러면 굴원과 정철이 왜 자신의 작품에서 임금에 대한 다른 태도를 표현하

고 있을까? 작품에서 나타난 임금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작가의 군신관 차이, 국가 상황과 정치현실의 차이로 인해 생겼다고 생각한다.

먼저, 작가의 군신관 차이다. 굴원이 임금의 사우로 자임하는 것을 견지하면 서도왕족신분으로 인해 생긴 애국심 때문에 초왕에게 충성하였던 것에 비해, 정철은 사림으로서 군주의 사우로 대접받는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어도 군주에게 충성하고 군주의 권력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이끌면서 군주를 공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굴원은 단지 애국 때문에 초왕에게 충성했으니, 그가 여성화자로 자신이 충성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임금을 비판하기 위해서이지 유교의 일방적인 충효를 표현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나아가 남성화자로 자신이 마음속으로는 일반적인 '사'처럼 자신을 사우로 섬기는 임금을 찾고 싶어 했다는 심정을 드러낸다. 그러나 정철은 일방적인 충효를 강조하는 성리학의 가르침에 따라 작품에서 여성화자로 임금과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대하되 언제나 임금을 향한 충심과 공경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태도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국가 상황과 정치현실의 차이다. 첫째, 국가 상황의 차이다. 춘추전국시대에는 임금이 많았고, 노예주(奴隸主)의 토지국유제에서 봉건토지사유제로 이행하였으며,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를 형성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았고, 봉건적 경제체제였으며, 과거 제도를 실시하였다. 굴원은 일반적인 '사'와 달리 사회적 기반을 가진 왕족이었지만, 미정(美政) 이상을 실현하려 했다면 왕족신분을 버리고 사회적 기반이 없는 일반적인 '사'처럼 다른 임금을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작품에서 여성화자로 자신의 충심을 몰라주는 임금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남성화자로 왕족신분을 버리면 다른 임금을 찾을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철은 현실적으로 사회적 기반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임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경세제민의 이상을 실현하려면 지금의 임금에게 충성하고 언제나 공경할 수밖에 없었다. 그에게는 다른 임금을 찾기는커녕 임금을 강력하게 질책하는 것조차 비현실적이었다. 따라서 정철은 작품에서 남성화자로 다른 임금을 찾는 상상을 표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화자로 언제나 임금에게 충성하고 임금을 공경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둘째, 정치현실의 차이다. 초나라를 포함한 춘추전국말기의 각 제후국에서 변

법을 지지하는 신세력과 반대하는 구세력의 모순이 심했으나, 당시 '사'는 충효의 명분을 확보하고 군주의 신임을 얻는 데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16세기의 조선에서 사림은 동인과 서인이라는 두 붕당이 심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정국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충효의 명분을 확보하고 군주의 신임을 얻는 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열세에 처해 있는 당파는 충효의 명분을 얻고 임금의 마음을 돌리는 데 더욱 큰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굴원이 속한 개혁파와 정철이 속한 서인은 둘 다 열세에 처해 있었으나 임금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달랐다. 굴원은 애인에게 실망한 여성화자와 다른 여자를 찾는 남성화자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원망스러운 심정을 드러내고자 하였지만, 정철은 임에게 애틋한 사랑을 호소하는 여성화자로 충성심을 적극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임금의 마음을 돌리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작가의 군신관의 차이, 국가상황과 정치현실의 차이로 인해 정철은 「이소」에 나타난 군신관계와는 다른 군신관계를 표현하고자 하였고, 「전후미인곡」에서 「이소」와 다른 화자를 설정하였다.

Ⅳ. 시·공간과 진퇴에 대한 인식

문학이란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인간의 삶의 경험은 모두 일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며, 문학에 대한 이해는 시공간의 설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곧 시공간의 설정은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장에서는 굴원의 「이소」와 정철의 「전후미인곡」의 시공간 및 관련 설정에 내포된 작가의 진퇴의식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정철이 왜 시공간을 새롭게 만들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 「이소」

「이소」의 공간을 지상계와 천상계로 나누고, 현실을 묘사하는 「이소」의 부분(서두부터 "霑余襟之浪浪"까지, 1행~91행)의 공간을 지상계, 환유(幻游)를 묘사하는 부분("跪敷衽以陳辭兮"부터 끝까지, 92행~188행)의 공간을 천상계라고 한다.[169] 그러나 「이소」에는 수많은 공간들이 등장하며, 화자가 그 공간들을 이동하는 행적을 중심으로 작품이 전개된다. 과연 화자는 지상계에 있다가 계속 천상계에 가 있고 다시 지상계로 돌아오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천상계와 지상계 외에 다른 공간은 없는 것인가? 공간의 변화는 화자의 감정 변화를 의미하는 만큼 이 두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실로 세속사람들의 수단이 교묘하니
둥근 것과 모난 것을 예사로 바꿉니다.
먹줄은 제쳐 놓고 굽은 것만 좇으며
앞다투어 비위 맞추기만 일삼습니다.
저는 걱정되고 답답해 낙담하고 있습니다.
유독 저만 지금 곤궁에 빠져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이 순간 죽어 강물 따라 내려갈지언정

169) 趙逵夫(1992 b), p.3.

저는 차마 그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사나운 새는 무리를 짓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그랬습니다.
네모난 것과 둥근 것이 어찌 맞겠으며
길이 다른데 어찌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굽히고 뜻을 억누르며
잘못됨을 참고 치욕을 견디겠습니다.
청백한 절개를 품고 정의를 위해 죽는 것은
본시 옛 성현들이 귀중히 여긴 것입니다.

固時俗之工巧兮, 倾規矩而改錯.
背繩墨以追曲兮, 競周容以為度.
忳鬱邑余抴傺兮, 吾獨窮困乎此時也.
寧溘死以流亡兮, 余不忍爲此態也.
鸷鳥之不羣兮, 自前世而固然.
何方圜之能周兮, 夫孰異道而相安.
屈心而抑志兮, 忍尤而攘詬.
伏清白以死直兮, 固前聖之所厚. (46행~53행)

위의 대목에서 남성화자가 과거의 관직 생활을 회억하며 과거의 공간은 어리석은 임이 믿는 간신배와 자신이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한다.「이소」의 화자는 과거에 고국의 조정에 있었다. 법도를 어기고 영합하는 일을 잘하는 간신배와 홀로 고결한 풍모를 지키는 화자는 서로 대조적이다. 임의 믿음을 얻은 간신배의 세력이 강해 화자는 실의에 차 있고 곤궁에 빠져 있다. 화자는 자신을 사나운 매와 모진 것으로 미화하고 소인배를 보통의 새와 둥근 것으로 추하게 묘사하여 자신과 소인배가 서로 용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 무리들 때문에 고국에서 미정(美政)의 이상을 실현시키지 못하니 화자는 자신이 죽더라도 그들과 타협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즉, 화자는 이 공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1) 저 하늘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 모든 것이 오직 영수만을 위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황혼 때 만나자고 말씀하시고
어찌 중도에 길을 바꾸셨네요.
애초에 저와 약속을 해놓으시고
나중에 마음을 바꿔 다른 생각을 가지셨네요.
영수와 이별하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영수의 잦은 변심에 마음이 아파요.

指九天以為正兮, 夫唯靈修之故也.
曰黃昏以爲期兮, 羌中道而改路.
初既與余成言兮, 後悔遁而有他.
余既不難夫離別兮, 傷靈修之數化. (22행~25행)

(2) 영수의 어리석고
끝내 사람의 본심을 살피지 못한 것을 원망해요.
여인들은 저의 아미(蛾眉)를 시기하고
근거 없는 말을 지어내 제가 음탕한 짓을 잘 한다고 비방했어요.

怨靈修之浩蕩兮, 終不察夫民心.
眾女疾余之蛾眉兮, 謠諑謂余以善淫. (44행~45행)

고국의 조정은 여성화자와 영수가 있던 공간을 빗대어 말하기도 한다. 여성화자는 과거를 회억하며 자신이 음탕하다는 뭇 여인들의 모함으로 인해 영수에게 버림받은 사실을 원망하는데, 이는 영수가 믿는 뭇 여인들과 여인이 서로 용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화자는 "당신과 이별하는 것은 두렵지 않다."라고 하여 영수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고, 간사한 여인들과 타협하지 않고 영수에게 영합하지 않을 의지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공간은 재덕이 있는 신하와 그러한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비방하는 간신이 서로를 용납하지 않는 고국의 조정을 빗대어 말하는 공간인데, 여성화자는 이 공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소」에서 과거를 회억하는 부분의 공간은 지상계의 고국의 조정(여

성화자와 임이 있는 공간)이다. 굴원은 남성화자를 통해 자신이 간신배들의 농간에 휘말려 임금과 사이가 멀어지게 된 사정을 말하여 과거의 공간을 간신들과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미정(美政)을 실현시키지 못한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을 드러낸다. 또한, 여성화자를 통해 이러한 사정을 신랄하게 꼬집어서 이 공간을 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이제 현재의 공간을 살펴볼 차례이다. 현재의 시간에서 화자는 공간을 많이 이동하는데 시간과 공간이 이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자.

길을 살피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서성이다 돌아가렵니다.
수레를 돌려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더 먼 곳에서 길을 잃어버리기 전에 말입니다.
난초가 자라는 물가의 언덕에 말을 풀어놓고
산초나무가 우거진 언덕으로 달려가 잠시 쉬렵니다.
직언을 올려 받아들이지 않아 죄 지은 몸 되었으니,
물러나 처음 입었던 옷을 다시 수선하렵니다.
연잎을 마름질해서 상의를 만들고
연꽃을 이어 하의를 만듭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로 내 마음만 고결하면 됩니다.
머리에 쓴 갓을 더욱 높게 올리고
허리에 찬 검을 더욱 길게 합니다.
향기와 악취가 함께 섞여 있더라도
고결한 자질은 해를 입지 않습니다.
문득 고개를 돌려 눈 닿는 곳을 봅니다.
저는 천지의 저 끝을 보러 갈 것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식으로 많이 꾸미면
짙은 향기는 더 잘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유난히 좋아합니다.
몸이 부서지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悔相道之不察兮, 延佇乎吾將反.
回朕車以複路兮, 及行迷之未遠.
步余馬于蘭皐兮, 馳椒丘且焉止息.
進不入以離尤兮, 退將複修吾初服.
制芰荷以爲衣兮, 集芙蓉以爲裳.
不吾知其亦已兮, 苟余情其信芳.
高余冠之岌岌兮, 長余佩之陸離.
芳與澤其雜糅兮, 唯昭質其猶未虧.
忽反顧以遊目兮, 將往觀乎四荒.
佩繽紛其繁飾兮, 芳菲菲其彌章.
民生各有所樂兮, 余獨好修以為常.
雖體解吾猶未變兮, 豈余心之可懲. (54행~65행)

위에 인용한 대목은 「이소」의 남성화자가 간신배가 득세한 고국의 조정에 불만을 품고 지상계의 초야라는 공간으로 물러나는 대목이다. 화자는 간신배의 세력이 강한 고국의 조정에서 정치적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허물만 입은 것을 후회하면서 서성이다가 초야로 돌아가기로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서성이다(延佇)'라는 어휘를 통해 화자가 고국의 조정에 대해 미련이 없지 않은 것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조정을 떠나는 것을 택하고 심성을 수양하려고 한다. 출세하기 전처럼 연잎과 연꽃으로 옷을 만들고 높다란 갓을 더욱 높게 하며 고운 노리개를 길게 늘어뜨린다는 것으로 혼탁한 세속을 멀리하고 고결한 인격을 지키려는 의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초야는 화자가 잠시 머물러 심신을 수양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화자에게 과도적 성격을 지니는 공간일 뿐이다. 화자는 초야에서 원래의 삶을 지내며 잠시 마음의 안정을 얻었던 것 같지만, 곧바로 고국을 떠나 "사방 먼 곳"으로 가서 마음의 평안을 영원히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싶다고 말한다. 즉 초야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므로 화자가 안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것이다.

여수(女嬃)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몇 번이나 저를 이렇게 야단쳤습니다.
"곤(鯀)은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너무 강직하더니
결국 우산(羽山)의 들판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는 어찌 직언을 잘하고 수식하기 좋아해서
이 아름다운 절개를 혼자만 지키려 하느냐?
방에는 조개풀과 도꼬마리가 가득하거늘
어찌 너만 가려내 멀리하며 차지 않으냐.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늘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겠느냐?
사람들은 서로 추겨세우고 무리를 이루길 좋아하는데
어찌 너만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냐."
성현들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르게 판단했건만
온통 탄식만 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완수(沅水)와 상수(湘水)를 건너 남쪽으로 가다가
순임금 계신 곳에서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라의 계(啟)는 '구변(九辯)'과 '구가(九歌)'를 훔쳐
향락을 추구하며 방종을 일삼았습니다.
어려움을 생각해 훗날을 준비하지 아니하여
그의 다섯 아들은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 (중략)
구명을 재지 않고 네모난 장부를 만들다
전대의 성현들은 육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답답하고 울적해 거듭 흐느껴 울곤 합니다.
좋은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이 원통할 뿐입니다.
부드러운 혜초로 눈물을 닦아도
흐르는 눈물은 계속 옷깃을 적십니다.

女嬃之嬋媛兮, 申申其詈予.
曰:鯀婞直以亡身兮, 終然殀乎羽之野.

汝何博謇而好修兮, 紛獨有此姱節.
薠菉葹以盈室兮, 判獨離而不服.
眾不可戶說兮,孰云察余之中情?
世並舉而好朋兮,夫何煢獨而不予聽?
依前聖以節中兮, 喟憑心而歷茲.
濟沅湘以南征兮, 就重華而陳詞.
啟九辯與九歌兮, 夏康娛以自縱.
不顧難以圖後兮, 五子用失乎家巷.
… (중략)
不量鑿而正枘兮,固前修以菹醢.
曾歔欷余鬱邑兮, 哀朕時之不當.
攬茹蕙以掩涕兮, 霑余襟之浪浪. (66행~91행)

이 대목에서 남성화자는 신화·전설속의 인물인 순임금의 묘지가 있는 창오(蒼梧)를 찾아가게 된다고 말한다. 이 대목은 화자와 누이 여수(女嬃)[170]의 대화, 화자와 순임금의 대화로 구성된다.

먼저 여수(女嬃)가 화자의 앞에 나타나는데, 고결한 인격을 표방하여 멀리 떠나려는 화자를 만류한다. 여수는 화자가 아름다운 절개를 혼자만 지키기 때문에 재앙을 초래했다고 비난한다. 여기서 화자를 걱정하는 여수는 향초로 수식하기 좋아하는 화자의 모습과 자록시(薠菉葹)와 같은 악초[171]가 가득한 세속을 대비시켜, 화자에게 혼탁한 시절의 소인배처럼 임에게 영합할 것을 화자에게 권유하고 있다. 한편, 화자는 임금에게 실망해서 조정을 떠난 후 바로 외국에 가지 않고 초야에 가는데, 이를 보면 그는 아직 고국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족조차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자 화자는 고국을 떠나는 일에 대해 더욱 망설인다.

이에 화자는 혼자 아름다운 인격을 지키는 행위와 고국을 떠나려는 생각의

170) "여수는 굴원의 누이이다(女嬃 ,屈原姊也)." (王逸, 「離騷經章句」, 앞의 책, 권1.)

171) "자록시(薠菉葹)는 즉 납가새, 조개풀, 도꼬마리이다. 『시경』에서 "빽빽한 것, 납가세풀이다."라고 하고, "아침 내내 조개풀을 캐었다."라고 한다. 이 세 가지 풀은 다 악초인데 간신배가 옆에 가득하고 있음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다(薠, 蒺藜也. 菉, 王芻也.葹, 枲耳也. 詩曰, 楚楚者薠, 又終朝采菉. 三者皆惡草, 以喻讒佞滿於側者也.)." (王逸, 「離騷經章句」, 앞의 책, 권1.)

합리성을 입증하기 위해 옛 성왕인 순임금에게 하소연하러 창오에 가게 된다. 그는 도리에 따랐기에 순탄하게 국정을 운영했던 현군들과 그렇지 못했던 폭군들의 정(正)·반(反)의 역사적 사실을 열거하며, 자신의 정치사상을 피력함으로써 그가 추구하는 미정(美政)의 이상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 번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다. 화자가 순임금에게 한 말은 여수의 질책에 답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창오는 완수(沅水)와 상수(湘水)의 남쪽에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 공간은 지상계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지상계의 창오는 화자에게 과도적인 공간일 뿐인데, 오래 머무르려 하는 공간이 아니며 단순히 화자가 진퇴에 대한 옛 성인의 뜻을 여쭈어보는 공간이다.

꿇어 앉아 옷섶을 단정히 펼치고 진심을 아룁니다.
저는 정도(正道)를 따랐기에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뿔이 없는 네 마리 옥룡이 끄는 봉황수레를 타고
순식간에 먼지바람을 일으켜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침에 창오(蒼梧)를 출발해
저녁에 현포(縣圃)에 옵니다.
신령들이 계신 이곳에 잠시 쉬고자 하나
해는 어느덧 지려고 합니다.
… (중략)
중매를 서는 사람들 무능하고 어리석어
말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세상이 더럽고 혼탁해 어진 이들이 질시를 받고
좋은 사람은 가리고 나쁜 사람을 받들길 좋아합니다.
궁궐은 깊고 멀며
명철하신 임금은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충정을 품고도 나타낼 길이 없으니
제가 어찌 평생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跪敷衽以陳辭兮, 耿吾既得此中正.
駟玉虬以乘鷖兮, 溘埃風余上征.
朝發軔於蒼梧兮, 夕余至乎縣圃.

欲少留此靈瑣兮, 日忽忽其將暮.
…(중략)
理弱而媒拙兮, 恐導言之不固.
世溷濁而嫉賢兮, 好蔽美而稱惡.
閨中既已邃遠兮, 哲王又不寤.
懷朕情而不發兮, 余焉能忍此終古. (92행~129행)

남성화자는 처음 천상계에 가서 용모가 아름답고 자신과 마음이 통하는 여인을 찾기로 한다. 고국에서의 임이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지만 천상에서 자신을 이해해 주는 여인을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기 때문이다.

순임금에게 자신의 정치적 이상에 대한 견해와 의지를 마음껏 호소하고 난 화자는 "환하게 정도를 얻었다"라고 말한다. 순임금께 인정받았다고 여기자, 그는 여수의 충고로 인해 잠시 흔들렸던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국을 떠나기로 한다. 네 마리의 흰 교룡이 끄는 봉황수레를 타고서 천상으로 올라가 애정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화자가 여인을 찾는 장면에서는 역대의 장관이 펼쳐진다. 그는 창오로부터 곤륜산 위에 있다고 하는 현포(縣圃), 엄자(崦嵫), 함지(咸池), 부상(扶桑), 천제의 딸이 있는 천정(天庭)에 순차적으로 간다. 그 후에 천정에서 점점 내려와 백수(白水), 낭풍(閬風), 춘궁(春宮), 복비(宓妃)가 있는 곳, 간적(簡狄)이 있는 요대(瑤臺), 이요(二姚)가 있는 곳 등에 갔다.[172] 「이소」에서는 많은 신화·전설을 흡수하였는데 이러한 지명, 화자의 차량을 호위하는 태양신 희화(羲和)· 달의 신인 망서(望舒)·바람의 신인 비렴(飛廉)·뇌신인 풍륭(豊隆), 청혼의 대상(천제의 딸, 복비, 간적, 이요), 중매를 서주는 인물(건수)과 신령한 새(짐새, 수비둘기)는 다 신화·전설 속에 등장하는 인명들이라 할 수 있다. 화자는 이상적인

172) 현포(縣圃): 신선이 산다는 곳으로, 곤륜산의 정상에 있음. 엄자(崦嵫): 산 이름. 신화 속의 해가 진다는 곳, 함지(咸池): 태양이 나올 때 목욕하는 천지(天池). 백수(白水): 신화에 나오는 강. 곤륜산에서 발원하며, 그 물을 마시면 죽지 않는다고 한다. 낭풍(閬風): 신선이 사는 산 이름. 곤윤산의 꼭대기에 있다. 춘궁(春宮): 동방의 청제(青帝)가 산다는 선궁(仙宮). (金開誠 외, 앞의 책, pp.85-106.)

여인을 찾기 위해 신령처럼 천상계에서 마음대로 오르내리며 신화·전설 속의 인물들을 호명한다. 신령한 존재들 중에는 화자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자가 없다.

그리고 여인을 찾는 분위기도 낭만적이다. 화자가 청혼을 하려는 대상은 다 신화·전설 속에 유명하고 고귀한 미인들인데 이들은 곧 현실 속의 천자와 제후를 비유한다. 천정이 다른 곳보다 높고 존귀한 곳이므로 천제의 딸을 '고구(高丘)'의 여인이라고 하는데 복비, 간적, 이요를 그의 '하녀(下女)'라고 하고 있다. 그 중에 천제의 딸은 주천자를 빗대어 말한 것이고 '하녀'들인 복비, 간적, 이요는 제후들을 빗대어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173]

이를 보면 꿈이 펼쳐질 수 없는 지상계와 달리 화자에게 천상계는 희망으로 가득 찬 공간이므로 주로 긍정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상계에 있는 조정, 초야와 같은 공간은 화자에게 인생의 이상이 실현될 희망이 없는 공간이다. 그러나 천상에서 여인을 찾는 장면과 분위기는 천상계에 온 화자가 이제 세속의 속박에서 벗어나 마음껏 인생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자신감을 다시 가지게 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실 화자가 이러한 여인들을 발견했지만 그들에게 청혼을 하는 일은 다 실패로 끝난다. "천제의 수문장(帝閽)"이 제녀에게 통보해 주지 않아서 화자가 제녀에게 청혼을 하지 못했다는 경우가 있고, 청혼을 하는 과정에서 복비가 미모를 뽐내며 교만한 사람인 것을 발견하고 청혼을 그만두었다는 경우가 있으며, 좋은 중매인을 못 찾아서 결국 간적과 이요에게 청혼을 하지 않았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실패들은 천상의 여인과 자신이 꼭 마음이 통했던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와 같은 어진 인재를 질투하여 그에게 협조하지 않은 소인배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에 대해 화자는 "세상은 혼탁하고 어진 이들을 질투하여 미덕을 가리고 악을 칭찬하길 좋아한다."라고 하여 천상의 곳곳도 다 깨끗한 곳이 아니라고 한탄하고 있다. 화자는 원래 천상이 고국과 달리 아주 깨끗한 곳이고 천상에서 자신과 마음이 통하는 여인을 쉽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그는 천상에서 이상적인 여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

173) 周建忠, 「「離騷」'求女'研究平議」, 『東南文化』 11期, 2001, p.50.

화자가 고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천상에서 미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는 천상에서 계속 여인을 찾아야 할지 아니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그는 "규중은 이미 깊고 멀어 현명한 임금은 또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 여기서 "규중은 이미 깊고 멀다."는 것은 천상의 미인들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말이고, "현명한 임금 또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고국의 임금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우매하게 간신배를 믿고 있다는 말이다. 이를 보면 화자는 고국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지만 고국의 임금에게 여전히 실망하고 있는 것 같다. 임금이 예전과 같이 어리석으므로 고국의 조정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천상에서 이상적인 여인을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흔들리지만 과거의 공간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여전히 천상에서 계속 여인을 찾아보아야 할지 고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화자는 "내가 어찌 죽을 때까지 이런 상황을 참을 수 있습니까."라는 말에서처럼, 고국의 임금이 자신과 마음이 통하지 않고 천상에서도 자신을 이해해 주는 여인을 찾지 못했던 상황, 어디도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이 상황을 스스로 참지 못하겠다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화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띠풀과 대나무 조각을 찾아와
영분(靈氛)에게 점을 쳐달라고 하니
영분이 말합니다.
"양쪽이 아름다우면 반드시 합쳐질 것이니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대를 그리워하겠소?
넓고 큰 천지를 생각하오.
어찌 이곳에만 여자가 있겠소?"
영분이 또 말합니다.
"주저하며 의심 말고 멀리 떠나시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찌 그대를 버리겠소?
하늘 아래 어느 것인들 향초로운 풀이 없겠소.
어찌 고국에 미련을 두는 것이오?"

…(중략)
저는 영분의 길한 점괘를 따르고 싶으나
속으로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무함(巫咸)이 저녁에 강림하면
저는 화초와 고운 쌀을 들고 그를 맞이합니다.
온갖 신이 하늘을 가리고 내려오니
구의산(九疑山)의 신령들이 잇따라 마중하러 옵니다.
휘황찬란하게 신령스런 빛을 발하며
저에게 그 점괘가 왜 길한가 말해줍니다.
무함이 말했습니다.
"힘써 위아래 오르내리며
법도를 함께 지켜나갈 사람을 찾으라.
탕임금과 우임금은 공경하게 자신과 뜻이 같은 이를 찾았으니
이윤과 고요를 얻어 조화를 이루었다.
실로 그대가 수식을 좋아하면 중매인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중략)
옥패의 소리를 맞추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
잠시 떠돌며 여자를 찾아보렵니다.
제가 꾸민 것에서 향기가 나는 동안
천지를 두루 돌아볼 것입니다.

索藑茅以筵篿兮, 命靈氛為余占之.
曰: 兩美其必合兮, 孰信修而慕之?
思九州之博大兮, 豈惟是其有女?
曰: 勉遠逝而無狐疑兮, 孰求美而釋女?
何所獨無芳草兮, 爾何懷乎故宇?
…(중략)
欲從靈氛之吉占兮, 心猶豫而狐疑.
巫咸將夕降兮, 懷椒糈而要之.
百神翳其備降兮, 九疑繽其並迎.
皇剡剡其揚靈兮, 告余以吉故.
曰: 勉陞降以上下兮, 求榘矱之所同.

湯禹嚴而求合兮, 摯咎繇而能調.
苟中情其好修兮, 又何必用夫行媒?
…(중략)
和調度以自娛兮, 聊浮游而求女.
及余飾之方壯兮, 周流觀乎上下. (130행~167행)

이 대목에서 남성화자는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신화와 전설속의 무당인 영분(靈氛)과 무함(巫咸)[174]이 있는 공간에 가서 전후로 영분에게 점을 치고 무함에게 강신을 해달라고 한다. 먼저 영분이 화자를 위해 점쳤는데 영분의 점괘는 멀리 떠나면 미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영분은 양쪽이 다 아름다우면 필히 결합할 것이라고 한다. 이어서 천지가 넓은데 '이곳(是)', 곧 고국에만 미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 영분의 말은 미인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많아서 멀리 떠나면 반드시 미인을 찾을 수 있으니, 고국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뜻이다. 뒤의 "어느 곳인들 향기로운 풀이 없겠는가. 어찌 고향 땅만 못 잊어 하는가?"라는 말도 고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멀리 떠나라는 뜻이다. 초목의 좋고 나쁨도 구별하지 못하고 옥석의 아름다움을 헤아릴 수 없다는 영분의 말은 고국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 소인배가 많은 공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부각하고 있다.

화자는 영분의 길한 점괘를 따르려 하나 완전히 안심할 수 없어 다시 무함에게 강신을 해달라고 한다. 온갖 천신들이 나타나고 구의산(九疑山)의 신령들이 천신을 마중하러 왔는데 무함의 강신의례는 영분이 점을 치는 것보다 규모가

174) 靈氛(영분): '영(靈)'이라는 글자가 '무(巫)'와 같은 뜻이며 '분(氛)'이 '분(盼)'과 같은 발음이다. 따라서 영분은 곧 상고의 신무(神巫)인 무분(巫盼이다. "靈,巫也." (張揖, 『廣雅』, 四庫全書 電子版.),; "古者葛筮之事亦使巫掌之, 故靈筮二字並從巫."(王念孫, 『廣雅疏證』.) ; "淮南子墜形篇高註曰, 巫咸知天道, 明吉兇, 是靈氛之司職,與巫咸無異. 九歌雲中篇註曰, 楚人名巫為靈, 然則靈氛亦巫也. 山海經大荒西經曰, 大荒之中, 有靈山, 巫咸巫即巫盼巫彭巫姑巫真巫禮巫抵巫謝巫羅十巫, 以此升降, 百藥爰在. 靈巫義同, 氛盼音同, 靈氛殆即巫盼與?"(聞一多, 『聞一多全集』, 湖北人民出版社, 1993.) 巫咸(무함): 상고의 신무이다. ("昔黃神與炎神爭鬥涿鹿之野, 將戰, 筮於巫咸. 巫咸曰, 果哉而有咎." (李昉외, 「皇王部四. 黃帝軒轅氏」, 『太平禦覽』 권79.); "巫咸,堯臣也,以鴻術為帝堯之醫." (李昉 외, 「方術部. 醫一」, 『太平禦覽』 권721, 四庫全書 電子版.) (金開誠 외, 앞의 책, p.126, 134-137 재인용.)

더 큰 것이어서 화자는 무함을 더 신뢰하는 듯하다.[175] 강신의 결과는 영분의 점괘와 일치하는데 신들은 화자가 멀리 떠나야 하는 이유를 보충 설명하면서 떠나고 싶어 하는 화자를 격려한다. 천신들은 옛날 현신이 현군에게 발굴되던 이야기들을 들어 양쪽이 다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좋은 중매인이 없어도 결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보면 화자가 여전히 안심하지 않은 이유가 천상에서 진정한 미인을 찾을 때 좋은 중매자를 못 찾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들은 상대방이 그와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미인이라면 누가 중매를 서주지 않아도 반드시 그와 혼인을 맺을 것이라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중매인이 없어서 혼인을 못 맺었던 대상들이 사실 진정한 미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좋은 중매인이 없는 것을 걱정할 것이 없고 멀리 떠나면 반드시 미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신들은 그의 성품이 고국의 사람들에게 더럽혀지기 전에 빨리 먼 곳으로 떠나라고 권유한다.

여기서 옛 군신의 이야기를 들어 멀리 가서 여인을 찾는 일의 합리성을 입증하는 것은 여인을 찾는 일이 곧 현군을 찾는 일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듯하다. 좋은 중매인이 없어도 미인과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현군이라면 그의 측근이 특정 현신을 추천해 주지 않아도 반드시 그 현신을 중용할 것임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이렇듯 영분과 무함이 있는 공간은 순임금의 묘지가 있는 창오처럼 과도적인 공간일 뿐인데 그럼에도 인생의 길에 대한 답을 찾는 공간이다. 또한, 이 공간은 창오처럼 지상계의 공간이다. 다음 대목에서 화자가 다시 행차준비를 하여 천상으로 날아오르게 된다는 것을 보면 화자가 천상이 아닌 지상계에서 영분과 무함을 만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무당이 신의 뜻을 얻어 인간에게 전달하는 존재이니 천상에 갈 때도 있지만 일반인처럼 지상에 사는 존재라는 인식과 일치한다. 한마디로, 영분과 무함이 있는 공간은 인생의 길에 대한 답을 찾는 지상계의 공간이다.

그러면 화자가 답을 찾은 후 어디로 향하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자.

---

175) 楊義, 『楊義文存·第七卷』, 人民出版社, 1998, p.117.

영분이 이미 길한 점괘를 나에게 알려주었으니
저는 길일을 골라 떠나려 합니다.
옥나무의 가지를 꺾어 반 반찬으로 삼고
옥가루를 잘 추려 건량으로 삼습니다.
비룡이 나 위해 수레를 몰고
옥돌과 상아를 섞어 수레를 꾸밉니다.
마음이 다르니 어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스스로 멀리 떠나겠습니다.
…(중략)
깃발을 내리고 수레를 멈추니
마음은 저 한 없는 곳을 달려갑니다.
'구가(九歌)'를 연주하고 '구소(九韶)에 맞춰 춤을 추며
이 순간을 빌려 한껏 즐겨봅니다.
이제 막 떠오른 태양이 휘황찬란한 빛을 비추니
문득 저 아래로 고향을 봅니다.
마부는 슬퍼하고 말은 그리워하며
머뭇머뭇 쳐다보며 가지 않습니다.

靈氛既告余以吉占兮, 曆吉日乎吾將行.
折瓊枝以為羞兮, 精瓊糜以為粻.
為余駕飛龍兮, 雜瑤象以為車.
何離心之可同兮, 吾將遠逝以自疏.
…(중략)
抑志而弭節兮, 神高馳之邈邈.
奏九歌而舞韶兮, 聊假日以娛樂.
陟升皇之赫戲兮, 忽臨睨夫舊鄉.
仆夫悲余馬懷兮, 蜷局顧而不行. (168행~185행)

화자가 영분의 점괘에 따라 다시 천상에 가서 미인을 찾기로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천상계에 대한 의심이 잠시 생겼지만 역시 천상계를 주로 긍정적인 공간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자는 자신과 "마음이 다른" 임을 스스로 멀리

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그가 천상으로의 여행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모두 평범하지 않은 것을 통해 그가 다시 결심을 했음을 느낄 수 있다. 노정에서 먹을 음식을 모두 정결한 옥으로 준비하고, 비룡(飛龍)을 앞세우고 옥과 상아로 장식한 수레를 준비하였다. 이번에 향초보다 변치 않는 옥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보면 영분, 무함과 대화한 후 잠시 흔들린 마음을 안정시키고 소인배와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는 신념이 더욱 더 확고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천상을 돌아다니다가 고국에 대한 미련을 새삼 느껴 또 다시 망설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 화자는 문득 저 아래 있는 고향의 땅을 내려다보는데, '웅크리고' '돌아다보고' '나아가질 못하고' 하는 말과 함께 마부의 모습을 통해, 고국을 차마 떠나지 못하는 감정을 드러낸다. 화자는 가족의 질책, 여인을 찾지 못한다는 걱정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만 고국에 대한 미련은 늘 완전히 버릴 수 없다. 그러므로 그가 고국의 땅을 내려다보는 것은 고국에 대한 깊은 정을 쉽게 물리칠 수 없는 자신이 이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암시한다.

위와 같이 현재 시간에 화자의 공간은 자주 변하는데 천상과 지상의 공간을 계속 오르내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화자가 초야(지상계)-창오(지상계)-천상계-영분과 무함이 있는 곳(지상계), 천상계라는 노선에 따라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처럼 지상계를 떠난 후 화자가 계속 천상계에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천상계와 지상계의 공간을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그가 앞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그의 마음이 많이 방황하고 있음을 부각하기 위함이다. 그는 초야로 물러난 뒤에 천상의 여인을 동경하는데 주로 가족의 질책을 받거나, 천상에서 이상적인 여인을 못 찾거나, 고국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세 번 마음이 흔들린다. 그 중에 고국에 대한 미련은 화자에게 늘 존재하는 문제이다. 주로 가족의 불만과 외국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흔들렸던 마음은 극복할 수 있었지만 끝내 고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다. 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마음이 흔들렸을 때 지상계의 창오에 가서 답을 찾았고, 처음에 천상에서 여인을 못 찾게 된 후 지상계에 내려와 답을 찾았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 지상의 고국과 천상계 사이에서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렇게 마음이 자주

흔들렸기 때문에 화자는 천지간의 이동을 계속한 것이다.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듯 빨리 흐르는 양상도 공간의 잦은 변화와 호응하는데 이 역시 미래에 대한 화자의 방황을 반영한다. 「이소」에서는 시간변화의 궤적을 분명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단지 "아침에…저녁에…"와 같은 문장구조나 '순식간', '갑자기'와 같은 단어가 자주 나타나 시간이 빨리 흐르는 모습을 나타낸다. "시간은 흐르는 물처럼 빨라 따라잡을 수 없으니 나를 기다려주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汩余若將不及兮,恐年歲之不吾與.)"나 "약목(若木)을 꺾어 해를 털고 잠시 자유롭게 둘러봅니다.(折若木以拂日兮,聊逍遙以相羊.)"라는 말을 통해 화자가 지상계에서나 천상계에서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을 두려워해서 막고 싶어하는 심정을 엿볼 수 있다. 이렇듯 「이소」에서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듯 빨리 흐르는 모습만 강조하는데 이와 더불어 시간의 순환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도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 묘사를 통해 화자는 빨리 공간 이동을 하여 일찍 인생의 길을 찾아내고 방황을 끝내고 싶은 마음을 부각한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본고에서는 「이소」의 화자가 빨리 흐르는 시간에 따라 천상계와 지상계라는 다른 계의 두 공간 사이에서 이동하여, 앞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화자의 마음이 방황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현재 시점의 시공간의 변화양상은 고국에 대한 사랑을 비롯한 여러 문제로 인해 고국의 조정과 다른 국가 사이에서 방황하는 작가 굴원의 진퇴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굴원은 실제로 평생 초나라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작품을 보면 굴원은 천상계에 비유하는 다른 국가에 가서 현군을 찾으려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이소」에 나타난 현재 시점의 시공간의 변화양상을 보면 고결한 인격을 표방해서 멀리 떠나려는 자신에 대한 가족의 불만과 외국에서 현군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걱정, 고국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는 망설였던 것 같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크고 항상 존재하는 문제는 고국에 대한 미련이었다. 가족의 불만과 외국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흔들렸던 마음은 극복할 수 있었지만 끝내 고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초나라를 떠나지 못했던 것이다.

「이소」의 결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화자가 소원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작가의 진퇴의식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미래에 어디에 가려고 할 지를 추론하고 그 시공간에 드러난 작가의

진퇴의식을 살펴보자.

마무리: 이제 그만 하리.
이 나라에는 알아주는 사람 없으니
고국에 무슨 미련을 두리.
미정을 함께 할 사람이 없으니
나는 팽함이 없는 곳으로 가리라.

亂曰,: 已矣哉.
國無人莫我知兮,
又何懷乎故都?
既莫足爲美政兮,
吾將從彭咸之所居. (186행~188행)

남성화자가 천상계와 지상계의 고국에 대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미래에 "팽함(彭咸)이 거처하는 곳"으로 가겠다고 한 난사(亂辭), 곧 결말이다. 난사의 첫머리에서 '끝나다(已)'라고 하는 말에, 숨을 길게 내쉬며 한탄하는 '의(矣)'와 '재(哉)'라는 두 개의 어조사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지상계의 고국과 천상계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현실에 대한 절망감의 깊이를 유감없이 드러낸다. "이 나라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고국에 무슨 미련을 두겠습니까?"라는 반문을 통해 화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고국에 대한 미련 때문에 천상에서 여인을 찾는 일을 주저했던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그가 고국의 정치에 대해 실망했던 것도 새삼 느낄 수 있다. 고국을 차마 버리지 못하지만 고국의 어리석은 임금, 탐욕을 일삼는 간신들과 함께 아름다운 정치를 실현하지 못하니 화자는 팽함이 거처하는 곳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는 보통 「이소」의 공간을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누면서 팽함이 사는 곳이라는 공간은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화자가 아직 이 공간에 가지 않았고 이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도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팽함이 거처하는 곳이 어디에 있고 어떤 방식으로 팽함이 거처하는 곳으로 가는가?

대부분의 초사 연구자는 왕일의 주석에 따라 팽함이 은(殷)나라 때 임금에게

직간(直諫)했지만 듣지 않자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던 현신(賢臣)이라고 주장한다.[176] 이를 따르면 팽함이 은나라의 현신이라는 점, 자살했다는 점, 사망 후 물속에 거처한다는 점도 알 수 있다. 팽함에 관한 자료가 전해지지 않아서 팽함이 사는 시대와 죽었던 이유 등 왕일의 관점들이 일일이 다 증명될 수 없다. 그러나 굴원의 작품을 통해 팽함에 대한 두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듯하다.

첫째로, 팽함이 현신이었다는 점이다. 팽함은 「이소」, 「사미인(思美人)」을 비롯한 굴원의 작품들에서 현신의 전범으로서 몇 번 등장한다. 예를 들면, 「이소」에서 "오늘의 사람들에 맞지 않더라도 팽함의 남기신 바른 도리에 기대고 싶구나."[177]라고 하고, 「비회풍(悲回風)」에서 "어찌하여 팽함이 이런 생각을 하였을까. 절개를 같이하며 잊지 못하겠네."[178]라고 한다. 팽함이 굴원의 초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현신의 전범이기 때문에 팽함은 굴원이 가장 추앙하는 옛 현신이라 볼 수 있다.

둘째로, 팽함이 죽은 후 거처하는 곳이 물 속, 곧 지하계라는 점이다. 황숭호(黃崇浩)는 이 공간에 주목하면서 해당 공간을 조령계(祖靈界)로 정의하였다. 그는 고대의 문화자료를 원용하여 팽(彭)씨가 촉지(蜀地)의 민강(岷江) 지역에 살았고 초나라의 발상지도 민강 지역이기 때문에 팽함이 초나라 사람의 조상이고 팽함이 죽어서 사는 곳이 초나라 사람의 조상들의 영혼이 모여 있는 곳, 이른바 '조령계'라는 곳이라고 주장하였다.[179] 그러나 이러한 고증방법은 다소 견강부회의 느낌을 준다. "큰 파도를 타고 바람 따라 노닐며 팽함이 거처하는 곳에 몸을 맡기네."라는 굴원의 「비회풍」 구절을 통해 팽함이 거처하는 곳이 수중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팽함이 사는 곳이 조령계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수중임을 감안할 때 지상계, 천상계와 구별된 지하계로 정의할 수 있는 듯하다. 문제해결의 공간인 지하계가 있으니 선행연구처럼 「이소」에 지상계와 천상계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176)"彭咸, 殷賢大夫, 諫其君不聽, 自投水而死." (王逸, 「離騷經章句」, 앞의 책, 권1; 朱熹, 앞의 책, 蔣立甫 校點(2001), p.12.)

177) "雖不周於今之人兮, 願依彭咸之遺則." (屈原, 「離騷」.)

178) "夫何彭咸之造思兮, 暨志介而不忘." (屈原, 「悲回風」.)

179) 黃崇浩, 「"彭咸"研究」, 戴錫琦 외(2007), pp.89-91.

이 지하계는 팽함의 영혼의 안식처일 것이다. 굴원의 초사 중에 영혼과 관련된 작품이 많은데 「초혼(招魂)」, 「예혼(禮魂)」 등의 작품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작품에서 "몸은 비록 죽어도 혼령은 산다."[180]라는 말이 있고 "이 내 영혼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181]라는 말도 있다. 아마 작가가 인간이 죽은 후 영혼이 소멸되지 않고 육체를 떠나[182] 어디 가서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팽함이 죽은 사람이라서 그가 거처하는 곳이 그의 영혼이 거처하는 곳, 즉 영혼의 안식처일 것이다.

화자가 스스로 물에 빠져 죽음으로써 팽함이 거처하는 곳으로 가려고 한 것이다. 화자가 팽함이 거처하는 곳으로 가고자 한 것은 아마도 그 자신이 죽어서 안식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화자가 천상계에 가서 여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화자가 신비로운 힘으로 살아서 팽함이 거처하는 곳으로 간다면 그가 과연 현실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살아 있으면 그가 여전히 고국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지 못하고 천상계에 가서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단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죽어서 안식해야 고국과 천상계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문제를 다시 고민하지 않고 지금의 진퇴양난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화자가 팽함이 거처하는 곳으로 가겠다는 것은 죽어서 영원한 안식을 얻겠다는 뜻이라고 본다. 앞에서 팽함이 거처하는 곳이 물 속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죽어서 물 속에서 안식하려면 보통 스스로 물에 빠져 죽어야 한다.

화자는 옛 현신처럼 죽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는 그가 애국 때문에 다른 국가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지만 간신배가 득세한 고국의 조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는 생각을 드러내면서, 고국에 대한 깊은 사랑과 올바른 정치의 이상을 다 지키고자 한 그의 의지를 드러낸다. 사실 화자가 과거를 추억하면서 고국의 소인배와 타협하느니 옛 현인처럼 죽음을 택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다.[183] 이러한 말을 한 시점에 화자는 아직 다른 길의 가능성을

180) "身既死兮神以靈." (屈原, 『九歌·國殤』.)

181) "羌靈魂之欲歸兮." (屈原, 「哀郢」.)

182) 顔翔林, 『楚辭美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2, p.83.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 말 자체는 화자가 미정(美政)의 이상을 지키는 의지를 표방하는 것이지 죽음의 뜻을 결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고국에서 이상을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고국을 차마 버리지 못하겠다는 감정을 깊이 느낀 순간, 화자는 자신의 앞에 길이 없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따라서 화자는 팽함처럼 죽어서 안식하는 것을 통해 두 가지 고민을 버리고 해결하기로 결심한다. 죽음으로 고민을 해결하겠다고 하여 고국의 정치에 대한 분노와 다른 국가에 가서 이상을 추구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표현한다. 이와 동시에 죽으면 애국과 미정의 이상 중에서 다시 선택할 필요가 없으니 애국과 미정의 이상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의지는 작품의 제목인 '이소'와 호응하고 있다. '이소'는 '이별(離別)'의 '우수(憂愁)'라는 뜻이다. 왕일은 이 제목이 굴원이 조정에서 배척당해서 임금과 이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184] 곧 왕일과 같은 주석가나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이별'은 주로 임금과의 이별에 초점을 맞추어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의 분석을 보면 이 '이별'은 자신이 실망하게 한 임금보다 고국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별의 우수"는 고국을 떠나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의미한다. 결국 작가가 이러한 '우수'를 해결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한다고 볼 수 있다. 굴원은 죽음으로써 고국에 대한 사랑과 미정의 이상을 지키고자 한다고 말하고 죽음으로써 고국의 정치에 대한 분노와 다른 국가에 가서 이상을 추구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결말은 비장미를 담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비장의 결말로 작품의 주제를 심화시켰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본고에서는 「이소」의 시공간 설정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소」의 공간은 다원적이고 다양한 의미의 공간을 상징하는데, 고국의 조정(부정적 공간), 초야(과도적 공간), 답을 찾는 두 공간(과도적 공간)을 포함한 지상계, 다른 나라를 상징하는 천상계(긍정적 공간), 지하계(문제해결의 공간)라는 세 개의 차원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 천상계와 지상계는 각각 희망이 가득 찬 공간과 꿈이 실현될 수 없는 공간을

183) "伏清白以死直兮,固前聖之所厚."; 『离骚』, "雖不周於今之人兮, 願依彭咸之遺則." (屈原, 「离骚」.)

184) "離, 別也. 騷, 愁也. 經, 徑也. 言己放逐離別, 中心愁思, 猶陳直徑, 以風諫君也." (王逸, 「 離騷經序」, 앞의 책, 권1.)

의미하는데 대조적인 공간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소」의 시공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현재 시간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듯 빨리 흐르는 시간에 따라 천상계와 지상계라는 다른 계의 두 공간 사이에서 이동한다. 둘째, 「이소」의 시공간 구조는 순환되지 않는데 과거의 공간과 미래의 공간은 같은 공간이 아니다.

이러한 시공간의 특징은 굴원의 진퇴의식을 반영한다. 먼저, 굴원은 천하에 미정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는 다른 국가에 가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 다만 항상 고국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 망설였다는 것이다. 또한, 결국 그는 애국 때문에 다른 국가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지만 간신배가 득세한 고국의 조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는 죽더라도 고국에 대한 깊은 사랑과 올바른 정치의 이상을 다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고 고국의 정치에 대한 분노와 다른 국가에 가서 이상을 추구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표현한다.

2. 「전후미인곡」

보통 「전후미인곡」의 공간이 지상계와 천상계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본절에서는 이 점을 확인해 보고 「전후미인곡」의 시공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사미인곡」의 시공간을 살펴보자.

이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ᄒᆞᆫ싱 緣연分분이며 하ᄂᆞᆯ 모ᄅᆞᆯ 일이런가
나 ᄒᆞ나 졈어 잇고 님 ᄒᆞ나 날 괴시니
이 ᄆᆞ음 이 ᄉᆞ랑 견ᄌᆞᆯ ᄃᆡ 노여 업다
平평生ᄉᆡᆼ애 願원ᄒᆞ요ᄃᆡ ᄒᆞᆫᄃᆡ 녜쟈 ᄒᆞ얏더니
늙거야 ᄆᆞᄉᆞ 일로 외오 두고 그리ᄂᆞᆫ고
엇그제 님을 뫼셔 廣광寒한殿뎐의 올낫더니
그 더ᄃᆡ 엇디ᄒᆞ야 下하界계예 ᄂᆞ려오니 (1행~8행)

「사미인곡」의 여성화자가 '광한전'으로 표현된 천상계에서 임과 함께 지내던 과거를 추억하며 천상계를 떠나고 싶지 않는 심정을 드러낸다. 화자는 임과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여 애초에 평생 임의 곁에 머물고자 하였다. 그러나 끝내 늙었을 때 지상계로 쫓겨나게 된다. 임과 광한전에 올라 있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지상계로 내려오게 되었느냐고 하여 임과의 이별을 믿지 못하는 심정을 토로한다. 이 심정을 통해 화자가 천상계라는 과거의 공간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엿볼 수 있다. 화자는 임과 임의 주변인물을 탓하지 않는데 임이 어리석은 존재이며 임의 주변인물들을 용납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평생 함께 살자고 하고 계절변화조차 없는 듯한 천상계는 화자에게 아름답고 평안한 세계이고 영원한 사랑의 세계이다. 화자는 과거의 공간인 천상계를 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철은 「사미인곡」에서 여성화자로 천상계의 광한전에 비유한 조정을 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공간을 떠나고 싶지 않은 심정을 나타낸다. 여기서 그는 조정에서 배척당해도 조정을 어리석은 임금이 있고 임금의 옆에 있는 정적들로 인해 부정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 다음으로 「사미인곡」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을 서술하는 부분의 시공간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자.

> 올 저긔 비슨 머리 헛틀언디 삼년일쇠
> 臙연脂지粉분 잇닉마ᄂᆞᆫ 눌 위ᄒᆞ야 고이 홀고
> ᄆᆞ음의 ᄆᆡ친 실음 疊텹疊텹이 ᄡᅡ혀 이셔
> 짓ᄂᆞ니 한숨이오 디ᄂᆞ니 눈물이라
> 人인生ᄉᆡᆼ은 有유限ᄒᆞᆫᄒᆞᆫᄃᆡ 시ᄅᆞᆷ도 그지업다 (9행~13행)

「사미인곡」에서 이별 이후 최근 3년의 일을 노래하여 사계절에 따른 술회(述懷)의 서막을 열었던 대목이다. 임과 헤어지게 된 지 삼 년이 되었다. 그러나 광한전에서 하계로 내려온 뒤로는 흐트러진 머리도 다듬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으니, 슬픔이 한숨이 되고 눈물이 되었다. 여기서 현재 자신의 심사가 어떠한

가를 여실히 알리고 있다. 곧 그는 하계에 있고 싶지 않다. 그 다음 대목부터 이러한 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無무心심ᄒᆞᆫ 歲셰月월은 믈 흐ᄅᆞᄃᆞᆺ ᄒᆞᄂᆞᆫ고야
炎염凉냥이 째를 아라 가ᄂᆞᆫᄃᆞᆺ 고텨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늣길 일도 하도 할샤
東동風풍이 건듯 부러 積젹雪셜을 헤텨 내니
窓창 밧긔 심근 梅ᄆᆡ花화 두세 가지 픠여셰라
ᄀᆞᆺ득 冷닝淡담ᄒᆞᆫᄃᆡ 暗암香향은 므ᄉᆞ 일고
黃황昏혼의 ᄃᆞᆯ이 조차 벼마ᄐᆡ 빗최니
늣기ᄂᆞᆫ ᄃᆞᆺ 반기ᄂᆞᆫ ᄃᆞᆺ 님이신가 아니신가
… (중략)
ᄭᅩᆺ 디고 새닙 나니 綠녹陰음이 ᄉᆞᆯ렷ᄂᆞᆫᄃᆡ
羅나幃위 寂젹寞막ᄒᆞ고 繡슈幕막이 뷔여 잇다
芙부蓉용을 거더 노코 孔공雀쟉을 둘러 두니
ᄀᆞᆺ득 시름한ᄃᆡ 날은 엇디 기돗던고
鴻원鴦앙錦금 버혀 노코 五오色ᄉᆡᆨ線션 플텨내여
금자히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내니
手슈品품은 ᄏᆞ니와 制졔度도도 ᄀᆞᄌᆞᆯ시고
珊산瑚호樹슈 지게 우히 白ᄇᆡᆨ玉옥函함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ᄃᆡ ᄇᆞ라보니
… (중략)
ᄒᆞᄅᆞ밤 서리김의 기러기 우러녈제
危위樓루에 혼자 올나 水슈晶졍簾념을 거든마리
東동山산의 ᄃᆞᆯ이 나고 北북極극의 별이 뵈니
님인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淸쳥光광을 픠워 내여 鳳봉凰황樓누의 븟티고져
… (중략)
乾건坤곤이 閉폐鎖ᄉᆡᆨᄒᆞ야 白ᄇᆡᆨ雪셜이 ᄒᆞᆫ비친 제
사ᄅᆞᆷ은 ᄏᆞ니와 ᄂᆞᆯ새도 긋쳐 잇다
瀟쇼湘샹南남畔반도 치오미 이러커든

玉옥樓누高고處쳐야 더욱 닐너 므슴ᄒᆞ리
陽양春츈을 부처 내여 님 겨신 ᄃᆡ 쏘이고져
茅모簷쳠 비쵠 ᄒᆡ를 玉옥樓누의 올리고져
紅홍裳샹을 니믜ᄎᆞ고 翠취袖슈를 半반만 거더
日일暮모脩슈竹듁의 혬가림도 하도 할샤
댜른 ᄒᆡ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靑쳥燈등 거론 겻ᄐᆡ 鉶뎡篁공篌후 노하 두고
쑴의나 님을 보려 ᄐᆞᆨ 밧고 비겨시니
鴈앙衾금도 ᄎᆞ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샐고 (14행~54행)

「사미인곡」의 화자의 하계 생활은 순환성을 가지는 계절의 바뀜으로 형상화되고, 현재의 공간은 구체적으로 규방, 창밖, 높은 누각, 대나무가 있는 곳 등 지상계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천상계와 달리 지상계에 계절의 변화가 있다. 세월의 흐름이 물 흐르는 듯하고 염량(炎凉)이 때를 알아 가는 듯하면 다시 온다고 표현하면서 계절의 바뀜이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즉 "동풍이 살짝 불어" 봄이 왔고,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려 여름이 왔으며, "하루 밤 서리 기운에" 가을이 왔다고 하였다. "인생은 유한한"데서 느끼는 초조감의 표현이다. 한편, 화자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텅 빈 규방을 혼자 지키는 여름에는 날이 길고, 잠도 못 드는 추운 겨울에는 밤이 길어서 아주 고독하다. 날이 길면서도 빨리 바뀌는 계절은 화자의 초조하고 외로운 심정을 부각시키고 있다. 아름답고 평안한 천상계와 달리 지상계는 화자에게 지루하고 고통이 가득 찬 세계일 것이다. 초조하고 외로운 화자는 아름다운 봄에 창밖에 가서 매화를 꺾거나, 더운 여름에 규방에서 옷을 짓거나, 서늘하고 상쾌한 가을철에 높은 누각에 오르거나, 적막한 겨울에 대나무에 기대어 고민을 하거나 규방에서 잠을 자기도 한다. 여기서 나타난 구체적인 공간은 규방, 창밖, 위루, 대나무가 있는 곳과 같은 공간이다. 「사미인곡」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적인데 규방은 물론 다른 곳들도 화자의 집이나 집 근처일 것이다. 이러한 공간은 다 지상계의 공간이다.

이를 보면 현재 시간에 「사미인곡」의 화자가 계절에 따라 지상계의 각 공간 사이를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계절은 순환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간들은 다

같은 차원의 공간에 속하고 있다. 화자는 이러한 시공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가? 천상계에 있을 때 행복한 느낌만 드는 그가 지상계에서 이렇게 초조하고 외로운 느낌이 드는 원인을 살펴보자.

화자는 계절에 따라 지상계에서 공간을 이동하면서 임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보내고 싶어 한다. 봄에는 아름다운 구경거리이자 지조를 상징하는 가장 일찍 피는 매화,[185] 여름에는 최상의 재료로 스스로 지은 화려한 옷, 가을에는 모든 곳의 어둠을 없애버릴 수 있는 밝은 달빛과 별빛, 겨울에는 따뜻한 햇빛이다. 화자는 이러한 물건들이 좋은 것이며 임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임에게 보내고 싶어 한다.

이러한 물건들은 화자가 임을 그리워하고 임의 옆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화자는 좋은 것이라면 다 임에게 바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비친다. 이를 통해 임이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좋은 물건을 보내는 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화를 임에게 보내고 싶은데 반가워하실까 걱정하고, 옷을 임에게 보내고 싶으나 천리만리 길이 너무 험하고, 가더라도 반가워하실지 모르겠다고 한다. 좋은 것을 보내더라도 임이 그것을 보면 반가워하실까 걱정하여 임 앞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임이 그에게 그만큼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이러한 물건들에는 그에게 소중하고 신성한 임을 그리워하고 임의 옆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한편, 이러한 물건들은 화자가 임을 걱정해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상징한다. 임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임에게 딴 마음이 없었다는 자기 결백을 천명하면서, 자신이 임을 보살피는 데 불가결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이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물건들에 자신이 걱정하는 임의 옆에 돌아가야 한다는 의식이 담겨 있다.

따라서 화자는 계절에 따라 지상계의 각 공간 사이에서 이동을 하면서 천상계의 임을 그리워하고 걱정하기만 하는 단조로운 날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정은 그가 임을 사랑하고 임에게 필요한 사람이라서 임의 옆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바꾸어 말하면, 화자가 현재의 공간을 부정적으

185) 정재호 외, 앞의 책, p.156.

로 보고 있고 현재의 공간을 떠나고 싶어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정철의 「전후미인곡」에서 화자가 계절에 따라 지상계의 공간 사이에서 이동을 하면서 임을 그리워하고 걱정해서 현재의 공간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정철은 「전후미인곡」에서 이러한 시공간을 설정하여 자신의 충심과 재능을 표방하면서 임금의 부름을 받고 다시 조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토로한다. 정철은 동인의 탄핵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물러났다. 그러나 「전후미인곡」을 보면 그는 다시 조정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아주 간절해 보인다.

작품의 결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화자가 소원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작가의 진퇴의식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미래의 공간과 그 시공간에 드러난 작가의 진퇴의식을 살펴보자.

ᄒᆞᄅᆞ도 열두 째 ᄒᆞᆫ 둘도 셜흔 날
져근덧 ᄉᆡᆼ각 마라 이 시ᄅᆞᆷ 닛쟈 ᄒᆞ니
ᄆᆞᅀᆞᆷ의 ᄆᆡ쳐 이셔 骨골髓슈의 ᄡᅦ텨시니
扁편鵲쟉이 열히 오다 이 병을 엇디ᄒᆞ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탓이로다
출하리 ᄉᆡ어디여 범나븨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ᄃᆡ 죡죡 안니다가
향 므틴 ᄂᆞᆯ애로 님의 오ᄉᆡ 올므리라
님이야 날인줄 모ᄅᆞ셔도 내 님 조ᄎᆞ려 하노라 (55행~63행)

결말에서 천상계로 돌아갈 수 없던 화자가 하계에 있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괴로워졌다고 말한다. 마침내 편작(扁鵲)도 못 고치는 병에 걸렸던 것은 그가 절망과 비탄의 심리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말해 준다. 화자는 "어와 내 병이야 이 임의 탓이로다."라고 한다. 현재의 일을 서술하는 대목에서 더 이상 천상계로 돌아가 임을 모시기 어려우면서 임을 그리워하고 걱정한다고 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듯, 여기서의 원망은 일반적인 원망보다는 임을 향한 그리움과 걱정을 버릴 수 없다는 확인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말에서 임의 옆에 돌아가지 못해서 임을 원망하는 감정과 함께 임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을 표출한다. 화자는 지상계에 머무르고 싶은 심정이 없어 보인다.

화자는 변신을 통해 영원한 사랑의 세계인 천상계로 돌아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임의 곁에 돌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몸이 되기 위해 화자는 "차라리 물 새듯이 없어지고 범나비로 되고 싶다"고 한다. 물 새듯이 없어지고 범나비가 된다는 것은 몸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종의 '변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변신은 단지 몸의 변화를 의미할 뿐이고 영혼이 안식하는 것이 아니다. 범나비가 되어 꽃마다 앉아 진한 향을 묻힌 날개로 임의 옷에 앉고 싶다는 것은 그 향기를 임에게 전하며 임과의 우아한 합일을 이루고 싶다는 뜻이다. 화자는 아름답고 우아한 범나비가 되어 임의 옆으로 돌아가고 싶은 연정을 임에게 표현하고자 한다. 살아서 그리운 임과 우아하게 다시 합일하고 임에게 연정을 표현할 수 있으니 이 결말은 아주 비장하지 않다. 그러나 결말에서 "임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내 임 좇으려 하노라."라고 하는데 임이 범나비로 변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 결말은 다소 비극적이다. 원망보다 사랑을 상징하면서 임이 알아보지 못할 범나비로 변하겠다는 「사미인곡」의 결말은 사랑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과 어떻게든 임의 곁에 돌아가고 임에 대한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것이 임을 향한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결말에서 보여주는 화자의 의지는 「사미인곡」의 제목인 '사미인'의 의미와 상응한다. 정철은 이 변신 모티프를 통해 임금의 곁에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임금에 대한 사랑을 영원히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결말로 작품의 주제를 심화시켰다. 그 다음으로 「속미인곡」의 시공간과 그 내포된 작가의 진퇴의식이 「사미인곡」과 같은지 살펴보자.

뎨 가ᄂᆞᆫ 뎌 각시 본 듯도 ᄒᆞᆫ뎌이고
天텬上샹 白빅玉옥京경을 엇디ᄒᆞ야 離니別별ᄒᆞ고
ᄒᆡ 다 뎌 져믄 날의 눌을 보라 가시ᄂᆞᆫ고
어와 네여이고 이내 ᄉᆞ셜 드러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얌즉 ᄒᆞᆫ가마ᄂᆞᆫ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ᄉᆡ
… (중략)

내 몸의 지은 죄 뫼ᄀᆞ티 빠혀시니
하ᄂᆞᆯ히라 원망ᄒᆞ며 사ᄅᆞᆷ이라 허믈ᄒᆞ랴
셜워 플텨혜니 造조物믈의 타시로다
글란 싱각마오 ᄆᆡ친 일이 이셔이다 (1행~14행)

「속미인곡」의 여성화자 을이 갑과 함께 '백옥경'으로 표현된 천상계에서 임과 함께 지내던 과거를 기억하며 천상계를 떠나고 싶지 않은 심정을 드러낸다. 임과 숙명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한 을은 임과 이별하게 된 후 억울한 심정이 없지 않지만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 을도 임과 임의 주변인물을 공공연히 탓하지 않는데 임이 어리석고 자신이 임의 주변인물과 서로 용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공간인식은 해가 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느냐는 갑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표현 가운데, 화자 을이 천상계와 천상계에 있는 임을 그리워하는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 곧 「속미인곡」의 화자 을에게 천상계는 행복한 세계인데 을은 과거의 공간인 천상계를 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정철은 「속미인곡」에서 여성화자로 천상계의 백옥경에 비유한 조정을 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공간을 떠나고 싶지 않은 심정을 나타낸다. 여기서도 그는 조정에서 배척당해도 조정을 어리석은 임금이 있고 임금의 옆에 있는 정적들로 인해 부정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님을 뫼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믈 ᄀᆞᄐᆞᆫ 얼굴이 편ᄒᆞ실 적 몃 날일고
春츈寒한苦고熱열은 엇디ᄒᆞ야 디내시며
秋츄日일冬동天텬은 뉘라셔 뫼셧ᄂᆞᆫ고
粥쥭朝조飯반 朝죠夕셕뫼 녜와 ᄀᆞ티 셰시ᄂᆞᆫ가
기나긴 밤의 ᄌᆞᆷ은 엇디 자시ᄂᆞᆫ고
님다히 消쇼息식을 아므려나 아쟈 ᄒᆞ니
오ᄂᆞᆯ도 거의로다 ᄂᆡ일이나 사ᄅᆞᆷ 올가
내 ᄆᆞᄋᆞᆷ 둘 ᄃᆡ 업다 어드러로 가쟛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놉픈 뫼히 올라가니

… (중략)
출하리 믈ᄀᆞ의 가 ᄇᆡ길히나 보랴 ᄒᆞ니
… (중략)
茅모簷쳠 ᄎᆞᆫ 자리의 밤듕만 도라오니
… (중략)
精졍誠셩이 지극ᄒᆞ야 쑴의 님을 보니
玉옥 ᄀᆞᄐᆞᆫ 얼구리 半반이 나마 늘거셰라
ᄆᆞᄋᆞᆷ의 머근 말ᄉᆞᆷ 슬ᄏᆞ장 ᄉᆞᆲ쟈 ᄒᆞ니
눈물이 바라나니 말ᄉᆞᆷ인들 어이 ᄒᆞ며
情졍을 못다ᄒᆞ야 목이조차 몌여ᄒᆞ니
오뎐된 鷄계聲셩의 ᄌᆞᆷ은 엇디 ᄭᆡ돗던고 (15행~42행)

「속미인곡」의 화자 하계 생활은 밤낮의 바뀜으로 형상화되고, 「속미인곡」에서 현재의 공간은 구체적으로 집, 산, 강 등 지상계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천상계에 있을 때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한 것과 달리 지상계로 내려온 화자 을은 늘 불안하고 초조해 보인다. 그는 낮에 집에 있다가 임의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자 그대로 앉아 있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간다.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고생을 무릅쓰고 높은 산에 올라가 임이 계신 궁궐을 바라보고 또 강가에 가서 임의 소식을 들으려고 기다린다. 그러나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산에서 임이 계신 곳을 바라볼 수 없었고, 강가에 사람들이 오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공마저 없어 빈 배만 매여 있었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오르내리며 헤매며 방황한다." 등은 임의 소식을 알아보기 어려워 불안해하는 화자의 정서를 대변해 주고 있다. 그는 하루 종일 여기저기 헤매도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니 밤에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화자 을의 공간은 집-산, 강-집이라는 순서로 변화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은 집과 집 근처이니 다 지상계의 공간이다.

이를 보면 현재 시간에 「속미인곡」의 화자 을이 밤낮에 따라 지상계의 각 공간 사이에서 이동하면서, 임의 소식을 기다리거나 알아본다. 밤낮이 순환성을 가지고 공간들이 다 같은 차원의 공간에 속한다. 화자가 이러한 시공간에서 어떤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가? 화자가 임의 소식을 기다리거나 알아보는 것은 그가 임을 그리워하고 임의 옆에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상징한다. 화자가 임을 그

리워하지 않으면 임이 잘 지내는지를 그만큼 궁금해하고 임의 소식을 알아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화자가 임의 소식을 기다리거나 알아보는 것은 그가 임을 걱정해서 임의 옆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상징한다. 앞에서 분석했듯이 화자는 자신이 임의 일상사를 세심하게 보살펴 왔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임의 옆에 없기 때문에 임을 걱정한다. 소식을 여기저기 알아본다는 표현, 또한 꿈속에서 만난 임의 "옥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다"라는 표현 속에는 자신의 보살핌이 없는 임이 잘 지내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식이 담겨 있다. 자신이 임의 불편을 잘 해소해 주고 임에게 불가결한 사람이므로 임을 위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화자는 밤낮에 따라 지상계의 각 공간 사이를 이동하면서 천상계의 임을 그리워하고 걱정하기만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정은 그가 임을 사랑하고 임에게 필요한 사람으로서 임의 부름을 받고 임의 옆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바꾸어 말하면, 화자가 현재의 공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현재의 공간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이다.

화자가 집으로 돌아온 후 꾸는 꿈을 통해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임을 생각하며 하루 종일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정성이 지극했던 까닭에 임을 꿈에서 보게 된 것이다. 임에게 자신의 생각을 다 말씀드리려 하였으나 그 전에 눈물이 먼저 나오고 정이 넘치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만큼 임을 만난 것이 반갑고 감격적이었기 때문이다. 화자가 꿈에서도 단 한 가지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행복한 과거의 공간으로 돌아가 임과 재회하는 것이다.

이렇듯 정철의 「전후미인곡」에서 화자가 밤낮에 따라 지상계의 공간 사이에서 이동을 하면서 임을 그리워하고 걱정해서 현재의 공간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사미인곡」은 3년이라는 긴 시간에 언제나 임에게 선물을 보내고 싶은 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 계절에 어울리는 소재를 선택하였다. 「속미인곡」에서 바쁘게 임의 소식을 알아보는 촉급한 분위기를 부각시키기 위해 밤낮에 어울리는 소재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의 현재 시간에 나타난 시공간에서 표현하고자 한 감정은 유사하다. 정철은 이러한 시공간을 설정하여 자신의 충심과 재능을 표방하면서 임금의 부름을 받고 다시 조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토로한다.

「속미인곡」의 결말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화자가 소원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작가의 진퇴의식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미래의 공간과 그 시공간에 드러난 작가의 진퇴의식을 살펴보자.

> 어와 虛허事ᄉᆞ로다 이 님이 어ᄃᆡ 간고
> 결의 니러 안자 窓창을 열고 ᄇᆞ라보니
>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ᄲᅮᆫ이로다
> 출하리 ᄉᆡ여디여 落낙月월이나 되야이셔
> 님 겨신 窓창 안희 번드시 비최리라
> 각시님 ᄃᆞᆯ이야 ᄀᆞ니와 구ᄌᆞᆫ비나 되쇼셔 (43행~48행)

결말에서 화자는 미래에 영원한 사랑의 세계인 천상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피력한다. 「속미인곡」의 결말의 첫머리부터 을이 천상계에 돌아가 임과 재회하지 못해서 절망하는 심정을 표출한다. 「사미인곡」의 화자가 꿈을 통한 임과의 재회를 소망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속미인곡」의 을도 품은 회포를 다하지 못한 채 새벽을 알리는 닭울음소리에 그만 꿈을 깨버리고 말았다. 현실이 아닌 꿈속에서 임을 만난 것인데다가 꿈속에서도 임에게 할 말을 시원하게 하지 못했으니 화자가 허무감과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문을 열어보니 달빛이 밝게 비추어 그림자만 그를 따를 뿐이다. 이를 보니 달빛은 모든 곳에 비출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임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을은 자신이 차라리 물 새듯이 없어지고 임의 창을 비출 수 있는 지는 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을이 이러한 소원을 말하자 갑은 을에게 지는 달이 되어 임의 창에 비치는 것보다 궂은비가 되어 창의 창가에 뿌리는 것이 더 낫다고 한다.

을은 변신을 통해 천상계로 돌아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갑도 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물 새듯이 없어지고 지는 달이 되는 것이나 궂은비가 되는 것은 다 범나비가 되는 것처럼 몸의 변화를 의미해서 '변신'이라 할 수 있다. 이것 또한 죽음이 아니다. 화자가 단지 자유로운 몸이 되어 임의 곁에 돌

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변신을 하고 싶은 것이다. 지는 달이 임의 창가에 '환하게' 비치는 부드러운 존재로서 임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똑같은 변신이지만 달과 궂은비가 임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감정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임에게 사랑만 전달할 수 있는 달과 달리 궂은비는 임에게 사랑과 원망을 다 전달할 수 있다. 궂은비는 시각(視覺)을 자극하는 달보다 청각을 자극하여[186] 임의 주의를 더 환기시킬 수 있다. 그리고 궂은비는 달처럼 밝고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 범나비처럼 아름다운 것도 아니다. 비는 달빛보다 "더 침울한 분위기"[187]를 조성한다. 그것은 임에 대한 사랑 이외에 억울한 심정도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갑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을로 하여금 임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억울한 심정도 토로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원망보다 임에 대한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궂은비의 주요 의미라고 생각한다. 선행연구 중에는 궂은비가 사랑보다 슬픔이나 원망의 정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경우가 더 많다.[188] 그러나 「사미인곡」에서 "임의 탓이다"라는 것처럼 을의 원망은 일반적인 원망보다는 임을 향한 그리움과 걱정을 버릴 수 없다는 확인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궂은비의 상징성을 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궂은비의 이러한 의미는 배와 김상숙의 「번속미인곡(飜續思美人曲)」과 같은 한역을 통해 한층 더 부각된다. 김상숙의 번역시에서 "저 각시여 그대가 달이 될 수 없음이여. 떠가는 구름이 되거나 저녁비가 되소서."[189]라고 하여 궂은비는 '행운(行雲)'과 '모우(暮雨)'로 번역되었다. 이는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밤에는 비가 된다는 무산선녀(巫山仙女)와 초나라의 회왕의 고사와 관련된 표현이다. 형체가 없는 달은 시각과 정신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궂은비는 청각으로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 몸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존재이다. 특히 이러한 고사를 통해 볼 때 궂은비는 이러한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게 된다. 곧 궂은비는 임과의 완전한 합일에 대한 화자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데[190] 임

186) 정재호 외, 앞의 책, p.198.

187) 서수생, 『한국시가연구』, 형설출판사, 1970, p.296.

188) 서수생, 앞의 책, p.296; 정재호 외, 앞의 책, p.198.

189) "彼妹子者, 爾不能化爲月兮, 將作行雲兮爲暮雨." (金相肅, 「飜續思美人曲」『思美人曲帖』.)

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궂은비는 원망만이 아니라 사랑을 상징한다. 궂은비는 달만큼 부드럽지 않지만 달처럼 임에 대한 원망보다 그리움과 사랑을 상징한다.

이러한 결말은 사랑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을 의미한다. 변신을 통해 살아서 임과 다시 합일하여 연정을 표현할 수 있으니 이 결말은 비장하거나 과도하게 슬프지 않다. 그러나 달이나 궂은비가 되는 것은 범나비가 되는 것처럼 임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으니 다소 비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미인곡」처럼 「속미인곡」의 결말에서도 화자가 원망보다 사랑을 상징하고 임이 알아보지 못할 것으로 변신하겠다고 하거나 그러한 것으로 변신해야 한다고 하여, 어떻게든 임의 곁에 돌아가고 임에 대한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여기에서도 임에게 친화적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는 「전후미인곡」의 제목인 '사미인'의 의미와 상응한다. 정철은 이 변신모티프로 임금의 곁에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임금에 대한 사랑을 영원히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결말로 작품의 주제를 심화시켰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본고에서는 「전후미인곡」의 시공간 설정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전후미인곡」의 공간은 이원적이고 다양하지 않은 의미의 공간을 상징하는데, 조정을 상징하는 천상계(긍정적 공간이자 문제해결의 공간), 집과 집 근처를 포함한 초야(부정적 공간)를 상징하는 지상계라는 두 차원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후미인곡」의 시공간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현재 시간에 순환성을 가지는 계절이나 밤낮에 따라 같은 차원의 공간 사이에서 이동한다. 둘째, 「전후미인곡」의 시공간 구조가 순환되는데 과거의 공간과 미래의 공간은 같은 공간이다.

이러한 시공간의 특징은 정철의 진퇴의식을 반영한다. 정철은 어쩔 수 없이 초야로 물러났지만 초야에 있을 때 임금을 그리워하고 걱정하기만 한다고 말한다. 결국 그는 조정을 용납할 수 없는 공간으로 여기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한 마음이 더 확고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영원히 임금에 대한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

190) 김진희, 앞의 논문, p.144.

3. 의식의 비교

이상에서 「이소」와 「전후미인곡」의 시공간과 그러한 설정에 내포된 진퇴의식을 각각 살펴보았다. 본절에서는 「이소」와 「전후미인곡」의 시공간과 그에 내포된 진퇴의식을 비교함으로써 정철이 어떻게 새로운 시공간을 만들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소」와 「전후미인곡」의 시공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전에 먼저 「이소」와 「전후미인곡」에 나타난 공간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첫째, 「이소」와 「전후미인곡」에 나타난 지상계와 천상계는 서로 의미가 다르다. 「이소」와 「전후미인곡」의 천상계와 지상계가 다 각각 인생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공간과 꿈이 펼쳐질 수 없는 공간을 의미하는데 서로 대조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이소」의 천상계는 다른 국가를 상징하는 것과 달리 「전후미인곡」의 천상계는 과거의 조정을 상징한다. 「이소」의 지상계는 조정, 초야, 답을 찾는 공간과 같은 여러 의미의 공간을 포함하는데 「전후미인곡」의 지상계는 규방, 누각, 집, 강, 산 등 초야의 공간만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소」와 「전후미인곡」에서 조정을 상징하는 공간의 성질이 완전히 다른데 각각 지상계에 있는 부정적 공간과 천상계에 있는 긍정적 공간이다. 이에 대응하여 「이소」의 지상계에 조정 외에 초야, 답을 찾는 공간들이 있는 것에 반해, 「전후미인곡」의 지상계 공간들의 성질이 단일하다. 조정을 떠난 후 다른 길을 탐색하는 「이소」의 화자와 달리 「전후미인곡」의 화자가 인생의 길에 대한 답을 찾지 않고 천상계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소」의 공간이 다원적인데 비해 「전후미인곡」의 공간은 이원적이다. 「이소」에 나타난 과거, 현재, 미래의 공간은 지상계, 천상계, 지하계라는 세 차원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지만, 「전후미인곡」에 나타난 과거, 현재, 미래의 공간은 지상계와 천상계라는 두 차원의 공간만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소」와 「전후미인곡」의 시공간 사이 두 가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이소」에서 현재 시점에 화자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듯 빨리 흐르는 시간에 따라 천상계와 지상계라는 두 계 사이에서 이동하는 것과 달리, 「전후미인곡」에서는 현재 시점에 화자가 순환성을 가지는 계절이나 밤낮에

따라 지상계의 공간 사이에서만 이동한다. 둘째로, 「이소」의 시공간구조가 순환하지 않는데 반해 「전후미인곡」의 시공간구조는 순환하고 있다. 「이소」에서 지상계의 과거 공간과 지하계의 미래 공간은 같은 공간이 아니다. 「이소」의 화자는 과거에 어리석은 임이 믿는 간신배와 자신이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지상계의 조정에 있었지만 죽음으로써 미래에 팽함이 거처하는 지하계로 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전후미인곡」에서는 과거 공간과 미래의 공간은 같은 공간이다. 「전후미인곡」 의 화자는 과거에 임의 옆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공간이 아닌 천상계에 있었는데 미래에 변신으로써 천상계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다.

굴원과 정철이 작품에서 다른 시·공간을 설정하는 것은 그들이 표현하고자 한 진퇴의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굴원은 「이소」에서 고국의 조정을 간신배가 있는 부정적인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떠나고 싶어 하나, 그러면서도 고국에 대한 사랑을 비롯한 여러 이유로 인해 망설였다. 그러나 정철은 「전후미인곡」에서 조정을 정적으로 인한 부정적 공간으로 보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초야로 물러난 후에도 항상 임을 그리워하고 걱정하여 조정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결국 굴원은 작품에서 애국 때문에 다른 국가에 차마 가지 못하지만 고국의 조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으며, 고국에 대한 사랑과 미정의 이상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고 고국의 정치에 대한 분노와 다른 국가에 가서 이상을 추구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표현한다. 반면 굴원과 달리 정철은 작품에서 결국 조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확고해졌으며, 임금에 대한 사랑을 영원히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한다.

그렇다면 굴원과 정철은 왜 자신의 작품에서 다른 진퇴의식을 표현하고 있을까? 작품에서 나타난 진퇴의식의 차이는 작가의 출처관의 차이, 국가 상황과 정치현실의 차이로 인해 생겼다고 생각한다.

먼저, 작가 출처관의 차이다. 굴원은 일반적인 '사'와 다른 왕족신분으로 인해 생긴 애국심 때문에 이상과 현실의 갈등에 봉착해도 초나라를 지켰으나 정철은 사림, 특히 이이의 출처의리에 따라 적극적으로 출사하거나 조정과 임금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은 채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굴원은 단지 애국 때문에 초왕을 떠나지 않았고, 일반적인 '사'처럼 조정에서 배척당할 때 다른 나라로 정치

활동의 중심을 옮길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는 작품에서 현재 시점에 화자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듯 빨리 흐르는 시간에 따라 천상계와 지상계라는 두 계 사이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초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망설이는 마음을 드러내고, 순환하지 않는 시공간구조로 고국에 대한 사랑과 미정의 이상을 다지키고자 한 의지를 드러낸다. 이와 달리 정철은 작품에서 시공간의 두 특징으로 어쩔 수 없이 초야로 물러나도 경세(經世)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은 채 지금의 임금을 걱정하고 적극적으로 출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그 다음으로, 국가 상황과 정치현실의 차이다. 첫째, 국가상황의 차이다. 춘추전국시대에는 '사'가 정치이상을 실현할 나라가 많았고, 노예주의 토지국유제에서 봉건토지사유제로 이행하였으며,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를 형성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조선시대에는 사림이 경세의 포부를 실현할 나라가 조선이 유일하였고, 봉건적 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있었으며, 과거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 점은 시·공간의 설정에서 드러나 있다. 굴원은 작품의 현재 시점에서 화자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듯 빨리 흐르는 시간에 따라 천상계와 지상계라는 두 공간 사이를 이동하게 한다. 이는 애국을 비롯한 여러 이유 때문에 고국을 버리고 싶지 않았으나 정치이상을 실현하려 한다면 왕족신분을 버려서 사회적 기반이 없는 일반적인 ‘사’처럼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또 한편으로는 순환하지 않는 시공간구조를 통해 차마 고국을 버리지는 못하더라도 고국에 돌아가는 일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달리 사회적 기반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갈 수 없는 정철은 작품에서 시공간의 두 특징을 통해, 정치 이상을 실현하려 한다면 조선의 임금만 바라볼 수 있고 조선의 조정으로 돌아가는 것만 추구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둘째, Ⅲ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춘추전국말기 중국과 16세기 조선의 당파, 특히 열세에 처해 있는 당파가 정국주도권 경쟁을 할 때, 충효의 명분과 임금의 마음을 돌리는 것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달랐다. 굴원은 작품에서 현재 시점에 화자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듯 빨리 흐르는 시간에 따라 천상계와 지상계라는 두 계 사이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애국을 비롯한 여러 이유 때문에 고국을 버리고 싶지 않으면서도 다른 나라에 가서 현군을 찾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순환하지 않는 시공간구조로 차마 고국을 버리지 못하나 어지러운 조정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을 강조하여 임금과 간신배를 비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철은 시공간의 두 특징으로 물러나 있는 상황에서도 임금만 바라보고 조정으로 간절하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 임금의 마음을 돌리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작가의 출처관, 국가 상황과 정치현실의 차이로 인해 정철은 「이소」에 나타난 진퇴의식과는 다른 진퇴의식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전후미인곡」에서 「이소」와 다른 시공간을 설정하였다.

Ⅴ.「전후미인곡」의 후대적 비평

Ⅳ장에서 굴원 초사의 대표작인「이소」와 송강가사의 대표작인「전후미인곡」의 화자와 임금에 대한 태도, 시공간과 진퇴의식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정철이 굴원의「이소」를 바꾸어 다른 성격의 작품을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굴원과 정철은 각각「이소」와「전후미인곡」에서 각기 다른 화자와 시공간을 설정함으로써 임금과 조정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였다.「전후미인곡」은 충신연주지사라고 할 수 있지만「이소」는 충신연주지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굴원과 정철의 대표작인 두 작품이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때, 굴원 초사와 송강가사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굴원 초사와 송강가사가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조선후기에 송강가사를 "우리나라의 이소"라고 하면서 송강가사와 초사 간의 주제적 유사성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 가지 의문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조선사대부가 왜 초사를 충신연주지사로 간주했는가? 둘째, 조선사대부가 송강가사를 "우리나라의 이소"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셋째, 조선사대부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송강가사가 "우리나라의 이소"라는 말을 받아들이게 했는가? 즉, 조선사대부가 어떻게 송강가사를 정전으로 만들었는가? 본장에서는 이러한 의문들을 해소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소" 혹은 '동방이소'의 의의를 밝혀보고자 한다.

1. 충신연주지사

조선사대부가 굴원과 초사를 충신과 충신연주지사로 간주한 것은 중국사대부가 유교적 충신이 아닌 굴원과 충신연주지사가 아닌 초사를 충신과 정전으로 만든 것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굴원과 초사가 충신과 정전의 위치에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처음 굴원과 초사를 평가한 사람들은 굴원과 초사를 충신과 정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굴원과 초사는 몇 단계의 평가

를 겪고 나서 충신과 정전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우선 굴원과 초사가 충신과 정전으로 된 과정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송강가사와 초사를 비평한 서인을 포함한 조선사대부가 주희의 논평에 대해 지녔던 태도를 살펴본다면 조선사대부가 굴원과 초사를 충신과 정전으로 간주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조선사대부가 굴원과 초사를 충신과 정전으로 본 이유를 알기 위해 먼저 굴원과 초사가 충신과 정전의 위치에 오르게 된 과정을 살펴보자. 굴원과 초사에 대한 평가는 주로 굴원의 경력 및 작품에 드러난 그의 정신에 대한 평가와, 초사의 창작수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첫 단계는 다음과 같다. 서한(西漢, B.C.202-A.D.18) 때 가의(賈誼, B.C.200-B.C.168),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 B.C.179-B.C.122), 사마천(司馬遷, B.C.145-?)을 비롯한 초사비평가들은 주로 굴원의 고결한 성품을 칭찬하였다. 특히 사마천은 굴원의 정신을 충보다 '원망(怨)'으로 개괄하고 굴원의 항쟁 정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 단계에서 초사비평가들은 아직 유교적인 기준으로 굴원과 초사를 평가하지 않았고, 굴원과 초사를 충신과 정전으로 보지도 않았다.

지금까지 전해진 자료를 보면 한나라 초기에 살았던 가의는 굴원을 처음 평가한 사람인데 굴원의 성품을 긍정하고 억울하게 죽었던 굴원을 동정하는 태도를 드러내었다. 굴원이 세상을 떠난 후 100여년이 지나고 장사(長沙)로 좌천했던 가의는 상수(湘水)을 건너면서 「조굴원부(吊屈原賦)」를 지어서 굴원의 사례를 빌려 불우한 자신의 우울한 심사를 나타내었다. 그는 이 작품에서 "법도가 통하지 않는 세상을 만나, 그 몸을 물에 던지셨습니다. 아, 슬픕니다! 만난 시대가 좋지 못하였습니다."[191]라고 한탄하여 혼자 고결한 성품을 지켜서 세속에 용납되지 않아 억울하게 죽었던 굴원을 동정하는 태도를 드러내었다. 가의는 "천하를 돌며 군주를 보좌할 수도 있는데, 하필 고국만을 고집하셨을까?"[192]라고 하여 굴원이 초나라를 떠났어야 했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가의는 후세의 반고와 같은 초사비평가들처럼 유교의 입장에서 굴원의 죽음이 임금의 과실을 폭로했다고 비판한다기보다는 단순히 굴원의 죽음이 아쉽다는 뜻을 드러내었다.

---

191) "遭世罔極兮, 乃隕厥身. 嗚呼哀哉, 逢時不祥." (司馬遷, 「屈原賈生列傳」, 앞의 책.)

192) "瞰九州而相君兮,何必懷此都也?" (司馬遷, 「屈原賈生列傳」, 앞의 책.)

한나라 무제(武帝) 때 살았던 유안(劉安)은 무제의 명에 따라 「이소전(離騷傳)」을 지었는데[193] 초사에 드러난 굴원의 고결한 성품을 찬양하였다. 「이소전」의 전문은 전해지지는 않는다. 홍흥조(洪興祖, 1090-1155)의 『초사보조(楚辭補註)』에 따르면 유안은 「이소전」에서 "『국풍(國風)』은 사랑을 노래했으나 음란하지 않고, 『소아(小雅)』는 원망과 비방을 담고 있지만 문란하지 않은데 이소는 그 우수한 점을 모두 지녔다고 할 만하다."라고 하고, "탁하고 더러운 곳에서 매미처럼 허물을 벗고 흙먼지 밖에서 마음껏 놀았으니 이 뜻을 미루어 보건대 비록 해, 달과 빛을 다툰다 하여도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194] 이 구절들을 통해 유안이 굴원의 인품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95]

유안과 동시대 인물인 사마천(司馬遷)은 전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굴원의 고결한 성품을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 굴원의 정신을 '원망(怨)'으로 개괄하고 굴원의 반항 정신을 찬양하였다.[196] 그는 「굴원가생열전(屈原賈生列傳)」에서 "신의를 지켰으나 의심을 받고 충성을 다했으나 비방을 받는다면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굴원이 「이소」를 지은 것은 이처럼 분통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에서 비롯되었다."[197]라고 하였다. 이 평가를 통해 사마천이 굴원이 신의와 충성을 지켰으나 억울하게 배척당했으니 임금을 원망하고 임금에게 반항하는 언행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그는 굴원이 원망으로 인해 죽음을 선택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했던 것 같다. 그는 "가생(賈生, 가의)이 굴원을 추모한 글을 보면, 굴원이 자신의 재주를 가지고 재후들 사이를

193) "淮南王安为人好书,… 时武帝方好艺文, 以安属为诸父, 辩博善为文辞, 甚尊重之. 每为报书及赐, 常召司马相如等视草乃遣. 初,安入朝, 献所作『内篇』, 新出, 上爱秘之.使为『离骚传』, 旦受诏, 日食时上." (班固, 「淮南衡山濟北王傳」, 『漢書』 권44, 四庫全書 電子版.)

194) "淮南王安曰, 國風好色而不淫, 小雅怨誹而不亂, 若離騷者可謂兼之矣. 又曰蟬蛻於濁穢之中, 以浮游塵埃之外,不獲世之滋垢,皭然泥而不滓. 推此志也,雖與日月爭光可也." (班固, 「離騷序」, 洪興祖, 앞의 책, p.49.)

195) 金榮權, 「兩千余年來屈原形象的歷史演變」, 戴錫琦 외, 앞의 책, pp.33.

196) 金榮權, 앞의 논문, 戴錫琦 외, 앞의 책, pp.33-34.

197) "信而見疑, 忠而被謗, 能無怨乎? 屈平之作離騷, 蓋自怨生也." (司馬遷, 「屈原賈生列傳」, 앞의 책.)

다니며 유세를 하였으면, 어떤 나라인들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리가 없었을 텐데, 도리어 자신을 그렇게 만든 것 또한 기이하였다. 「북조부(服鳥賦)」를 읽고서는, 삶과 죽음을 한가지로 보며, 벼슬에 나아가고 물러남을 가볍게 보고 있음에,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멍해졌다."[198]라고 하였다. 이 언급을 통해 사마천도 가의처럼 굴원의 죽음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느꼈으나 결국 굴원의 선택을 어느 정도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황제에게 간언을 드리다가 치욕스러운 궁형(宮刑)을 받았던 사마천은 굴원과 다른 삶을 선택했으나 굴원처럼 군왕의 홀대를 받았기 때문에 굴원의 반항 정신을 이해했던 것이다.

둘째 단계는 서한 말기부터 주희가 굴원과 초사를 평가할 때까지로 굴원과 초사가 유교의 중용사상에 부합하는 충신과 정전인지 여부를 놓고 논쟁을 한 시기이다. 전대 사람들이 굴원의 원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불만을 가진 반고(班固, 32-92)를 비롯한 초사비평가들은 굴원의 원망이 깊다고 강조하며 초사의 창작기법이 경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굴원을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반고 등 사람들의 평가에 반박하고 나선 왕일(?-?)을 비롯한 초사비평가들은 굴원의 충절을 강조하며 초사의 창작기법이 경학에 부합한다고 보고 굴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곧 반고를 비롯한 초사비평가들은 굴원과 초사가 중용사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는데 왕일을 비롯한 초사비평가들은 굴원과 초사가 중용사상에 부합하는 충신과 정전이라고 평가하였다. 이 단계에서 왕일 등이 굴원과 초사를 충신과 정전으로 만들고자 하였지만, 굴원과 초사가 충신과 정전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

반고를 비롯한 초사비평가는 굴원의 원망이 깊었음에도 굴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 전인의 평가에 불만을 지니고 굴원과 초사를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서한 말 동한(東漢, 25-220)초에 살았던 양웅(揚雄, B.C.53-A.D.18) 은 "때를 만나고 못 만나는 것은 천명(天命)이니 어찌 반드시 물에 빠져 죽었어야 하는가?"[199]라고 하면서 명철보신하지 못하고 깊은 원망을 품고 자살한 굴원을 비판하였다. 동한의 반고는 양웅의 평가를 더 발전시켰다.

---

198) "適長沙, 觀屈原所自沈淵, 未嘗不垂涕, 想見其為人. 及見賈生吊之, 又怪屈原以彼其材, 遊諸侯, 何國不容, 而自令若是. 讀服鳥賦, 同死生, 輕去就, 又爽然自失矣."(司馬遷, 「屈原賈生列傳」, 앞의 책.)

199) "遇不遇, 命也, 何必湛身哉?" (班固, 「揚雄傳」, 『漢書』 권87, 四庫全書 電子版.)

동한의 반고는 굴원이 임금을 원망하고 그 주변의 신하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과 그 주변의 신하를 질책하고 마침내 자살하였다고 하면서, 굴원이 깊은 원망을 드러내고 명철보신을 모르는 것을 비난하였다. 또한, 반고는 초사에서 '곤륜(昆侖)', '명혼(冥婚)', '복비(宓妃)' 등 신괴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과정하고 비현실적인 수법이 경학의 창작수법과 다르다고 비판하였다.[200] 즉 반고는 굴원의 정신과 초사의 창작기법에 전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반고 등의 초사비평가는 굴원이 정신과 창작기법의 양쪽 모두에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지키는[201] 유교의 중용사상에 어긋났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굴원이 임금을 질책하고 자살한 것은 그의 깊은 원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굴원이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고 자신의 몸을 드날려 임금의 죄를 드러냈다"[202]고 하며 그의 과격한 언행을 비판하였다. 둘째, 굴원이 초사에서 과장되고 비현실적인 수법을 사용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이들의 비평을 보면 한나라 이후 유교가 일방적인 충효를 강조하는 국가통치이념이 되어, 비평가들이 임금을 원망하는 언행과 경학 이외의 창작수법에 민감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굴원과 초사를 유교적 충신과 정전으로 만들고자 했던 왕일 등의 초사비평가들은 굴원에게는 깊은 원망이 없고 강한 충성심이 있으며, 초사의 창작기법이 경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동한의 왕일은 굴원의 충성심

---

200) "昔在孝武, 博覽古文, 淮南王安敘離騷傳, 以國風好色而不淫, 雅怨悱而不亂, 若離騷者, 可謂兼之. 蟬蛻濁穢之中, 浮游塵埃之外, 爵然泥而不滓, 推此志, 與日月爭光可也. 斯論似過其真. 又說五子以失家巷, 謂伍子胥也. 及至羿、澆、少康、貳姚、有娀佚女, 皆各以所識, 有所增損, 然猶未得其正也. 故博采經書傳記本文, 以為之解. 且君子道窮, 命矣, 故潛龍不見, 是而無悶. 關雎哀周道而不傷, 蘧瑗持可懷之智, 甯武保如愚之性, 咸以全命避害, 不受世患, 故大雅曰, 既明且哲, 以保其身. 斯為貴矣. 今若屈原, 露才揚己, 競乎危國群小之間, 以離讒賊. 然責數懷王, 怨惡椒蘭, 愁神苦思, 非其人, 忿懟不容, 沈江而死, 亦貶絜狂狷景行之士. 多稱昆侖冥婚宓妃虛無之語, 皆非法度之政, 經義所載, 謂之兼詩風雅, 而與日月爭光, 過矣！然其文弘博麗雅, 為辭賦宗, 後世莫不斟酌其英華, 則象其從容. 自宋玉、唐勒、景差之徒, 漢興, 枚乘、司馬相如、劉向、揚雄, 騁極文辭, 好而悲之, 自謂不能及也. 雖非明智之器, 可謂妙才者也." (班固,「離騷序」, 洪興祖, 앞의 책, pp.49-50.)

201) "中庸之為德也, 其至矣乎."(「雍也」,『論語』권6, 張燕嬰 譯註(2007), p.83.); "中者, 無過無不及之名也. 庸, 平常也." (朱熹, 『論語集註』, 國學導航.)

202) "自古文人, 多陷輕薄. 屈原露才揚己, 顯暴君過." (顔之推, 앞의 책, p.81.)

을 극렬히 찬양하였다. 그는 굴원이 임금과 그 주변 인물을 원망해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 임금에 대한 충성을 지키기 위해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굴원이 임금을 질책하지 않았으며 유교경전을 모방하여 임금에게 완곡하게 간언을 드렸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소」를 "유교의 경전(經)"이라고 표시하면서 초사가 "형식과 내용이 모두 아름답고, 백년에 그와 비교할 글이 없다"라고 칭찬하였다.[203]

왕일 등의 평가는 굴원의 정서와 초사의 창작기법이 중용사상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굴원과 초사가 유교의 중용사상에 부합하는 충신과 정전인지 여부에 대한 논쟁은 주자가 굴원을 평가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사마천 등이 굴원의 정신을 충보다 원망으로 귀결하거나 굴원과 초사에 대한 논쟁이 지속된 것은, 전술한 「이소」에 대한 분석과 같이 굴원을 유교적 충신으로, 초사를 충신연주지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해준다. 이러한 논쟁이 지속된 근본 원인은 유학자가 아니었던 굴원과 그의 작품을 유교의 기준에 따라 평가했다는 데 있다. 유교의 기준에 따라 굴원과 초사를 평가한다면 그의 정서와 창작기법이 중용사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셋째 단계에서 남송의 주자는 굴원의 언행과 창작기법이 중용사상에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유교의 교리를 재해석함으로써 굴원과 초사를 평가하

---

203) "이소경(離騷經)." (王逸, 「楚辭章句目錄」, 앞의 책.)

"雖未能究其微妙, 然大指之趣, 略可見矣. 且人臣之義, 忠正為高. 以伏節為賢. 故有危言以存國, 殺身以成仁. 是以伍子婿不恨於浮江. 比幹不恨於剖心. 然後忠立而行成, 榮顯而名著. … 而班固謂之露才揚己, 競於群小之中, 怨恨懷王, 譏刺椒、蘭, 苟欲求進, 強非其人, 不見容納, 忿恚自沈. 是虧其高明, 而損其清潔者也. 昔伯夷、叔齊,讓國守分, 不食周粟, 遂餓而死. 豈可復謂有求於世而怨望哉？ 且詩人怨主刺上曰, 嗚呼小子, 未知臧否, 匪面命之, 言提其耳. 風諫之語, 於斯為切. 然仲尼論之, 以為大雅, 引此比彼, 屈原之詞, 優遊婉順, 寧以其君不智之故, 欲提攜攜其耳乎？ 而論者以為露才揚己, 怨刺其上, 強非其人, 殆失厥中矣. 夫離騷之文, 依五經以立義焉, 帝高陽之苗裔, 則詩, 厥初生民,時維姜原也. 紉秋蘭以為佩, 則將翱九翔, 佩玉瓊據也. 夕攬洲之宿莽, 則易, 潛龍勿用也. 駟玉虬而乘, 則易, 時乘六龍以禦天也. 就重華而陳詞, 則尚書, 咎繇之謀謨也. 登昆侖而涉流沙, 則禹貢, 之敷土也. 故志彌盛者其言博, 才益多其識達, 屈原之詞誠博達矣, 自孔丘終沒以來, 名儒博達之士, 著造詞賦, 莫不擬則其義表, 祖式其模範, 取其要妙, 竊其華藻, 所謂金相玉質, 百歲無匹, 名垂罔極, 永不刊滅者也." (王逸, 「離騷經後序」, 앞의 책, 권1.)

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여 굴원과 초사를 유교적 충신과 정전으로 확립시켰다. 여기서 주목될 것은 주자보다 백년 앞인 소식(蘇軾, 1037-1101), 소철(蘇轍, 1039-1112)의 비평이다. 당시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에 속한 소식, 소철 두 형제는 자신의 작품에서 이미 굴원의 언행이 중용을 벗어났지만 굴원이 충신이라는 생각을 드러냈는데 주자와 비슷한 얘기를 하였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소식과 소철의 비평을 살펴보자.

> 사람이 어쨌든 죽게 마련이지만, 죽음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을 어려운 일입니다. 당신은 혼자서 강변에서 주저하는데 이 세상을 떠나고 싶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천 길이나 되고 무서운 급류를 내려 보고 있었습니다. … "설마 멀리 달아나면 안 되는 건가? 설마 어려운 국면에서 용퇴하여 은거하면 안 되는 건가? 혼자 끊임없이 임금에 대한 원망과 사랑을 외치는데 아마 임금과의 관계가 더욱 멀어질 것이다. 살아 있을 때 힘을 내어 변론을 하지 못하고 강력하게 간언을 드리지 못하지만, 죽은 후 임금이 감동을 받아 잘못된 행실을 고치기를 기대한다. 만약에 종국이 전복되었다면 목숨을 아끼고 구차하게 살아가지 않기로 한다. …"…"고결한 지조만 사람들이 볼 수 있더라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소인배는 당연히 나와 같은 무리일 리가 없다. 뒤돌아보지 않고 용감하게 조국을 떠나고 이 세상을 버리면 이것은 후인의 질책을 피하게 할 수 없겠는가?" 아! 군자의 도의를 반드시 이렇게 추구해야 합니까? 목숨을 보존하고 재앙을 멀리하는 것은 아마 맞는 것입니다. 고결한 절개를 혼자 지키면 어려워서 당신의 마음이 너무 고집한 것을 탄식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언행이 중용에 어긋났지만 당신이 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슬플까? 굴자(屈子)야, 당신의 영혼이 영원히 안식을 얻기를 기원합니다.[204]

이는 굴원에 대한 소식의 비평문이다. 굴원의 영혼과 대화하는 소식은 굴원의 "언행이 중용에 어긋났"지만 굴원이 "고결한 지조"를 가지고 임금과 종국을 위

---

204) "人固有一死兮, 處死之為難. 徘徊江上欲去而未決兮, 俯千仞之驚湍. …‘吾豈不能高舉而遠遊兮, 又豈不能退默而深居？ 獨嗷嗷其怨慕兮, 恐君臣之愈疏. 生既不能力爭而強諫兮, 死猶冀其感發而改行. 苟宗國之顛覆兮, 吾亦獨何愛於久生. …’ … ‘惟高節之不可以企及兮, 宜夫人之不吾與. 違國去俗死而不顧兮, 豈不足以免於後世？’嗚呼！君子之道, 豈必全兮. 全身遠害, 亦或然兮. 嗟子區區, 獨為其難兮. 雖不適中, 要以為賢兮. 夫我何悲？ 子所安兮." (蘇軾, 「屈原廟賦」, 『東坡全集』 권33, 四庫全書 電子版.)

해 죽었다며 ‘현인’이라고 평가하였다. "살아 있을 때 힘을 내어 변론을 하지 못하고 강력하게 간언을 드리지 못했지만, 죽은 후 임금이 감동을 받아 잘못된 행실을 고치기를 기대한다."는 말과 "만약에 종국이 전복되었다면 목숨을 아끼고 구차하게 살아가지 않기로 한다."는 말은 굴원의 말투로 굴원이 죽음을 선택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굴원의 죽음을 변호하는 것이다. 이 말에서 굴원이 임금과 종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충신이라는 뜻을 드러낸다. 물론, 결말에서 소식은 중용사상에 따라 "목숨을 보존하고 재앙을 멀리하는 것은 아마 맞는 것"이라고 하면서 굴원의 "언행이 중용에 어긋났"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식은 굴원을 비판하는 마음보다 굴원을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따라서 결말에서 "군자의 도의를 반드시 이렇게 추구해야 합니까?"라고 반문하고 굴원이 현인이라는 결론을 지었다.

문장이 규격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였으며, 그중에 굴원을 유하혜(柳下惠)의 사례로써 나무란 것은 그럴듯하게 보인다. 내가 가만히 생각하건대, 가사 굴원이 도피하여 계찰(季札)처럼 하였더라도 역시 옳았다고 여긴다. 한(漢)나라 가의(賈誼)가 장사왕(長沙王)의 태부(太傅)가 되어 멱라강을 지나며 부(賦)를 지어 굴원을 조문하기를 "구주(九州)를 돌아다니며 임금을 도울 수 있었거늘 어찌 꼭 이 고도(故都)만을 잊지 못하였는가?"라고 하였으니, 가의의 말이 혹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만, 굴원의 뜻은 아니다. 굴원과 초나라는 성(姓)이 같으니, 차마 그 임금을 버리고 사방으로 갈 수 없었거늘 가의는 공자와 맹가(孟軻)가 제후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도(道)를 행하기를 구하던 것을 가지고 굴원을 가르쳤으니, 형세상 반드시 따르지 못할 것이었다. 유하혜는 사사(士師)가 되어 세 번이나 파면당하면서도 (노(魯)나라를) 떠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바른 도리로 사람을 섬긴다면 어디에 간들 세 번쯤 파면당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바른 도리를 굽혀 사람을 섬긴다면 하필 부모가 사시던 내 나라를 떠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애석하다. 굴원은 청렴하고 정직하나 도(道)를 알지 못하였고, 절의(節義)를 위해 죽은 연후에야 상쾌할 수 있었으니, 이 때문에 성인(聖人)에 부합되지 못한 것이다. 가사 굴원이 유하혜처럼 등용되면 나아가 道를 행하고 버려지면 들어앉아, 초나라에서 죽을 때까지 한가하게 지내면서 세월을 보냈다면 거의 그의 뜻대로 되었으리라.[205]

205) "文跌宕, 其所責屈原以柳下惠者似也. 予竊謂. 使原如札之逃而終身焉不入於吳之市, 亦可. 漢賈誼爲

이는 굴원에 대한 소철의 비평문이다. 소철은 굴원이 "청렴하고 정직한" 충신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굴원이 "성인(聖人)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 소철은 굴원이 종신토록 오(吳)나라의 저자에 들어오지 않은 계찰처럼 하였더라도 역시 옳았다고 하였다. 이것은 가의의 주장과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러나 소철은 굴원이 초나라를 떠나지 않은 것을 변호하기도 하였다. 소철은 굴원이 초나라와 성(姓)이 같으니 차마 그 임금을 버리고 다른 나라에 갈 수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즉, 굴원이 공자나 맹자처럼 행동하지 못하였던 것은 그가 처한 상황 때문이었다. 이러한 말 속에 굴원이 종국과 임금을 사랑하는 충신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철은 굴원의 죽음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굴원의 죽음이 절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굴원의 죽음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었다. 소철은 굴원이 다른 나라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유하혜처럼 임금에게 버려지면 은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자살을 선택한 굴원이 도를 알지 못하고 성인에 부합되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 소철은 소식만큼 굴원을 이해하고 칭찬하지 않았지만 소식처럼 굴원에 대한 양면적인 인식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소식, 소철이 중용사상을 대체하여 굴원을 평가할 수 있는 이론을 찾지 못했기에 굴원과 초사를 충신과 정전으로 확립시키지 못하였다. 굴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론은 중용사상이었다. 굴원을 충신으로 확립하려면 굴원이 중용에 부합하지 못한 언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유교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였다. 중용사상은 유교의 중요한 사상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사상 자체를 비판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다른 유교 이론으로 중용사상을 대체하여 굴원을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206] 중용사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 걸림돌이

長沙傅, 過汨羅爲賦以弔屈原曰, 歷九州而相君, 何必懷此故都. 誼之言, 或一道也, 而非原志. 原楚同姓, 不忍棄其君而之四方, 而誼教之以孔子孟軻歷聘諸侯, 以求行道, 勢必不從矣. 柳下惠爲士師, 三黜而不去曰, 直道而事人, 何往而不三黜, 枉道而事人, 何必去父母之邦. 惜乎, 屈原廉直而不知道, 殉節以死然後爲快, 此所以未合於聖人耳. 使原如柳下惠用之則行, 捨之則藏, 終身於楚, 優游以卒歲, 庶幾乎其志也哉." (蘇轍, 「屈原」, 『唐宋八大家文抄 · 蘇轍2』, 김동주 역주, 전통문화연구회, 2011, pp.288-289. 번역도 『唐宋八大家文抄 · 蘇轍2』을 참고하되, 일부 수정하였다.)

206) 羅敏中, 「屈原與朱熹」, 戴錫琦 외, 앞의 책, p.1002.

되지 않도록 하는 이론을 찾는 것은 굴원이 충신이라고 주장하는 초사비평가에게 중요한 과제였다.

봉건 질서를 확고히 하는 데 유리한 사상을 전부 유교에 흡수하고자 한 주자[207]는 유교 교리를 재해석함으로써 사람이 충신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용사상에 부합하는지 여부보다 그의 대절을 보아야 한다는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주자는 "허물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觀過知人)"라는 공자의 말에 근거하여, 사람을 평가할 때 주로 그의 '대절(大節)'을 보아야 하고 그의 "사소한 언행(細行)"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208] 이는 굴원의 사소한 언행에 드러난 정서와 창작기법이 중용사상에 어긋나는지보다 그의 '대절'이 충군의 마음을 드러내는지를 판단하여 그가 유교 충신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09]

사람을 보려면 그의 대절을 보아야 한다는 평가기준을 찾은 후 주자는 『초사집주』에서 굴원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밝혀서 굴원을 새롭게 평가하였다. 먼저, 주자는 굴원의 언행에 드러난 정서와 창작기법이 유교의 중용사상에 어긋나서 본받을 만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210] "영수가 어리석은 것을 원망한다(怨靈修之浩蕩兮)." 같은 말이나 자살한 것에 있어서 굴원이 임금을 원망하고 중용에 어긋난 말과 행동을 한 것을 부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신괴의 이야기가 있는 것은 분명하였다. 주희는 이러한 문제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편파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

207) "然使世之放臣、屛子、怨妻、去婦, 抆淚諶於下, 而所天者幸而聽之, 則於彼此之間, 天性民彝之善, 豈不足以交有所發, 而增夫三綱五典之重？" (朱熹, 「楚辭集注·楚辭解題」, 앞의 책, 蔣立甫 校點(2001), p.2.)

208) "孔子曰, 觀人之過也, 各於其黨. 觀過, 斯知仁也. 此觀人之法也. 夫屈原之忠, 忠而過者也. 屈原之過, 過而忠者也. 故論屈原者, 論其大節, 則其他可以一切置之而不問. 論其細行, 而必合乎聖賢之矩度, 則吾固已言其不能皆合於中庸矣." (朱熹, 『楚辭後語·反離騷』, 앞의 책, 蔣立甫 校點(2001), pp.241.) 羅敏中, 「屈原與朱熹」, 戴錫琦 외, 앞의 책, p.1002.

209) "屈子之心其為忠清潔白 , 固無待於辯論而自顯 , 若其為行之不能無過 ,則亦非區區辯說所能全也. 故君子之於人也, 取其大節之純全, 而略其細行之不能無弊. 則雖三人同行, 猶必有我師者, 況如屈子, 乃千載而一人哉." (朱熹, 『楚辭後語·反離騷』, 앞의 책, 蔣立甫 校點(2001), pp.240-241.)

210) "原之為人, 其志行雖或過於中庸而不可以為法. … 原之為書, 其辭旨雖或流於跌宕怪神怨懟激發而不可以為訓." (朱熹, 「楚辭集注·楚辭解題」, 앞의 책, 蔣立甫 校點(2001), p.2.)

그 다음으로, 주자는 충군애국의 마음을 품은 굴원의 '대절'은 유교의 윤리도덕에 부합한다고 강조하였다. 굴원이 "중용사상에 어긋나고 본받을 만하지 않은" 언행을 간혹 했더라도 그러한 언행이 충군애국의 마음으로 초래한 문제라고 강조하였다.[211] 주자는 굴원이 초나라 임금과 같은 성씨, 곧 초나라의 왕족이기 때문에 당시 초나라에 다른 현신이 없었던 상황에서 초나라를 떠나면 안 되었고, 살아 있으면 간언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죽음을 통해 초나라 임금을 깨닫게 하려고 하였다고 하였다. 즉 굴원이 충군애국 때문에 그러한 언행을 했고, 그러한 언행이 신하로서의 충의(忠義)를 한 것이니 반고, 안자추 등 사람들이 평가한 듯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주자의 생각에는 "굴원의 언행이 이치로 볼 때 지나친 점이 있지만 굴원의 충이 구차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따를 수 없는 것"이고, 굴원의 죽음이 "충의를 다한 것"이다. 굴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면 충(忠)이 지나친 것이라고 하였다.[212] 또한, 굴원이 자신의 충군애국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속에 슬픔이 깊었는데, 이러한 슬픔을 스스로 자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작품에서 과격한 말뿐만 아니라 과장된 창작수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고 역설하였다. 굴원의 과격한 언행과 창작수법은 지엽적인 문제일 뿐인데 충군애국의 마음을 가진 그의 대절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주자는 굴원을 충신이라고, 초사를 '변풍(變風)'·'변아(變雅)', 곧 『국풍』·『소아』의 일종의 변형이라고 긍정하였다.[213] 이는 굴원과 초사를 유교적 충신과 충신연주지사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11) "原之為人, 其志行雖或過於中庸而不可以為法, 然皆出於忠君愛國之誠心.." (朱熹, 「楚辭集注·楚辭解題」, 앞의 책, 蔣立甫 校點(2001), p.2.)

212) "士見危致命, 況同姓兼恩與義, 而可以不死乎? 且比幹之死, 微子之去, 皆是也. 屈原其不可去乎? 有比幹以任責,微子去之可也. 楚無人焉, 原去則國從而亡. 故雖身被放逐, 猶徘徊而不忍去, 生不得力爭而強諫死, 猶冀其感發而改行, 使百世之下聞其風者, 雖流放廢斥, 猶知愛其君, 眷眷而不忘, 臣子之義盡矣. 非死為難, 處死為難. 屈原雖死, 猶不死也. … 夫屈原之忠, 忠而過者也. 屈原之過, 過而忠者也. 故論原者, 論其大節, 則其他可以一切置之而不問. 論其細行, 而必其合乎聖賢之矩度, 則吾固已言其不能皆合於中庸矣, 尚何說哉, … 洪之所言, 雖有未至, 而其正終非雄、固、之推之徒所可比, 余是以取而附之反騷之篇.(朱熹, 『楚辭後語·反離騷』, 앞의 책, 蔣立甫 校點(2001), pp.239-241.)

213) "原之為書, 其辭旨雖或流於跌宕怪神、恐懟激發而不可以為訓, 然皆生於繾綣惻怛、不能自已之至意. 雖然其不知學於北方, 以求周公、仲尼之道, 而獨馳騁於變風變雅之末流, 以故醇儒莊士或羞稱之." (朱熹, 「楚辭集注·楚辭解題」, 앞의 책, 蔣立甫 校點(2001), p.2.)

이처럼 주자는 새로운 이론을 바탕으로 소식, 소철의 주장을 발전시켜서 그들보다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다.

왕일 등 여러 시대의 초사비평가의 노력을 바탕으로 주자는 드디어 굴원과 「이소」를 비롯한 초사를 유교 충신의 전범과 경전적인 글의 반열에 올렸다. 다시 말하면, 굴원과 초사에 대한 논쟁이 끝났다. 그러나 주자가 유교의 교리를 재해석해야지만 굴원을 유교적 충신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굴원과 초사를 유교적 충신과 충신연주지사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면 서인사대부를 비롯하여 조선사대부는 중국의 논평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가? 송강가사에 대해 비평적 담론이 서인(西人) 인사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1694년 갑술환국(甲戌換局) 이후 서인이 노소(老少)로 분립된 후 송강가사에 대한 평가는 주로 서인(西人)-노론계(老論系)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굴원에 대한 서인사대부의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논평에 대한 그들의 판단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권득기(權得己, 1570-1622)와 같은 서인 사대부는 굴원의 과격한 언행이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언행이 충신의 잘못이라고 평가하였다. 한국에서 굴원에 대한 본격적인 비평은 고려시대의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굴원불의사(屈原不宜死論)」에서 시작되었다. 제목에서 이미 드러낸 바와 같이 이규보는 굴원이 죽어야 함에도 죽지 못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굴원이 "죽을 자리에 죽지 못하였고, 다만 그 임금의 악한 것을 드러내었을 뿐이다."[214] 라고 하여, 반고 등과 마찬가지로 굴원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면 서인을 포함한 조선 사대부가 이러한 비판의식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켰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영수가 어리석고 난초가 알맹이가 없고 겉모양만 아름다움을 원망하기 때문에 굴원이 「회사(懷沙)」를 짓고 죽었다. … 스스로 멱라강에 빠져 죽었던 것도 아마 충신의 잘못일 것이다. 악명을 갖다 붙이는 사람은 그에게 죄가 없는 것을 모르다. 기(旗)로

214) "死不得其所. 祇以顯君之惡耳. " (李奎報, 「屈原不宜死論」, 『東文選』 권99, 한국고전번역권 DB.)

그를 추앙하는 뜻을 표현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하자고 초청한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몽둥이로 칠 때는 달아나는 것은 옛날 사람이 권장하는 것으로, 아비가 아들을 죽였다는 명목으로 연루될까봐 그런 것이다. 그러면 두 사람의 죽음은 과연 의리에 부합하는가? … 굴원의 의(義)를 보면 그가 반드시 죽어야 하지 않았다. … 자로(子路)가 조야(粗野)하고 굴원이 분노하였다. 두 사람은 아비에게 의롭지 못한 데 빠지게 하였다. 그들 또한 가치 있게 죽었다고 할 수 없다.[215]

위의 자료는 권득기가 굴원과 같은 역사인물들의 죽음을 평가하면서 죽음의 문제를 처리하는 도리에 대한 견해를 서술한 글이다. 권득기는 주자처럼 굴원의 죽음이 "충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였다. 곧 굴원의 죽음이 중도(中道)에 맞지는 않지만, 굴원이라는 인물이 충신임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권득기는 주자 등 사람들의 견해와 다른 점이 있는데 굴원의 언행이 신하로서의 충의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한 그들보다 굴원을 비교적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는 어버이가 크게 화가 나서 몽둥이로 쳐 죽이려 할 때는 달아나서, 어버이가 불의(不義)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굴원이 그렇게 죽었으니 스스로 악명을 뒤집어썼을 뿐만 아니라 임금을 의롭지 못한 데 빠지게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의 생각에는 굴원이 가치 있게 죽었던 것이 아니었다. 정리하자면, 권득기는 이규보 등 사람들처럼 굴원이 마땅히 죽지 못했다고 비판하지만 그들보다 굴원이 충신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둘째, 성해응(成海應, 1760-1839)과 같은 서인 사대부는 굴원이 깊은 원망을 드러내는 과격한 언행을 했지만, 굴원이 충군애국 때문에 그러한 언행을 하고 그의 언행이 가치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조선시대에 굴원의 비평문을 먼저 쓴 김시습(金時習, 1168-1241)[216]이 「감회삼편후서(感懷三篇後序)」에

---

215) 怨靈脩之浩蕩. 蘭无實而容長. 則屈大夫之爲賦懷沙也. … 汨羅之沈. 蓋亦忠臣之過也. 蒙之以惡名. 而不察其无罪.崇之以使旌. 而邀之以盜賊. 則所謂无所逃而待烹者也. 雖然. 大杖則走. 古人所取. 殺子之名. 有以累父. 則二子之死. 果合於義乎. … 屈原之義.亦不必死. … 子路之野. 屈原之憤. 二公子之陷父不義. 亦不可謂得其死也.(權得己, 「處死之道 幷題」, 『晩悔集策』 권2.)

216) 윤주필, 「초사수용의 문학적 전개와 비판적 역사의식」, 『한국한문학연구』, 한국한문학회, 1987, p.428.

서 펼쳤던 주장과 같은 견해를 펼쳤다. 김시습은 어떤 자가 양웅, 반고, 안지추의 주장을 근거로 굴원의 충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굴원이 중용에 어긋난 언행을 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마천과 주자의 말을 인용하여 굴원을 옹호하였다.[217] 그러면 성해응과 같은 서인 사대부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① 굴원이 초나라 임금이 탐욕이 많고 품행이 단정하지 않은 사람을 등용한 것을 원망하는 것은 그가 초나라와 같은 성씨였기 때문이었다. 같은 혈통이지만 푸대접하면 소외하는 것이다. 그가 말을 골라서 할 줄 몰랐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가의는 그와 다른데 자신의 계략이 쓰이지 않으면 포기해야만 하였다. 치효(鴟鴞), 강호(康瓠), 건려(蹇驢)와 같은 것들로 한나라의 공경(公卿)들을 비웃었다. 속이 얼마나 좁은가? 가의는 "천하를 다니면서 군주를 고를 일이지, 하필 이곳만 가슴에 담았을까?"라고 하였다. 이 말은 굴원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이 처지에 잘 적응하고 만족한 것을 스스로 비유할 수 있다.[218]

② 굴원은 초나라와 같은 성씨인 사대부이었다. 그의 의(義)는 주왕(紂王)에 대한 기자(箕子), 비간(比干)의 의(義)와 같다. 어떻게 회왕(懷王),경양왕(頃襄王)이 자신을 쫓겨냈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갈 수 있었겠는가? 태사공(太史公), 양웅(揚雄)과 같은 무리는 왜 굴원이 다른 나라에 가지 않았던 것을 이유로 삼아 굴원을 질책하였는가? 그들이 굴원의 마음을 안다고 할 수 없다. 굴원이 스스로 멱라강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 지나친 충임은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는 고국에 대한 미련이 있었다. 고국의 멸망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더라도 고국의 멸망을 보고 싶지 않

---

217) "或問於余曰, 子已贊中庸於前, 而今又贊屈原於後. 原之忠無已, 太過乎. 且時君不用則已, 何必湛身為哉. 揚雄已非其事而作反騷, 班固亦譏露才揚己, 顔之推又病顯暴君過. 原縱盡忠以死, 何益於君. 余答曰, 子不見太史司馬公論原曰, 蟬蛻於濁穢之中, 以蜉遊塵埃之外, 不獲世之滋垢, 皭然泥而不滓者, 推此志也, 雖與日月爭光可也. 宋朝朱氏亦曰, 屈原之過, 過於忠者也. 屈原之忠, 忠而過者也. 論其大節, 其他可以一切置之而不問. 則原之不合乎中庸, 先儒已盡論之, 夫復何縷縷哉? 但取處世之變, 其所盡力, 非世間偷生幸死可及. 故以贊美, 而復賦詩, 以想情欵." (金時習,「感懷三篇後序」, 『매월당속집』 권1, 한국학종합DB.)

218) "屈原之恨楚之用貪賴以壞國者. 同姓大夫之故也. 親而恕焉. 則是踈也. 是故. 其言誠不擇. 至若賈生. 則異於是.計不用則唯當止耳. 以鴟鴞, 康瓠, 蹇驢之屬. 譏切漢朝之公卿. 何其細也. 其曰. 歷九州而相其君兮. 何必懷此都. 論屈原則誠不可. 若自喩其意隨所處而安則亦可矣." (成海應, 「讀賈子」,『研經齋全集』권13.)

았던 것이다.[219]

자료①은 성해응이 가의의 글을 읽어서 쓴 감상문이고, 자료②는 성해응이 역사인물을 논하는 글 중에 굴원을 평가하는 글이다. ①에서 성해응은 굴원이 초나라 임금이 탐욕이 많고 품행이 단정하지 않은 사람을 등용한 것을 원망하고 자살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주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러한 언행을 변호하였다. 굴원이 임금을 원망했던 것이 그가 초나라와 같은 성씨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굴원이 초나라와 같은 성씨라서 가의가 말한 것처럼 초나라를 떠나서 다른 제후를 찾는 처지가 아니었다고 하였다. ②에서도 굴원의 죽음을 변호하였다. 성해응은 굴원이 초나라와 같은 성씨이기 때문에 임금에게 억울하게 쫓겨나도 다른 나라에 갈 수 없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사마천, 반고 등 사람들이 굴원이 다른 나라에 가지 않았던 것을 이유로 삼아 굴원을 비판하자, 그들이 굴원의 마음을 모르고 굴원을 질책했다고 하였다. 성해응은 굴원이 다른 나라에 가지 않고 자살했던 것을 주자의 비평처럼 "지나친 충"이라고 하였다. 곧 굴원의 죽음이 중용을 벗어났음을 인정하면서도 굴원이 충군의 마음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굴원이 차라리 종국(宗國)이 멸망하기 전에 죽더라도 종국의 멸망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하였다고 생각하였다. ①과 ②에서 굴원이 중용을 벗어난 언행을 했던 것이 충군애국 때문이고, 신하로서의 충의를 다한 것이니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내었다.

셋째, 민진원(閔鎭遠, 1664-1736), 김상숙(金相肅, 1717-1792)과 같은 서인 사대부는 굴원이 임금을 많이 원망하지 않았던 충신이라고 평가하였다. 그 이전 이행(李荇, 1478-1534)은 주자보다 "굴원은 죽지 않았어야 하였다.", "자기 임금의 허물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라는 비난을 더 강력히 반박하는데 굴원이 중용에 부합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다. 이행은 「이소후발(離騷後跋)」에서 "스스로 죽음을 취하여 임금의 악을 무겁게 하지 않는 쪽을 택했던 것이다."라고 했으며, "굴원의 죽음은 충의를 다한 것이었다."라고 하였다. 그는 "굴원과 같은

219) "屈原. 楚之同姓大夫也. 其義侔於箕子比干之於紂也. 豈可以懷, 頃之斥逐. 因遂違之他邦哉. 太史公及揚雄之徒. 何故以原之不之他邦. 咎之乎. 不可謂識原之心矣. 原之自投於汨灑者. 誠過於忠. 然彼瞻顧宗國. 終底於滅亡. 寧先自戕而不之見也."(成海應, 「屈原」, 『研經齋全集』 권10.)

사람은 참으로 임금을 독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그는 굴원의 문제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굴원을 충군(忠君)의 인물로 확실하게 정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견해는 "선유(先儒)의 의론이 미치지 못한 점"이라고 스스로 평가하였다.[220] 그 뒤의 민진원, 김상숙 등 서인사대부도 굴원이 중용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굴원을 평가하였다.

① 홍치중이 아뢰기를, "'원망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은 원망하면서도 성내지 않는다는 뜻이며 '미워하고 원망한다(疾怨)'의 원(怨)은 아닙니다. 원망하면서도 성내지 않은 뒤라야 원망할 수 있습니다." 민진원이 아뢰기를, "굴원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은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슬퍼하였기 때문이지 임금을 원망하여 죽은 것은 아니니, 이 또한 원망하면서도 성내지 않은 유(類)입니다."[221]

② 군신과 부부는 서로 더불어 사는 시초이다. 임금 중에 권세와 이익으로 신하를 부리지 않고 그 마음을 아는 자가 있으면 신하 중에는 총애와 녹봉으로 즐거움을 삼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자가 있고, 남편 중에 용모의 아름다움으로 사랑치 않고 덕을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아내 중에는 가까이할 때나 멀어졌을 때나 그 뜻을 변치 않는 자가 있다. 처음부터 서로 통하지 않았다면 진실로 그럴 수 있겠는가! 그 앎이 깊고 그 사랑이 지극하므로 비록 소외되고 끊어지더라도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보통 질투와 참소를 당해 사이가 벌어진 뒤에는 상대방이 마음을 돌려주기만을 기대하게 된다. 굴원이 강담(江潭)에 쫓겨나 「이소」를 지은 것이나 반희(班姬)가 장신궁(長信宮)에 유폐되어 부를 지어 슬퍼한 데에서 그 뜻을 볼 수 있다.[222]

---

220) "世之論者云. 屈原不宜死. 至以爲暴顯君過. 余謂原之死盡矣. 昔申胥諫夫差. 夫差卒殺胥. 而夫差之惡. 萬世不可掩. 世不以此過申胥者. 顧胥不自殺耳. 使胥而自殺. 則夫差亦不爲已甚者. 夫人臣以直道事君. 其君非堯舜之明. 而又有讒人在其側. 終不至於殺之則不止也. 嗚呼. 襄王闇矣. 讒口棘矣. 原也自懷王時. 已不爲所容. 而棄逐遷徙. 猶不能屈心從俗. 則顧其勢不可但已. 所以徘徊流湘之間. 隱忍而不決者. 亦庶幾其君之少悟也. 讒口之少弭也而卒不可望. 則寧我自取. 無以重君惡. 嗚呼. 原也豈樂其死者也. 觀其言曰. 寧溘死而流亡兮. 恐禍患之有再. 其志可哀也. 嗚呼. 若原也者. 眞可謂愛君之篤者矣. 先儒之論. 未有及此者. 誠以親涉世患. 未有如原之深也. 涉世患如原也者. 方可知原之志爾." (李荇, 「離騷後跋」, 『容齋先生集』 권5, 한국고전번역권 DB.)

221) "致中曰, 可以怨者怨, 而不怒之意, 非疾怨之怨, 怨而無怒然後, 乃可爲怨.鎭遠曰, 屈原之溺水而死, 憫國之將亡也, 非怨君而死, 是亦怨而不怒之類也." (『승정원일기』 권590, 영조 1년 4월 13일, 한국고전번역권 DB. 번역도 한국고전번역권 DB를 참고한다.)

위의 자료①은 시민당(時敏堂)에서 주강하는 자리에 민진원 등이 한 말이고, ②는 김상숙의 「번사미인곡서(飜思美人曲序)」이다. ①에서 홍치중이 말한 것처럼 유교가 신하가 원망하면서도 성내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데, 민진원은 굴원의 죽음을 변호해 주면서 "굴원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은 나라가 망해 가는 것을 슬퍼하였기 때문이지 임금을 원망하여 죽은 것은 아니니, 이 또한 원망하면서도 성내지 않은 유(類)"라고 하였다. ②에서 김상숙은 임금이나 남편에게 억울하게 쫓겨나도 원망하지 않고 임금이나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신하나 여자를 찬양하면서, 정철이 굴원, 반희(班姬)처럼 이러한 마음으로 작품을 창작했다고 평가하였다. 민진원과 김상숙은 모두 굴원이 임금을 많이 원망하지 않았던 충신이라고 평가하였다.

위에서 굴원에 대한 서인 사대부의 세 가지 평가를 살펴보았는데 그들의 견해는 주자의 평가를 바탕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주자의 평가와 비슷한 면이 있는 소식, 소철의 비평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주자는 굴원의 언행이 중용을 벗어났음을 인정하면서도 굴원이 충 때문에 그러한 언행을 하고 그러한 언행이 전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서인 사대부들도 굴원을 충신으로 보는데 굴원에게 잘못이 있어도 그것이 충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의 견해 중에 둘째의 견해는 주자의 주장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첫째의 논의와 셋째의 논의는 각각 굴원의 과격한 언행이 가치가 없으나 충신의 잘못이라고 하거나 굴원이 임금을 많이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주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굴원의 잘못을 확대하거나 굴원의 충을 확대했다고 할 수 있다. 곧 서인 사대부의 세 가지 주장은 주자의 주장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었다.

서인 사대부는 주자의 뜻을 추앙했기 때문에 굴원 작품의 실체를 파악했다기보다는 주자의 시각을 통해서 초사를 이해하였을 것이다. 서인 사대부들이 남긴

222) "君臣夫婦在其相於之始也. 君有不以勢利為使而知其心者, 則臣有不以寵祿為悅而盡其忠者矣. 夫有不以容色之美, 而愛其德者, 則婦有不以親疏之異, 而變其志者矣. 豈非其始相感者, 實有以然耶! 其知之也深, 其愛之也至, 故雖見疏絕, 而未嘗以為怨也. 常嫉讒人之為間也, 而冀其心之一回也. 屈子之放江潭而作離騷, 班姬之廢長信, 而賦自悼, 其志可以見矣." (金相肅, 「翻思美人曲序」, 앞의 책.)

기록을 보면 그들은 『초사집주』 등 초사에 관한 주자의 책을 추앙하고 깊이 읽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송강가사를 초사에 비견한 이선(李選)은 자신이 송강가사 간행본의 그릇된 곳을 바로 잡아 베껴 쓰는 작업의 의미를 "주자 『초사집주』의 남긴 뜻"에 비견하였다.[223] 또한, 송강가사를 초사에 비견한 성해응(成海應)은 『초사집주』의 독서필기를 남겼는데『초사집주』가 초사 주석본 중에 굴원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주석본이라고 칭찬하였다.[224] 조선이 주자성리학을 국시로 삼았으므로, 조선사대부로서 주자의 책들을 추앙하고 깊이 읽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주자의 책을 추앙했던 조선사대부가『초사집주』와 같은 주자의 책들을 통해서 굴원과 그의 작품을 이해하였을 것이다. 이에 조선사대부들은 완전히 굴원을 충신으로, 초사를 충신연주지사로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자가 본래 유교 충신과 충신연주지사가 아닌 굴원과 초사를 유교 충신과 충신연주지사로 만들었다는 사실과 조선사대부가 주자와 그의 책을 추앙해서 주자의 시각을 통해서 굴원과 초사를 이했다는 사실을 결합해 보면, 서인을 비롯한 조선사대부가 굴원의 초사를 충신연주지사의 전범으로 간주했던 이유를 알 수 있다.

2. 동방이소

223) "右關東別曲, 思美人曲, 續美人曲三篇. 卽松江相國鄭文淸公澈之所著也. …聊取此三篇. 正訛繕寫. 置諸案頭. 時一諷誦. 其於排遣牢愁. 不爲無助. 蓋亦僭擬於朱夫子楚辭集註之遺意云." (李選, 「松江歌辭後跋」, 『芝湖集』 권6.)

224) "朱夫子六十六歲. 楚辭集注成. 先生平居敎人. 以語,孟,庸,學. 秦漢以下詞章. 特餘論及之. 而乃爲楚辭解釋者. 傷趙丞相汝愚耳. 丞相宋同姓大臣. 而爲韓侂胄所讒. 逐竄于永州以卒. 殆屈原之於楚也. 原之離騷注甚多. 皆未得原之心. 故朱子作集注曰. 原之志行. 雖或過於中庸. 皆出忠君愛國之誠心. 原之辭旨. 雖或流於跌蕩怪神. 怨懟激發. 皆生綣繾惻怛. 不能自已之至意. 世之放臣屛子怨妻去婦. 抆淚謳吟於下. 而所天者. 幸而聽之. 則於彼此之間. 天性民彝之著. 交有所發. 增夫三綱五常之重. 此乃原之心也. 向微集注之精. 原之心. 安得明於後世乎. 然余嘗考原之世. 諸侯交爭. 而蕪,張,申,韓. 縱橫權謀之說. 充塞于天下. 誰復以堯舜禹湯之說開陳乎. 原雖放逐之際. 以聖賢傳授之學. 惓惓不忘. 原之學不已正乎. 朱子爲是之故. 雖於詞章之學. 有所不屑. 獨於楚辭. 纂諸家之注. 欲明原之心志者. 不其然乎." (成海應, 「讀楚辭集注」, 『研經齋全集續集』 권14.)

조선사대부가 초사와 송강가사를 유사한 성격의 작품으로 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사대부가 송강가사를 "우리나라의 이소"로 만든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 먼저 조선사대부가 송강가사를 "우리나라의 이소"라고 한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송강가사에 대해 비평적 담론이 서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을 보면 그 답을 찾기 어렵지 않다. 선행연구는 서인 사대부가 단순히 초사와 송강가사 간의 주제적 유사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만이 아니고, 그보다는 당시 충신연주지사 전범의 위치에 있던 굴원의 초사와 송강가사를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송강가사 역시 전범의 반열에 올려놓아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인하고 굳건히 하기를 의도했다고 보았다.[225] 다시 말하면, 인조반정과 같은 정국변화로 정권을 회복한 김상헌 등의 서인들이나 기사환국(己巳換局) 같은 정국변화로 다시 수세에 몰린 김만중, 이선 등의 서인들은 정치목적을 가지고 정철과 그의 문학을 굴원과 초사에 비겨 높이 평가하였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송강가사를 충신연주지사의 전범으로 만들어 갔는가? 서인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송강가사가 "우리나라의 이소"라는 말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서인들은 「전후미인곡」을 위시한 송강가사를 베껴서 집안사람들과 함께 향유하였으며, 정철의 후손들은 송강가사를 간행하여 외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송강가사를 기록·보존하고 인지도를 넓히며 가치를 선양하였다.

우선 그들은 송강가사를 문자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를 교감·필사하였고, 정철의 후손들은 송강가사를 간행하였다. 현전하지는 않으나 이선의 선사본(繕寫本)[226]이나 김만중의 「언소(諺騷)」[227]가 서인사대부들의 필사본이다. 그리고 송강가사를 문자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은 정철 문중의 목판본 간행 작업으로 이

---

225) 김진희, 앞의 논문, pp.58-63.

226) "右關東別曲, 思美人曲, 續美人曲三篇. … 聊取此三篇. 正訛繕寫." (李選, 「松江歌辭後跋」, 『芝湖集』 권6.)

227) "西浦公亦酷喜此文書, 置案上題其面曰'諺騷'云.",(金相肅, 「翻思美人曲序」, 김사엽 해제(1958).)

어졌다. 현전하는 목판본『송강가사』는 두 계열로 나뉜다. 하나는 정관하(鄭觀河, 1685-1757)가 1747년에 간행한 성주본(星州本)이고, 다른 하나는 이선(李選)의 발문(跋文)이 실려 있고 정호(鄭澔, 1648-1736)가 1697년쯤에 간행한 이선본이다.[228] 송강가사를 문자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은 보존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먼저 사대부들의 기록을 살펴보자.

> 일찍이 청음 김상헌이 이 작품(「사미인곡」·「속미인곡」) 듣기를 대단히 좋아하여 집안의 여종으로 하여금 송습하게 하였다. 우리집의 늙은 여종 춘대는 어릴 적 청음 선생을 모셨는데 늙어서까지도 오히려 지난날의 일을 이야기하며 능히 "나위적막하고 수막이 비었는데"의 구절을 외울 정도이니 청음 선생이 좋아한 바가 이 정도였다.[229]

> 정송강이 강계에 내려가 있을 때 국문으로 「사미인곡」을 지어 임금을 사랑하는 뜻을 우의하였다. 대개 초사의 여음(餘音)이다. 청음 김문정공이 이 작품을 대단히 좋아하여 항상 책을 자리의 오른쪽에 두었다. 그 집안의 아이종들도 모두 외웠다.[230]

> 정송강이 강계에 내려가 있을 때 이 작품(「사미인곡」)을 지었으니 대개 연군지심을 기탁한 것이다. 청음 선생이 조석으로 이 작품을 애송하였고 문득 가영하기도 하며, 그 집의 아동들조차 이를 외울 정도였다.[231]

김춘택과 성대중, 성해응 부자는 모두 김상헌이 「전후미인곡」을 무척 좋아해서 집안의 아동과 노비까지 임금을 사랑하는 뜻을 우의하는 「전후미인곡」의 구절을 외우도록 했던 사실을 기록하였다. 이를 보면 서인 사대부들이 연군가사인 「전후미인곡」을 위시한 송강가사를 베낀 후 집안사람들과 함께 향유하여 송강가사의 인지도를 넓히고 가치를 선양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성대중 부자(父

---

228) 송강가사의 이본 상황에 대해서는 정재호 외, 앞의 책, pp.39-66 참조.

229) "嘗聞金淸陰劇好聽此詞, 家內婢使皆令誦習. 吾家老婢春臺者, 兒時逮事淸陰, 至老而猶道舊日事, 能誦其羅幃寂寞繡幕虛等句, 淸陰之好之如此." (金春澤, 「論詩文」, 『北軒集』 권6.)

230) "松江鄭相公謫江界. 以方言製思美人曲. 以寓戀君之意. 盖楚騷之餘響也. 淸陰金文正公甚愛此詞. 常書置座右. 僮僕皆誦其章句." (成大中, 「書坯窩所譯思美人曲後」, 앞의 책.)

231) "鄭松江竄江界作此詞, 盖寓戀君之心也, 淸陰金先生愛誦之, 朝夕輒歌咏, 其家兒童亦皆傳誦." (成海應, 「思美人曲解」, 『研經齋全集』권1.)

子) 모두 송강가사에 관심을 보이고 그 가사를 찬양했던 것도 이 점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정철의 후손들이 간행한 목판본 『송강가사』(이선본)에는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판본이 정철의 시가 작품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추모시(追慕詩)·찬사(讚辭)·제사(題辭) 등을 함께 실어놓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편찬방식은 19세기에 간행되지 못했으나 정운오(鄭雲吾)가 문집간행을 위하여 편찬한[232] 『송강별집추록(松江別集追錄)』 권1·2의 「유사(遺詞)」에서는 더욱 발전되었다.[233] 송강가사를 찬양한 이 부대 기록들은 송강가사의 간행을 계기로 송강가사에 대한 수용자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송강가사의 간행 작업은 단순히 정철의 작품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송강가사를 집안 외적으로 확산시켜 정철 작품의 가치를 높이고 정철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수단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전후미인곡」을 위시한 송강가사의 한역 작업을 통해 송강가사를 한문시가와 같은 위치로 올려놓고 송강가사에 드러난 연군의 정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송강가사를 기록·보존하며 송강가사의 충신연주지사 이미지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송강가사를 한역한 작가 중에는 당파, 가문이 정철과 관련이 깊은 인물이 많다. 「사미인곡」은 정도(鄭棹, 1708-1787)가 5·7언 고시 76구로 번역하였으며 김상숙(金相肅, 1717-1792)은 초사체 127구로,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은 5·7언 고시 127구로 변역하였다. 정도의 한역가는 『추록유사』에 실려 있고 김상숙의 한역가는 『추록유사』와 『사미인곡첩』에, 성해응의 한역가는 『연경재집(硏經齋集)』에 실려 있다. 「속미인곡」은 정도가 5·7언 고시 68구로, 김상숙이 초사체 96구로 번역하였는데 모두 『추록유사』에 실려 있다. 그밖에 「관동별곡」은 김상헌(金尙憲, 1570-1652), 이양렬(李揚烈, 1581-1616), 이식(李植, 1584-1647), 김만중(金萬重, 1637-1692), 박창원(朴昌元, 1683-1753), 유한재(兪漢宰, 1757-1817), 신승구(申升求, 1810-1864) 등 7인이 한역하였다.[234] 김상헌은 5·7언 고시 120구로, 이양렬

232) "先生文集之刊行也, 遺詞一卷未及登梓, 故今此繕寫成秩而合於文集焉."(김사엽 해제(1958).)

233) 김진희, 앞의 논문, p.14.

234) 국립중앙도서관본 『송강가사 전(松江歌辭 全)』 소재 정철의 후손 정용택(鄭容澤, ?-?)의 번사

은 7언 고시 183구로, 이식은 7언 고시 190구로, 김만중(1637-1711)은 7언 고시 79구로, 박창원은 6언 과부(科賦) 230구로, 유한재는 5언 고시 208구로, 신승구는 초사체 290구로 번역하였다. 「성산별곡」은 기정진(奇正鎭, 1798-1876), 송달수(宋達洙, ?-1858), 정도 등 3인이 번역하였다. 기정진의 한역가는 장단구 119구로서 「추록유사」와 『서하당유고(棲霞堂遺稿)』에 실려 있다. 정도는 5·7언 고시 92구로, 송달수는 5·7언 고시 96구로 번역하였는데 한역가는 모두 『추록유사』에 실려 있다.

송강가사를 한역할 당시 가사를 한역하는 행위는 "문자를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고, 다른 이를 "교화하고 경계"하라는 것이라 여겨진다.[235] 그런데 조선사대부들이 여러 문체로 송강가사를 번역한 데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서인 사대부들이 남긴 한역 관련 기록을 통해 그 목적이 무엇인지 추측해보고자 한다. ·

> 그 양식은 단가와 장사가 있다. 국문시가나 한시나 토를 달고 구절을 떼는 것은 한 가지이지만, 오언(五言)이나 칠언시구(七言詩句)로 국문시가의 뜻을 온전히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뜻을 잃지 않고 그 음운(音韻)과 화합하고 사장(辭章)에 맞추고자 하면 마땅히 초사체(楚辭體)를 써야 한다. 이 두 가사가 우리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아녀자들도 알지 못함이 없건마는 만약 다른 나라 사람이 듣는다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충애(忠愛)의 회포를 원녀(怨女)의 말에 기탁하여 천 년이 지나도 그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굴원의 「이소」를 외우는 것과 같게 하니, 책을 덮으면 눈물이 흘러 그 슬퍼하면서도 원망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있어서, (굴원의 작품과) 동조(同調)로서 아울러 전하게 해야 할 것이지 민멸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내가 「구가(九歌)」·「구장(九章)」의 어구를 써서 편(篇)으로 만들어서 이루었으니 이 또한 사(詞)의 변형이다. 그 음률과 체제(體制)는 풍속을 따라서 다른 것이므로 글이 다르다고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다.[236]

(飜辭)로 알려진 작품은 박창원의 번사와 같은 전사본(轉寫本)이었다. (김미정, 「「번관동별곡가」 재론」,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2013, p.205.)

235) 김문기, 「가사 한역의 목적과 한역기법」, 『국어교육연구』 29, 국어교육연구회, pp.30-31.

236) "其體有短歌長辭. 盖其音吐句節則一也. 而又未可以五七言形容其辭意也. 唯楚之騷響近之. 欲飜之以文字. 不失其旨. 叶其音韻. 合于辭章. 則當用騷體而爲也. 此兩辭之文. 合用方言 使東方之人聽之. 雖婦孺無不知之. 而若異方之人見之. 則必不知其爲何語也. 然忠愛之懷. 托以寃女之詞. 使千載之下讀其文

김상숙은 「번사미인곡발(飜思美人曲跋)」에서 자신이 「전후미인곡」을 번역하게 된 이유는 이 가사의 문체가 초사체와 비슷하고 그 뜻이 초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김상숙은 "오언이나 칠언시구로 국문시가의 뜻을 온전히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뜻을 잃지 않고 그 음운과 화합하고 사장에 맞추고자 하면 마땅히 초사체를 써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중국에 가사가 없다. 가사는 한문과 다르고 오언 한시나 칠언 한시와도 다른데 사부(辭賦 또는 詞賦)의 형식과 가장 비슷하다. 그렇다면 사부에 있는 여러 문체 중에서 김상숙이 초사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전후미인곡」이 초사만큼 후세에 전해야 하는 충신연주지사의 절창이고 자신의 한역이 사(詞)의 변형이라고 한 것은 주자가 초사를 주석하면서 초사가 '변풍(變風)', '변아(變雅)'라고 긍정한 것을 상기케 한다. 앞서 언급한바, 주자가 초사를 『국풍』, 『소아』의 변형이라고 한 것은 초사의 뜻과 문체가 유교의 경전인 『시경』과 비슷하다고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김상숙은 초사의 문체와 표현을 동원하는 한역 작업을 통해 「전후미인곡」과 초사의 뜻을 비견하고, 국문시가인 송강가사의 문체를 한문시가, 특히 주자가 긍정했던 초사체와 같은 위치로 올려놓음으로써 송강가사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하였던 것이다.

성해응은 「사미인곡해(思美人曲解)」에서 김상숙의 「전후미인곡」 번역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자신이 「사미인곡」을 한역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 배와 김공이 사부체(辭賦體)로 이를 번역하였는데, 『초사·구장』의 음(音)이 있다. 나 또한 그의 작업으로 말미암아 「사미인곡」을 다시금 잡가요체(雜歌謠體)로 번역하게 되었다.237)

者. 如誦屈子之辭. 則掩卷流涕. 想像其哀而不怨者. 則庶可以同調幷傳而不可泯也. 故余用九歌九章之句語篇法合而成之. 亦詞之變也. 其音律體裁有隨其俗而不同者. 則無怪乎其文之異也." (金相肅, 「飜思美人曲跋」, 앞의 책.)

237) "鄭松江竄江界作此詞. 盖寓戀君之心也. 淸陰金先生愛誦之. 朝夕輒歌咏. 其家兒童亦皆傳誦. 坯窩金公以辭賦體譯之. 有楚辭九章之音. 余又因之以雜歌謠體翻之. " (成海應, 「思美人曲解」, 『研經齋全集』 권1.)

성해응은 자신이 김상숙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미인곡」을 잡가요체로 다시 번역했다고 하였다. "그의 작업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에서 성해응이 김상숙의 입장에 동조하여 「사미인곡」을 잡가요체(雜歌謠體)로 한역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상숙과 마찬가지로 그는 원작품의 뜻을 잘 살려내는 한문시가의 문체를 모색했던 것이다. 즉, 성해응은 송강가사의 주지를 확대하고 가사를 한문시가와 같은 위치에 올려놓음으로써 송강가사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하였던 것이다.

김상숙, 성해응의 기록을 통해 서인 사대부가 「전후미인곡」을 한역한 것은 「전후미인곡」을 보존하고 다른 이를 경계할 뿐만 아니라 송강가사를 한문시가와 같은 위치로 올려놓고 이 가사에 드러난 연군의 정을 확대하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이 자연을 노래한 「관동별곡」, 「성산별곡」을 한역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관동별곡」과 「성산별곡」 역자들이 밝히고 있는 한역의 동기는 다양하다. 우선 「관동별곡」을 한역한 이양율, 김만중 등은 한역의 계기를 기록하지 않았다. 송달수는 어머니가 정철의 후손이라는 인연으로, 정철의 다른 후손의 부탁을 받아 「성산별곡」을 한역하게 되었다고 한다.[238] 정도는 「성산별곡」이 선조인 정철의 휴식장소를 제재로 한 작품이기에 한역하게 되었다고 한다.[239]

① 송강의 「관동별곡」·「사미인곡」·「속미인곡」은 우리나라의 이소이다.[240]

② 「관동별곡」과 「성산별곡」 등은 정철이 지은 것이다. 이 노래에는 전부 이소의 뜻이 담겨 있다.[241]

---

238) "世所傳誦星山別曲一篇及酒問答三疊. 訓民歌十六章. 松江先生鄭文淸公歌辭也. 余少友環碧主人雲之甫. 相與邂逅於淳北之山中. 而請以文字翻之. 非謂余嫺於辭工於律. 特以余爲故家之後. 而又爲公彌甥. 故請之再三而至於送紙. 則固知見笑於有眼者. 而義不可辭. 玆敢草呈. " (宋達洙, 「星山別曲飜辭」, 『守宗齋集』권1, 한국문집총간 313, p.7)

239) "星山在於昌平之息影亭. 實先祖休息之所. 而與松江亭爲莽蒼之地. 日後覽此記者. 庶幾有知云爾. 丁酉暮春六世孫棹謹書. " (鄭棹, 「飜辭跋文」, 『追錄遺詞』권2.)

240) "松江關東別曲, 前後思美人歌, 乃我東之離騷." (金萬重, 『西浦漫筆』.)

241) "關東星山等曲, 是其所作. 其歌也, 有思皆離騷意也." (李雨臣의 短評, 『松江別集追錄』 권1.)

그러나 위의 김만중, 이우신(李雨臣)의 평에서 서인 사대부들은 연군가사인 「전후미인곡」뿐만 아니라, 자연을 노래한 「관동별곡」과 「성산별곡」도 초사에 비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동별곡」은 주로 자연을 노래하지만 왕정의 의무를 수행하는 위정자적(爲政者的) 시각과 입장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는데, 「관동별곡」의 역자들 중에 김상숙, 성해응처럼 한역을 통해 송강가사의 문체를 드높일 뿐만 아니라 정철의 충절을 부각하려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성산별곡」 한역으로 정철의 충절을 부각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송강가사의 문체를 드높일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이 송강가사, 특히 「전후미인곡」을 한역하는 것은 무엇보다 송강가사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였다.

셋째, 송강가사의 후속작품을 창작한 것이다. 이는 서인들의 각종 노력을 통해 송강가사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었음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송강가사의 충신연주지사 이미지를 더욱 굳건히 하였다. 이러한 후속작품들은 송강가사와 상호영향을 주고받았던 셈이다.

송강가사 이후 창작배경과 문학내적 요소가 밀접하게 연관된 후속 작품이 많이 창작되었다. 그 중에서도 연군시가인 「전후미인곡」의 후속작품이 많이 창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철의 「전후미인곡」 이후 한국문학에는 제명을 '-사미인(思美人)-'이라 하고 정철의 두 작품과 적극적으로 관련을 맺은 일련의 작품군이 존재하게 되었다. 「전후미인곡」의 후속작품 대부분은 「전후미인곡」의 제목도 수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전후미인곡」의 후속작품은 "사미인곡계시가(思美人曲系詩歌)"라 통칭할 수 있다. 한국고전문학사에 등장하는 작가와 작품 중에서 "이와 같이 하나의 전범이 되는 작품과 그 전범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다수의 후속 작품들이 수백 년을 두고 산출된 경우는 드물다".[242]

사미인계 시가에는 국문시가뿐만 아니라 한시도 있는데, 대표적인 작품은 다음과 같다. 김춘택의 가사 「별사미인곡(別思美人曲)」(1708), 이진유(李眞儒, 1669-1730)의 가사 「속사미인곡(續思美人曲)」(1725~1727), 홍양호(洪良浩, 1724-1802)의 한시 「사미인곡(思美人曲)」(1708), 심낙수(沈樂洙,

242) 장수현, 『사미인곡계 가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1.

1739-1799)의 한시 「사미인가구장(思美人歌九章)」(연대미상), 장현경(張顯慶, 1730-1805)의 가사 「사미인가」(1796), 류도관(柳道貫, 1766-1813)의 가사 「사미인곡(思美人曲)」(연대미상), 구강(具康, 1757-1831)의 가사 「사미인곡(思美人曲)」(1824) 등의 작품이 있다.

이들 작품의 작가들은 대체로 서인 계통이다. 예를 들면, 김춘택은 노론(老論) 명문가의 자제이고, 이진유는 소론(少論)의 명문가 자제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송강가사의 후속작품을 창작한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 먼저 이 후속작품들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미인곡계 가사의 특징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작품이 작가가 정치적 좌절을 겪을 때 창작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별사미인곡」은 김춘택이 소론(少論)의 견제로 제주도에 유배되어 있을 때 지은 작품이고, 「속사미인곡」은 이진유가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 오던 길에 나주로 유배되었다가 추자도로 이배되었을 때 창작한 것이다.[243] 물론, 그 중에는 류도관의 작품처럼 유배와는 관련이 없는 것도 있다.

사미인곡계 가사의 또 다른 특징은 작품에서 여성화자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장현경의 「사미인곡」처럼 전체적으로 남성화자가 나타나는 작품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작품에서 여성화자가 나타난다. 여성화자가 등장하는 작품에는 전체적으로 여성화자가 등장하는 경우와 일부 대목에서 여성화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전체적으로 여성화자가 등장하는 경우의 예로 홍양호(洪良浩)의 한시 「사미인곡」을 들 수 있다.

思美人在長安	그리워라 임 계신 서울에는
春風桃李滿城香	봄바람에 도리향 성안에 가득하고
金樽寶瑟淸且閒	금동이에 맑은 술, 고운 음악 한가로우리
去歲別君兮	작년에 임과 이별할 때
白玉樓前文石欄	백옥루 문석란에서 작별했는데
今年憶君處靑海之頭	금년에는 북청 바닷가에서 임을 그리네
黑水灣候鴈不過嶺	흑룡강 기러기는 재를 넘지 못하는데

243) 고순희, 「18세기 정치현실과 가사문학 -「별사미인곡」과 「속사미인곡」을 중심으로- 」, 『어문학』 78집 , 한국어문학회, 2002, pp.188, 190-191.

白雲空在山	부질없이 흰 구름만 산에 걸렸네
四月飛雪不見花	사월에도 눈이 내려 꽃을 못 보고
朔風如箭瘦骨酸	살 같은 삭풍은 여윈 몸을 에이네
憶君夜夜魂飛揚	밤마다 임 생각에 혼백이라도 날아가고 싶지만
夜短難度鬼門關	밤이 짧아 귀문관을 넘어가기 어렵네
昔我來時木葉黃	전에 내가 올 때는 단풍이 들었는데
謂言花發與春還	누가 봄이 오면 꽃이 핀다고 말했나
流光冉冉不相待	시간은 흘러 기다려주지 않으니
三春已徂夏將闌	봄날이 이미 가고 한 여름이 다 되었네
腰帶日減圍	허리는 날로 야위어 가고
鬢毛日生斑	귀밑에는 날마다 흰머리 생기네
腰減尙可待加餐	야윈 몸은 음식으로 회복할 수 있다지만
鬢斑那得更朱顔	백발은 무슨 수로 되돌릴 수 있으랴
我心如石不可轉	내 마음 돌과 같아서 돌릴 수가 없는데
君門如天不可攀	임의 집은 하늘같아서 오를 수 없네
山多猛獸兮川無梁	산에는 맹수요 강에는 다리도 없는데
欲往從之無羽翰	임을 좇으려 하나 편지도 없네
一月三十日	한 달이면 서른 날
一日十二時	하루에도 열 두 때
思君如連環	임 생각은 고리와 같아서
千回萬周苦無端[244]	천만번을 돌려도 끝이 없다네

위의 작품은 홍양호가 변방의 관리로 좌천될 때 여성화자의 입을 빌려 자신의 처지와 임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토로한 고악부체 작품이다. 이 작품의 여성화자는 천상에서 적강한 선녀가 아니라 현실에서 임과 이별한 여자이지만 여자라는 점에서 「전후미인곡」의 화자와 같다. 임은 하늘같은 서울의 대궐에 있고 나는 혹독한 변방에 있는 상황을 각각 정철의 「속미인곡」에 나타난 '백옥경'과 흡사한 천상의 '백옥루(白玉樓)'와, 환경이 열악한 지방인 '청해(靑海)', '흑수(黑水)', '귀문관(鬼門關)' 등 지명으로 부각하여, 자신의 처참한 상황과 임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특정 부분을 그대로 번역한 것은 아

244) 洪良浩, 「思美人曲」, 『耳溪集』 권5, 한국문집총간 241, p.82.

니지만 「전후미인곡」의 내용, 노랫말의 구성, 어조, 모티프 등 역시 효과적으로 살려냈다. 예를 들면, "一月三十日, 一日十二時"는 「사미인곡」의 "ᄒᆞᄅᆞ도 열두 째 ᄒᆞᆫ ᄃᆞᆯ도 셜흔 날"과 상응한다. "임 생각은 고리와 같아서 천만번을 돌려도 끝이 없다네"라는 마지막 말에서 임을 향한 무한한 그리움과 변함없는 사랑을 진솔하게 토로하고 있다.

일부 대목에서 여성화자가 등장하는 작품으로는 이진유의 가사 「속사미인곡」이 있다.

宣力四方은 臣子의 職分이라
奉仕微勞ᄅᆞᆯ 일ᄏᆞᄅᆞᆯ 것 전혀 업다
前後恩褒ᄂᆞᆫ 華袞도곤 빗나시니
以罪為榮은 이 더욱 望外로다[245]

「속사미인곡」의 "宣力四方은 ~望外로다"는 대목은 이진유가 유배길에서 남성화자의 목소리로 임금을 향한 충성을 읊는 부분이다. 화자는 적소(謫所)에 도착하여 그 동안의 일을 돌이켜 보니 새삼 임금의 은혜를 절감하게 된다고 말한다. '以罪為榮'이라는 어휘는 다소 과장된 느낌이 들지만 이는 화자가 느끼는 임금의 은혜를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화자는 「이소」의 남성화자와 달리 임금에 대한 원망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임금이 그 동안 자신에게 베푼 은혜가 크게만 느껴진다고 한다.

姿色도 업슨 내오 才德도 업슨 날을
무어슬 取ᄒᆞ시며 무어슬 重히 넉여
言言이 奬詡ᄒᆞ며 事事의 斗護ᄒᆞ샤
菲薄ᄒᆞᆫ 이 ᄒᆞᆫ몸을 다칠가 念ᄒᆞ시니[246]

이진유는 남성화자로서 표현한 임금을 향한 충성과 그리움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여성화자로서 말을 한다. 위의 대목에서 고운 자태도 없고 재덕도 없는 자

245) 이진유, 「속사미인곡」, 이상보, 『18세기 가사전집』, 민속원, 1991, p.112.
246) 이진유, 「속사미인곡」, 이상보, 앞의 책, p.113.

신을 임이 귀중하게 여겨서 늘 칭찬하고 감싸주었음을 말한다. 유배지에서의 체험을 토로할 때는 특별히 여성화자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임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남성화자보다 여성화자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사미인계 시가의 작가들은 정치적 좌절을 겪을 때 정철의 「전후미인곡」의 제목, 화자, 공간 등 여러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작품을 창작하여 자신의 충절을 표명하고자 하였다.

조선시대에 「전후미인곡」의 후속작품이 끊임없이 나왔다는 것은 무엇보다 송강가사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사미인곡계 시가가 지속적 산출은 조선사대부들이 「전후미인곡」을 창작 원천으로 삼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서인들의 여러 노력을 통해 송강가사가 점차 충신연주지사의 전범이 되어갔던 것이다.

또한 끊임없이 나오는 후속작품들은 송강가사의 인지도를 넓히며 송강가사의 충신연주지사 이미지를 더욱 굳건히 함으로써 송강가사와 상호영향을 주고받았다. 「전후미인곡」의 후속작품 대부분은 조선사대부들이 자신의 충절을 강조하기 위해 송강가사의 제목까지 수용하여 창작한 작품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송강가사의 존재와 충신연주지사로서의 성격을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전후미인곡」의 후속작품은 작가가 처한 처지로 인해 창작되었지만, 후속작품의 창작으로 인해 송강가사는 충신연주지사의 대표작으로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사미인곡계 시가의 작가가 대부분 서인 계통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은 송강가사를 표창하기 위하여 후속작품을 창작했을 것이다. 특히 홍양호와 이안눌 등이 국문시가인 「전후미인곡」을 수용하여 한시를 창작한 것은 송강가사의 영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능한 모든 형식적 실험을 시도하면서 송강가사의 충신연주지사 이미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 「관동별곡」과 「성산별곡」의 후속작품은 송강가사의 전승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들의 후속작품은 「전후미인곡」의 후속작품만큼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로 자연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러한 작품은 「전후미인곡」의 후속작품만큼 송강가사의 충신연주지사 이미지를 굳건히 하지는 못했겠지만, 「관동별곡」이나 「성산별곡」의 인지도를 넓히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전후미인곡」의 후속작품을 위시한 송강가사 후속작품의 창작은 송강가사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었음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송강가사의 인지도를 넓히며 충신연주지사 이미지를 더욱 굳건히 하였다.

이처럼 서인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송강가사가 "우리나라의 이소"라는 말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수단은 「전후미인곡」을 위시한 송강가사를 베끼고 송강가사와 추모시·번사·찬사·제사를 함께 간행한 것, 「전후미인곡」을 위시한 송강가사를 한역한 것, 「전후미인곡」을 위시한 송강가사의 후속작품을 창작한 것을 포함한다. 특히 송강가사 후속작품의 창작은 송강가사가 점차 충신연주지사의 전범이 되어 가고 있었던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송강가사를 충신연주지사의 전범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상에서 조선사대부가 초사를 충신연주지사로 간주한 원인, 송강가사를 "우리나라의 이소"라고 한 목적,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송강가사가 "우리나라의 이소"라는 말을 받아들이게 한 방법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다. 주희를 비롯한 중국사대부들은 처음에 중용에 맞지 않다고 여겨지던 굴원과 초사를 유교적 충신과 정전으로 만들었다. 서인 사대부들은 주자의 시각을 통해서 초사를 이해하였고,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송강가사를 충신연주지사의 전범으로 만들고자 송강가사가 "우리나라의 이소"라고 했으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송강가사의 문자화 및 한역과 송강가사 계승작 창작에 힘썼다. 이로 인해 「전후미인곡」과 「이소」의 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에 송강가사가 "우리나라의 이소"라고 불린 것이다.

Ⅵ. 결론

본고에서는 정철의 「전후미인곡」과 굴원의 「이소」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킨 작가의식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정철이 굴원의 「이소」를 어떻게 「전후미인곡」으로 새롭게 만들었는지를 규명하고, 나아가 조선시대에 송강가사가 "우리나라의 이소"라고 불린 이유를 밝혔다.

제Ⅱ장에서 「이소」와 「전후미인곡」의 작품 내적 요소와 그에 내포된 작가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시대와 지역의 상황을 체험한 '사'인 굴원과 정철의 시대적·지역적 배경과 생애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먼저, 작가가 살았던 시대와 지역의 국가상황, 전반적인 정치 현실, 지배적 사상, 당대의 일반적인 현실대응 태도와 일반적인 군신관을 비교하였다. 그 다음으로, 작가 개인의 정치상황 · 지배적인 사상 · 현실대응 태도 · 군신관을 중심으로 작가 생애를 비교하였다. 한마디로, 굴원은 중국 전국시대 말기의 애국자였다고 할 수 있고, 정철은 16세기 조선에 있어 서인의 정치사상에 가까운 사대부였다고 할 수 있다.

제Ⅲ장부터 Ⅳ장까지 「이소」 와 「전후미인곡」의 내적 요소와 그에 내포된 작가의식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먼저 제Ⅲ장에서 화자와 임금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였다. 「이소」에 남성화자와 여성화자가 혼재되어 있는 것에 비해, 「전후미인곡」의 화자는 여성으로만 나타난다. 이는 두 작가가 그리려는 군신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굴원은 「이소」에서 여성화자로 자신의 충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더 이상 사우로 섬기지 않는 임금에 대한 울분의 심정을 호소하고, 남성화자로 이제 다른 현군을 찾아 사우의 대접을 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토로한다. 정철은 「전후미인곡」에서 여성화자를 통해 임금과의 믿음과 존중이 영원하기를 기대하면서도 자신이 버림받은 이후에도 임금을 그리워하고 걱정한다는 마음을 드러낸다. 굴원은 일방적인 충효가 강조되지 않는 군신관계를 그리고 있지만, 정철은 일방적인 충효가 강조되는 군신관계를 그리고 있다. 다음으로 두 작가의 작품에서 임금에 대한 태도 차이가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았다. 임금에 대한 태도가 다른 이유는 두 작가의 군신관 및 그들이 처한 국가 상황과 정치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제Ⅳ장에서 시·공간과 작가의 진퇴의식을 비교하였다. 두 작가의 작품은 시·공간의 설정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이소」에서 그리는 시간은 순환성이 없으며, 화자는 천상계와 지상계라는 두 세계를 이동하고 있다. 「전후미인곡」에서 그리는 시간은 춘하추동의 계절, 주야의 주기로 순환성이 있으며, 화자는 지상계에 존재하는 공간을 이동할 뿐 천상계로 이동하지 못한다. 둘째, 「이소」의 시·공간구조가 순환하지 않는데 반해 「전후미인곡」의 시·공간구조는 순환하고 있다. 「이소」의 화자는 과거에 지상계의 조정에 있었지만 죽음으로써 미래에 팽함이 거처하는 지하계로 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전후미인곡」 의 화자는 과거에 임과 함께 천상계에 있었는데 미래에 변신으로써 천상계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다.

다음으로 두 작가 작품의 시·공간이 다르게 설정된 이유를 분석하였다. 이는 두 작가가 그리고자 했던 진퇴의식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굴원은 「이소」에서 고국의 조정을 간신배가 있는 부정적인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떠나고 싶으면서도 고국에 대한 사랑을 비롯한 여러 이유로 인해 망설였다. 그러나 정철은 「전후미인곡」에서 조정을 정적의 존재로 인한 부정적 공간으로 보지 않으며, 어쩔 수 없이 초야로 물러난 후 항상 임을 그리워하고 걱정해서 조정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다. 결국 굴원은 작품에서 애국 때문에 다른 국가에 차마 가지 못하지만 고국의 조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으며, 고국에 대한 사랑과 미정의 이상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고 고국의 정치에 대한 분노와 다른 국가에 가서 이상을 추구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표현한다. 반면 굴원과 달리 정철은 작품에서 결국 조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확고해졌으며, 임금에 대한 사랑을 영원히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한다. 그렇다면 두 작가의 작품에서 진퇴의식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무엇보다 두 작가 당대의 출처관이 차이를 보이며, 두 작가가 처한 국가 상황과 정치현실이 다르기 때문이다.

Ⅲ장과 Ⅳ장의 분석을 통해 「이소」는 충신연주지사가 아닌데 반해 「전후미인곡」은 충신연주지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Ⅴ장에서는 「전후미인곡」이 '동방이소'로 불린 원인을 분석하였다. 1절에서는 서인사대부를 포함한 조선사대부가 굴원과 초사를 유교의 충신과 정전으로 간주했던 까닭을 살펴보

았다. 주자 등의 중국사대부들은 처음에 중용에 맞지 않다고 여겨지던 굴원과 초사를 유교적 충신과 정전으로 만들었고, 서인사대부들은 주자의 시각을 통해서 초사를 이해하였다. 2절에서는 서인사대부가 송강가사를 "우리나라의 이소"로 만든 목적과 방법을 밝혔다. 서인사대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송강가사를 충신연주지사의 전범으로 만들고자 정철과 그의 문학을 굴원과 초사에 비견하였다. 그들은 송강가사가 동방이소로 만들고자 송강가사의 문자화 및 한역과 송강가사 후속작 창작에 힘썼다. 이로 인해 송강가사는 굴원의 초사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소"로 여겨진 것이다.

지금까지 「이소」와 「전후미인곡」의 내적 요소와 작가 의식의 차이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문학에서 초사가 지니는 의미와 송강가사의 독창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었다. 다만 굴원 초사와 송강가사의 전체를 비교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작업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1. 자료

金萬重,『西浦漫筆』,『한국역대문집총서』247, 경인문화사, 1994.
金相肅, 『思美人曲帖』, 규장각 소장본, 가람문고 811.05 J462S.
金春澤, 『北軒集』, 한국문집총간 185.
金孝元,『省菴遺稿』, 한국문집총간 41.
미상,『厚光世牒』, 한국고전번역권 DB.
朴淳, 『思菴集』, 한국문집총간 38.
成海應, 『研經齋全集續集』, 한국문집총간 279.
宋達洙, 『守宗齋集』, 한국문집총간 313.
李選, 『芝湖集』, 한국문집총간 143.
李彦迪,『晦齋全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영인본, 1973.
李珥,『栗谷先生全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 1958.
鄭澈,『松江歌辭(松江歌辭追錄 遺詞)』, 김사엽 해제, 경북대학교, 1958.
鄭澈,『松江全集』(영인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64.
鄭澈,『松江集』, 한국문집총간 46.
洪良浩, 『耳溪集』, 한국문집총간 241.
『中宗實錄』, 『明宗實錄』. (한국고전번역원 DB, http://db.itkc.or.kr/)

班固,『白虎通』, 中華書局, 1985.
班固, 『漢書』, 四庫全書 電子版.
蔡正孫,『詩林廣記』, 四庫全書 電子版.
陳仁子,『文選補遺』, 四庫全書 電子版.
陳徐陵, 『玉臺新詠』, 四庫全書 電子版.
杜甫, 『杜詩詳註』, 仇兆鰲 註, 中華書局, 1999.
杜預 註 · 孔穎達 疏,『春秋左傳註疏』, 四庫全書 電子版.
『管子』, 四庫全書 電子版.
『韓非子』, 四庫全書 電子版.
何休 解詁 · 徐彦 疏,『春秋公羊傳註疏』, 四庫全書 電子版.
洪興祖, 『楚辭補註』, 中華書局, 1981.
黃伯思, 『東觀餘論』, 四庫全書 電子版.
蔣驥, 『山帶閣註楚辭』, 四庫全書 電子版.

『列子』, 四庫全書 電子版.
林雲銘, 『楚辭燈』,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2.
劉向, 『新序』, 四庫全書 電子版.
劉勰, 『文心雕龍』, 四庫全書 電子版.
柳永, 『柳永詞詳註及集評 』, 姚學賢·龍建國 簴, 中州古籍出版社 1991.
『論語』, 張燕嬰 譯註, 中華書局, 2007.
『孟子』, 萬麗華 · 藍旭 譯註, 中華書局, 2007.
『墨子』, 四庫全書 電子版.
錢玄, 『三禮名物通釋』, 江蘇古籍出版社, 1987.
『詩經』, 王秀梅 譯註, 中華書局, 2006.
司馬遷, 『史記』, 四庫全書 電子版.
蘇軾, 『東坡全集』 권26, 四庫全書 電子版.
蘇轍, 『唐宋八大家文抄 · 蘇轍2』, 김동주 역주, 전통문화연구회, 2011.
王逸, 『楚辭章句』, 四庫全書 電子版.
温庭筠, 『溫庭筠全集校註』, 中華書局, 2007.
顔之推, 『顔氏家訓』, 臺灣商務印書館, 1968.
『戰國策』, 四庫全書 電子版.
朱熹, 『楚辭集注』, 蔣立甫 校點, 上海古籍出版社·安徽教育出版社, 2001.
班固, 『白虎通』 ; 朱熹, 『論語集註』. (國學導航, http://www.guoxue123.com/)
劉希夷, 「代悲白頭翁」; 孫承恩, 「擬古二十七首」; 王適, 「江上有懷」; 吳夢旸, 「同潘景升顧嘿孫集湖上代妓作」; 『有所思』(兩漢樂府); 張景祁, 「換巢鸞鳳 用梅溪韻同魏丈滋伯作」. (搜韻, https://sou-yun.com/index.aspx/)

2. 논저

강광식, 『신유학사상과 조선조 유교정치 체제』, 백산서당, 2012.
국제문화재단 편, 『한국의 선비문화』, 서울: 시사영어사, 1982.
권용호, 『초사』, 글항아리, 2015,
김사엽, 『송강가사』, 문호사, 1959.
김영수, 『조선시가연구』, 새문사, 2004.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7.
김진욱, 『송강 정철 문학의 재인식』, 역락, 2004.
박영주, 『송강정철평전』, 중앙M&B, 1999.
범선균, 『굴원문학논집』, 신아사, 2001.

서수생, 『한국시가연구』, 형설출판사. 1970.
이상보, 『18세기 가사전집』, 민속원, 1991.
이은봉, 『한국인의 죽음관』,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정재호 외, 『송강가사』, 신구문학사, 2006.
정재훈 역해, 『동호문답』, 아카넷, 2014,
최태호, 『송강문학론고』, 역락, 2000.

戴錫琦 외, 『屈原學集成』, 中央編譯出版社, 2007.
金開誠, 『屈原辭研究』, 新星出版社, 2005.
金開誠 외, 『屈原集校注』, 中華書局, 1999.
劉澤華외, 『專制權利與中國社會』, 吉林文史出版社, 1988.
潘富俊, 『楚辭植物圖覽』, 上海書店出版社, 2003.
顔翔林, 『楚辭美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2.
楊義, 『楊義文存·第七卷』, 人民出版社, 1998.
殷光熹, 『楚辭論叢』, 巴蜀書社, 2008.
遊國恩, 『遊國恩楚辭論著集4』, 中華書局, 2008.
余英時, 『士與中國文化』, 上海人民出版社, 1987.
余英時, 『中國知識階層史論 (古代篇)』, 聯經出版事業公司, 1997.
周建忠, 『楚辭考論』, 商務印書館, 2007.

3. 논문

고순희, 「18세기 정치현실과 가사문학 -「별사미인곡」과 「속사미인곡」을 중심으로- 」, 『어문학』78집 , 한국어문학회, 2002.
김신중, 「송강 가사의 시·공상 대비적 양상」, 『고시가연구』 3집, 한국시가문화학회, 1995.
김진욱, 「굴원이 정철 문학에 끼친 영향 연구-「사미인」과 「사미인곡」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1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3.
김진희, 「송강가사의 수용론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김훈식, 「16세기 군신윤리의 변화와 출처론」, 『역사와 현실』 50집, 한국역사연구회, 2003.
박영주, 「서포가 송강가사를 '아동지이소'라고 한 것에 대하여」, 『반교어문연구』 1집, 반교어문연구회, 1988.
서수생, 「송강의 전후 사미인곡의 연구: 특히 굴원의 초사와 비교해 가면서」, 『경북대학교 논문집』6집, 경북대학교, 1962.

서원섭,「사미인곡계 가사의 비교연구」,『경북대학교 논문집』11집, 경북대학교, 1967.
이병기,「송강가사의 연구」,『진단학보』 4·6·7집, 진단학회, 1936/1937.
이혜순,「15·16 세기 한국 여성화자 시가의 의의 -「사미인곡」·「속미인곡」·「첩박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19집,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7.
장수현, 『사미인곡계 가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정만조, 「16세기 사림계 관료의 붕당론」, 『한국학논총』 12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0.
정재훈,「16세기 사림 공론의 내용과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71호, 조선시대사학회, 2014.
조세형, 「가사 장르의 담론 특성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8.
조세형,「한국 애정시가의 전통과 시공간적 상상력」, 『국어국문학』 147호, 국어국문학회, 2007.
최규수,「적강 모티프 유배가사작품에 나타난 표현방식의 특성과 시적 효과」, 『이화어문논집』 13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1994.
최상은,「고전시가의 이념과 현실, 그리고 공간과 장소 의식 탐색」, 『한국시가연구』34집, 한국시가학회, 2013.
최상은,「한중 연군 문학 비교 연구 —굴원의 「이소」와 정철의 「사미인곡」」, 『중국학논총』29호, 한국중국문화학회, 2010.

高華平,「屈原"美政" 思想與楚國的諸子學」, 『江漢論壇』 02期, 2010.
郭傑,「先秦國家觀念與屈原的宗國意識」, 『東北師大學報』 04期, 1989.
黃崇浩,「「離騷」結構的深層解析」, 『雲夢學刊』06期, 2005.
劉五一,「"美政"理想是屈原及其作品的核心思想」, 『天中學刊』 06期 18, 2003.
梅瓊林,「「離騷」求女之構思與'巫歌'原型性戀的關系試探」, 『中州學刊』 03期, 1994.
潘嘯龍,「論「離騷」的"男女君臣之喻"」,『文化遺産』02期, 1987.
魏昌,「吳起變法與楚國國情」, 『長江大學學報』 04期, 1989.
衛向虎,「關於中國古代女子"冠"的幾點思考」, 『現代裝飾(理論)』 10期, 2015.
楊成孚,「「離騷」"求女"解新論」, 『南開學報』 05期, 1995.
趙逵夫,「「離騷」的比喻和抒情主人公的形貌問題」,『中國社會科學』04期, 1992.
趙逵夫,「「離騷」中的龍馬兩個世界的藝術構思」, 『文學評論』01期, 1992.
周建忠, 「「離騷」'求女'研究平議」, 『東南文化』 11期, 2001.
周金華,「試論春秋戰國時期知識分子在社會變革中的地位與作用」,『湘南學院學報』 04期, 2007.

<中文摘要>

鄭澈「前後美人曲」和屈原「離騷」的比較研究

馮智

首爾大學 研究生院

國語國文系 國文學專業

本文旨在以作者意識為中心對鄭澈的「前後思美人曲」和屈原的「離騷」進行比較分析。通過這樣的比較，具體探究鄭澈和屈原作品間影響關系。同時，在對作者的生平、時代背景和作品世界一一考察的基礎上探索朝鮮時期松江歌辭被稱為"我東之離騷"的原因。這種分析方式對於屈原的楚辭在韓國文學領域所獲得的文學批評價值和對松江歌辭文學史的認識水準的多元化方面將具有重要的意義。

在具體的作品分析之前，第二章闡述了屈原和鄭澈這兩位"士"所生活的時代和地域背景間的差異以及他們的生平差異。首先在第一節，比較了作者生活的時代和地域的國家狀況、國家的政治現實、主導思想、包含在主導思想中的士人所普遍具有的對應現實問題的態度及君臣觀。然後在第二節中，以作者個人所處的政治狀況、主導思想、對應現實問題的態度、君臣觀為中心，對作者的生平進行比較。據此來看，屈原是反映了中國戰國末期狀況的愛國者，而鄭澈是體現16世紀朝鮮王朝中西人政治思想核心的士大夫。

第三章中對話者及作者對君王的態度進行了比較。「離騷」中男性話者和女性話者同時存在，而「前後美人曲」的話者從頭至尾是女性。出現這種差異的原因在於兩位作者欲在作品中表達的君臣關系是相異的。屈原在「離騷」中用女性話者去傾訴對無視自己的忠心、不再尊自己為師友的故國君王的郁憤心情，用男性話者抒發今後去尋找尊己為師友的賢君的迫切欲望。而鄭澈則是在作品中用女性話者表達雖期待自己可以永遠和君王互尊互信，但即使被君王拋棄卻依舊思念、擔心君王的心情。

可以說，屈原表達的君臣關系並不強調單方面的忠孝，而鄭澈卻刻畫了強調單方面忠孝的君臣關系。接著探討了兩位作家的作品中所體現出的臣子對君王態度有所差別的原因。這種態度差異是由於兩位作者的君臣觀的差異、所處的國家狀況及政治現實的差異所造成的。

第四章中主要比較了時空間和作者的進退意識。首先屈原和鄭澈的作品中時空間的設定是有差異的。第一，「離騷」中描述的時間不具有循環性，話者在天上界和地上界這兩界之間來回移動。而「前後美人曲」中描述的時間——春夏秋冬四季節、晝夜是具備循環性的，話者只在地上界的幾個空間中移動、無法向天上界移動；第二，「離騷」的時空間是不循環結構，「前後美人曲」的時空間結構卻是循環的。「離騷」的話者雖然過去在地上界的故國朝廷，但希望未來可以通過死亡的方式去彭鹹居住的地下界。而「前後美人曲」的話者過去和君王一起在天上界，且希望未來通過變身回到天上界。

此後分析了屈原和鄭澈的作品中設定不同時空間的原因。時空間的差異是兩位作者想要表達的進退意識不同所造成的。屈原在「離騷」中表現了因為將故國朝廷視為充滿奸臣的負面性空間而希望去他國的同時，因為愛國心等各種理由猶豫彷徨的內心。但鄭澈在「前後美人曲」中表達的是自己並不因政敵的存在而將朝廷視為負面性的空間，且當自己無可奈何地回歸鄉野後依然思念、擔心君王和希冀回歸朝廷的欲望。並且在作品最後，屈原表示自己雖然因為愛國而不忍去別國、卻也不願再返回故國朝廷。以此強調了自己意欲對故國和美政理想同時守護的意志，以及吐露了對於故國腐敗政治的憤怒和未能去別國實現理想的遺憾。而與屈原不同的是，鄭澈在作品的最後表現了對回歸朝廷更為堅定的抉心。以此強調自己將永遠愛慕君王的意志。從總體看來，屈原和鄭澈的出處觀、所處的國家狀況及政治現實的差異是兩位作者的作品中出現不同進退意識的原因所在。

通過第三章和第四章的分析可以得知，與「離騷」不同，「前後美人曲」幾乎可以看作是忠臣戀主之詞的典型。在此基礎上，第五章分析了松江歌辭被稱作"東方離騷"的原因。首先分析了包括西人在內的朝鮮士大夫將屈原和楚辭視為儒教忠臣和正典的原因。答案是，朱子等中國士大夫們將起初被認為並不符合中庸思想的屈原和楚辭抬高到了忠臣和正典的位置上，而西人士大夫們則是通過朱子的視角去理解楚辭。西人士大夫為了達到穩固西人政治立場正當性這一目的，將鄭澈和他的文學作

品比作屈原和楚辭。而且，他們為了將松江歌辭美化成"東方離騷"，進行了松江歌辭的文字化、漢譯松江歌辭、創作松江歌辭的後續作品等多方位的努力。因而，即使和屈原的楚辭有著本質上的差異，松江歌辭會在朝鮮時期被稱為"東方離騷"。

核心語：古典诗歌，比较文学，鄭澈，屈原，「前後思美人曲」，「離騷」
學號：2010－23966